

2019년도 1학기
한신대학교 응용통계학과
통계조사실습 조사보고서

부모의 경제능력과 자녀의 구직활동과의 관계 분석 보고서

응용통계학과 201452024 박상희

2019년 6월

한신대학교 응용통계학과

- 목 차 -

I . 2016GOMS 조사개요	----- 3 p
II . 조사 설계	----- 4 p
- 표본 설계	----- 4 p
- 측정 설계	----- 6 p
- 조사 방법	----- 7 p
- 가중치 설계	----- 9 p
III . 응답자 현황 및 특성	----- 10 p
IV . 부모의 경제능력과 자녀의 구직활동과의 관계	----- 12 p
- 분석 목적 및 대상	----- 12 p
- 분석 문항	----- 16 p
- 문항 분석	----- 19 p
V . 결과 요약 및 결론	----- 101 p
- 결과 요약	----- 101 p
- 결론 및 제언	----- 102 p

I . 2016GOMS 조사개요

GOMS는 Graduate Occupational Mobility Survey의 약자로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를 뜻한다. GOMS 앞의 4자리 숫자는 대졸자들의 졸업년도를 뜻한다. 이 조사는 매년 2~3년제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자를 모집단으로 하여, 그 중 약 4%에 해당하는 약 18,000 여명의 패널을 구축한다. 이 조사는 2006년 시작되었으며 조사 시작 당시에는 패널 조사¹⁾로 설계하였으며, 2012년 이후에는 횡단면조사²⁾만 실시되고 있다.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는 대졸자들이 학교를 졸업한 후 약 18개월 후에 조사를 실시한다. 주요 조사 내용은 대졸자의 교육과정, 구직활동, 일자리 경험, 직업훈련, 자격증, 개인신상정보 및 가계배경 등이다. 이 조사는 졸업 후 약 18개월 후를 기준 시점으로 하므로 졸업 직후의 첫 일자리와 현재의 일자리에 대한 질문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조사를 통해 나온 결과들은 교육시장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의 성과분석, 직무불일치 분석, 교육투자수익률 분석 등 다양한 범위에서 활용되며 한국고용정보원이 실시하는 인력수급전망에 활용되고 있다.

조사에 대한 결과의 공표 주기는 ‘년’이며, 공표 시기는 조사 기준 년 ‘익익년 2월’이다. 또한 이 조사는 통계청으로부터 공식 승인을 받은 정부승인통계이다. (통계청 승인 번호 : 327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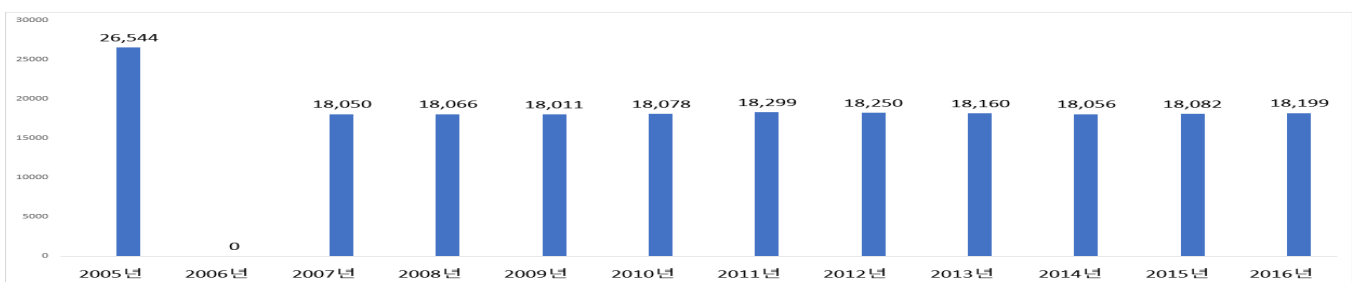
2005년 졸업자에 대한 조사는 8년 동안의 추적조사로 계획하였으나, 2년 동안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중단하였다. 그 이유는 특정년도의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급변하는 한국 노동 시장의 변화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중단을 결정하였다.

표본수는 추적 조사로 계획되었던 2005년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2005GOMS’)에서는 26,544명이었으며, 이후 해마다 18,000명 이상의 표본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또한 2006년 졸업생에 대한 조사는 예산 미확보로 실시되지 않았다. 각 년도 별 표본수는 [표 1.1]과 같다.

[표 1.1] 각 년도 별 표본수

조사대상 졸업년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표 본 수	26,544	-	18,050	18,066	18,011	18,078	18,299	18,250	18,160	18,056	18,082	18,199

[그림 1.1] 각 년도 별 표본수



1) 종단적 조사방법의 하나로 동일 조사대상으로부터 복수(複數)의 시점에서 정보를 얻는 조사법. 즉 조사대상을 고정시키고, 동일한 조사대상에 대하여 동일한 질문을 반복하여 조사하는 것이다. 고정된 조사대상의 전체를 패널이라 한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2) 같은 종류의 여러 개체에 관한 어느 시점의 통계자료에 입각한 분석.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II. 조사 설계

· 표본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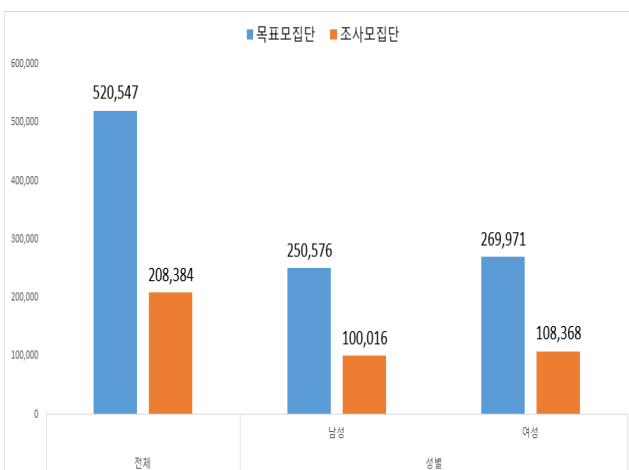
‘2016GOMS’의 목표모집단은 2015년 8월과 2016년 2월에 대학을 졸업한 대졸자이다. 단 목표모집단에 포함된 대학교는 2~3년제 대학, 4년제 대학 그리고 교육대학이며, 4년제 대학은 산업대학을 포함한다. 학점은행제 등 각종학교는 제외되며, 또한 조사대상자에서 외국인 유학생은 제외된다. 조사 기간 동안 해외취업, 해외유학, 병역의무 등의 이유로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조사모집단은 한국교육개발원의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였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목표모집단의 신뢰도 검증 조사를 위해 학교별 30%씩 확률 추출한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2012GOMS’ 부터는 졸업자의 수가 적은 일부 학과에서는 50%씩 자료를 추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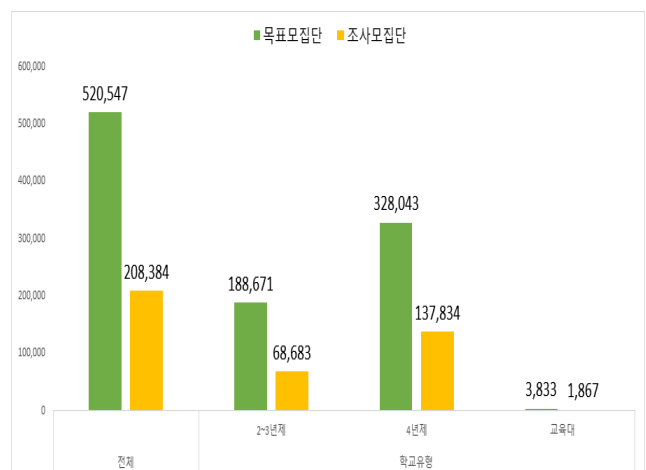
[표2.1] 목표모집단과 조사모집단의 구성(2016GOMS)

		목표모집단	조사모집단
전체		520,547	208,384
성별	남성	250,576	100,016
	여성	269,971	108,368
학교 유형	2~3년제	188,671	68,683
	4년제	328,043	137,834
	교육대	3,833	1,867
권역	서울권	100,152	37,951
	경기.강원권	130,570	51,624
	충청권	88,892	24,452
	경상권	137,706	18,232
	전라.제주권	63,227	76,125
전공 계열	인문계열	48,402	20,508
	사회계열	145,425	54,814
	교육계열	30,187	13,356
	공학계열	124,313	48,232
	자연계열	54,455	23,430
	의약계열	51,284	19,511
	예체능계열	66,481	28,5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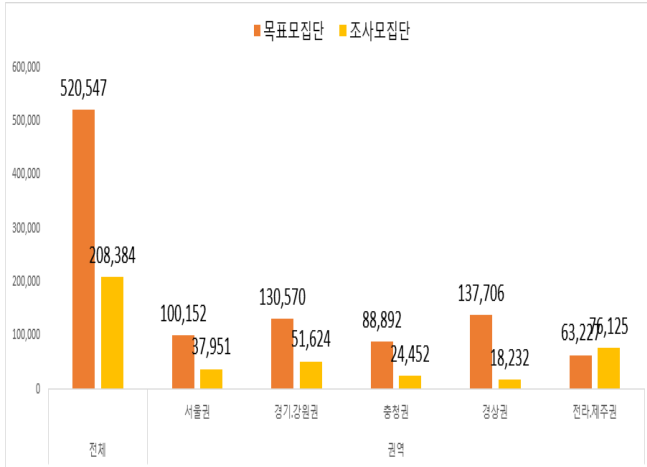
[그림2.1] 성별에 따른 목표모집단과 조사모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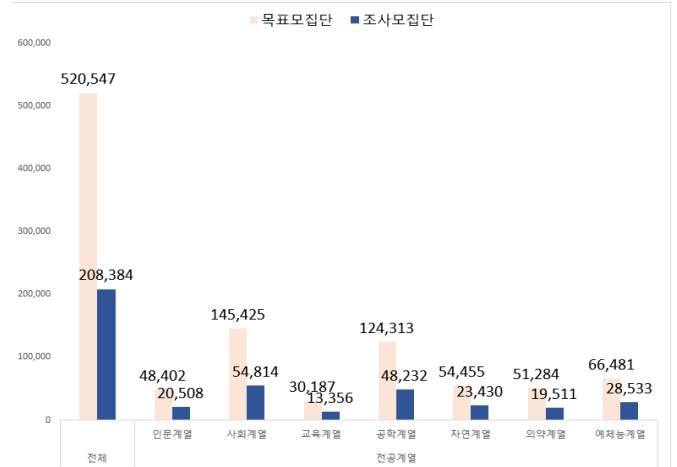
[그림2.2] 학교유형에 따른 목표모집단과 조사모집단



[그림2.3] 권역에 따른 목표모집단과 조사모집단



[그림2.4] 전공계열에 따른 목표모집단과 조사모집단



본 조사에서 표본수는 학과단위를 기준으로 비례배분, 제공근 비례배분을 절충하여 1차 배분하였으며, 2015GOMS의 학과별 취업률의 달성 정도(상대표준오차, C.V.)를 고려하여 추가 배분하였다. 따라서 1차 배분과 학과별 취업률의 달성정도를 고려한 추가 배분을 절충하여 최종 배분을 실시하였다. 기본적으로 학과단위별로 표본수가 30명 이상이 되도록 배정하였지만, 30명 미만인 학과의 경우에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하였다.

학과단위별 표본추출방법은 ‘지역권역 ▶ 지역 ▶ 학교유형 ▶ 학교 ▶ 학과 ▶ 성별’로 정렬한 다음 학교나 학과별로 졸업생수 크기에 학을 비례하는 계통추출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본 조사는 대졸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이며, 학과별로 취업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통계를 생산하고 있으므로, 대학별 학과단위(206개)를 1차 층화단위로 하며, 서울, 경기·강원, 충청, 호남·제주, 영남의 5개의 권역과 성별의 통계가 생산되도록 표본을 추출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추출법으로 계산된 목표 표본은 [표1.3]과 같다.

[표2.2] 목표표본

		목표모집단		조사모집단		목표표본	
		크기	비율	크기	비율	크기	비율
전체		520,547	100%	208,384	100%	18,167	100%
성별	남성	250,576	48.13%	100,016	47.99%	9,010	49.59%
	여성	269,971	51.87%	108,368	52.00%	9,157	50.40%
학교유형	2~3년제	188,671	36.24%	68,683	32.95%	5,847	32.18%
	4년제	328,043	63.01%	137,834	66.14%	12,200	67.15%
	교육대	3,833	0.73%	1,867	0.89%	120	0.66%
권역	서울권	100,152	19.24%	37,951	18.21%	3,407	16.77%
	경기·강원권	130,570	25.08%	51,624	24.77%	4,505	24.79%
	충청권	88,892	17.07%	24,452	11.73%	3,222	17.73%
	경상권	137,706	26.45%	18,232	8.74%	4,733	26.27%
	전라·제주권	63,227	12.14%	76,125	36.53%	2,300	12.66%
전공계열	인문계열	48,402	9.29%	20,508	9.84%	2,046	11.26%
	사회계열	145,425	27.93%	54,814	26.30%	3,766	20.72%
	교육계열	30,187	5.79%	13,356	6.41%	1,051	5.78%
	공학계열	124,313	23.88%	48,232	23.14%	4,892	26.92%
	자연계열	54,455	10.46%	23,430	11.24%	2,432	13.38%
	의약계열	51,284	9.85%	19,511	9.36%	1,445	7.95%
	예체능계열	66,481	12.77%	28,533	13.69%	2,535	13.95%

추출결과를 살펴보면 성별에서는 남성의 비율이 목표모집단 48.13%에서 목표표본 49.59%로 약 1.5% 상승하였다. 학교 유형별로는 2~3년제는 목표모집단 36.24%에서 목표표본 32.18%로 약 4% 하락하였으며, 4년제는 목표모집단 63.01%에서 목표표본 67.15%로 약 4% 상승하였고, 교육대는 비슷하였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권은 목표모집단 19.24%에서 목표표본 16.77%로 약 2.5% 하락하였으며 경기·강원권과 충청권, 경상권, 전라·제주권은 목표모집단의 비율과 목표표본의 비율이 거의 동일하였다. 전공계열별로는 인문계열의 경우 목표모집단 9.29%에서 목표표본 11.26%로 약 2% 상승하였으며, 사회계열은 목표모집단 27.93%에서 목표표본 20.72%로 약 7.5% 하락하였다. 교육계열은 큰 차이가 없었으며, 공학계열은 목표모집단 23.88%에서 목표표본 26.92%로 약 3% 상승하였고, 자연계열은 목표모집단 10.46%에서 목표표본 13.38%로 약 3% 상승하였으며, 의약계열은 목표모집단 9.85%에서 목표표본 7.95%로 약 2% 하락하였으며, 예체능계열에서는 목표모집단 12.77%에서 목표표본 13.95%로 약 1.2% 상승하였다.

· 측정 설계

본 조사는 경제활동상황, 현 직장 일자리, 구직활동 및 비경제활동상태 등의 11개의 영역에서 528개의 문항을 조사하였다. 각 영역별 내용을 요약하면 [표1.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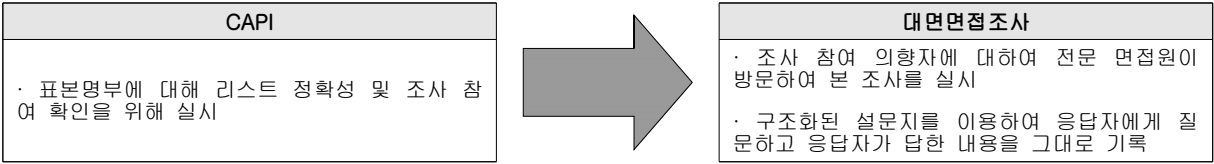
[표2.3] 조사내용 요약

영역	문항수	문항코드	조사항목
경제활동상황	10	SQ	경제활동상황 판별
현 직장 일자리	108	A	일자리 성격, 산업 및 직업, 종사상 지위 및 고용 형태, 비정규 고용, 근로시간 및 근무일수, 근로소득, 만족도 및 직무수준, 사회보험 등 부가급여, 동시 일자리
구직활동 및 비경제활동상태	38	B, C	구직 활동 기간 및 방법, 비경제활동사유, 경제적 문제 해결
첫 직장 일자리	71	D	일자리 성격, 산업 및 직업, 종사상 지위 및 고용 형태, 근로시간 및 근무일수, 근로소득, 만족도 및 직무수준, 사회보험 등 부가급여, 노동조합, 일자리 진입 및 적응, 그만둔 이유
졸업 후 경험한 일자리	136	E	근무기간, 직업 및 산업, 사업체 형태, 종사상 지위, 고용형태, 근로시간 및 근무일수, 근로소득, 그만둔 이유
학교생활	51	F, G	출신 고등학교, 출신 대학교, 이전 학교, 현재 재학 중인 학교, 졸업 후 진학 경험
재학 중 경험한 일자리	12	H	경험여부, 일자리 개수, 근무 기간, 일자리 내용
취업 준비	7	J	졸업 전 취업목표, 졸업 전후 취업 준비
취업 관련 교육 및 훈련	57	I, L, M, N, K, O	어학연수, 직업관련 교육·훈련, 취득 자격증, 시험 준비, 청년고용대책
향후 진로	2	K	현재 구직활동
인적사항	36	Q, P	신체 및 정신 건강, 인적사항, 가족학력 및 직업, 소득 등

· 조사 방법

‘2016GOMS’ 실사는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진행하였다. 또한 조사대상기간을 설정하여 매년도 졸업생의 취업 및 진학 등에 대한 현황을 동일 기간을 기준으로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조사 기간은 9월 1일부터 11월 30일 까지 3개월간 진행하였으며, 조사 기준일은 9월 1일이다.

전문조사기관은 ‘2016GOMS’의 주관인 한국교육개발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조사모집단에서 표본추출결과 작성된 표본명부에서 사전에 전화조사(Computer Aided Telephone Interview, CATI)를 실시하여 실사 참여여부를 먼저 확인한 후에 참여 의향자를 전문 면접원이 방문하였다. 방문조사는 대면 면접조사를 원칙으로 하였다.



전문조사기관에서는 먼저 한국교육개발원으로 제공 받은 표본명부의 표본수, 표본 설계시 사용된 층화변수에 따른 표본수의 일치 여부, 명부 중복 여부, 성명, 연락처 등의 정보 누락, 외국인 포함 여부, 이름, 학교, 학과, 지역, 연락처 등의 중요 정보에 대한 오탈자 여부 등을 확인하였다. 또한 학교가 조사 대상 학교에서 벗어나고, 졸업연도가 다른 경우에는 표본에서 제외시켰다.

최초로 제공 받은 표본 명부에서 표본 수정과 제거 등의 정제 작업을 거쳐 최종 표본명부를 재작성하여 1차로 CAPI를 실시하여 참여 의향을 물은 후 조사 참여 의향자에 대하여 대면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를 실시하는 기간(9월 1일 ~ 11월 30일)동안 학업, 취업, 해외유학, 병역의무, 입원 등의 이유로 면접조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적용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 실사기간 중 가부로 일시 또는 완전 복귀하는 사람은 직접조사를 실시함
 - 학업 및 취업으로 인하여 원거리에 거주하는 경우는 주소 및 전화번호, E-mail 등을 확인하여 추적조사 함
 - 학업 및 취업 등의 이유를 제외한 해외유학, 병역의무, 입원 등의 대상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

조사결과 ‘2016GOMS’의 목표모집단인 2015년 8월 및 2016년 2월 대학졸업자 520,547명 중 18,201명이 최종조사 되었으며 남성은 최종표본 중 53.63%로 나타났으며, 여성은 46.36%였다. 학교별로는 2~3년제는 24.76%, 4년제는 74.47%, 교육대는 0.76%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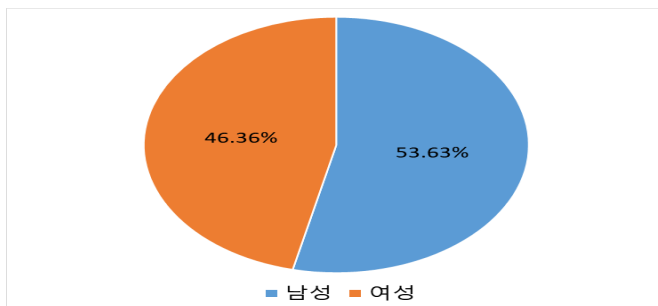
권역별로는 서울이 21.76%, 경기·강원권이 21.72%, 충청권이 16.16%, 경상권이 27.71%, 전라·제주권이 12.62%로 나타났다. 전공계열별로는 인문계열이 11.68%, 사회계열이 20.58%, 교육계열이 6.37%, 공학계열이 28.70%, 자연계열이 14.35%, 의약계열이 7.10%, 예체능계열이 11.19% 로 나타났다. 성별, 학교유형, 전공계열, 권역에 따른 조사응답자의 분포는 [표2.4]와 같다.

[표2.4] 2016GOMS 조사응답자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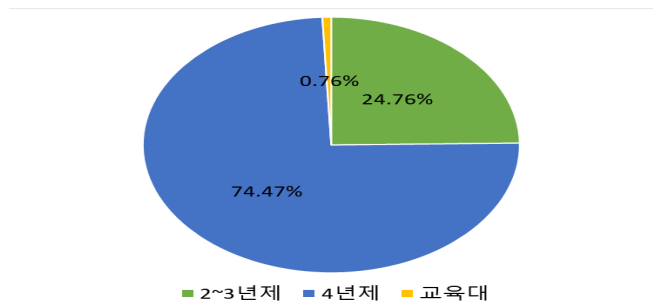
		목표모집단	조사모집단	목표표본	최종표본	최종표본구성비	표본구축비율	표본비율
		A	B	C	D		D/C	D/A
전체		520,547	208,384	18,167	18199	100%	100.19%	3.5%
성별	남성	250,576	100,016	9,010	9762	53.63%	108.36%	3.9%
	여성	269,971	108,368	9,157	8437	46.36%	92.15%	3.1%
학교유형	2~3년제	188,671	68,683	5,847	4507	24.76%	77.08%	2.4%
	4년제	328,043	137,834	12,200	13553	74.47%	111.11%	4.1%
	교육대	3,833	1,867	120	139	0.76%	115.83%	3.6%
권역	서울권	100,152	37,951	3,407	3961	21.76%	116.29%	4.0%
	경기.강원권	130,570	51,624	4,505	3955	21.72%	87.79%	3.0%
	충청권	88,892	24,452	3,222	2942	16.16%	91.31%	3.3%
	경상권	137,706	18,232	4,733	5044	27.71%	106.59%	3.7%
	전라.제주권	63,227	76,125	2,300	2297	12.62%	99.87%	3.6%
전공계열	인문계열	48,402	20,508	2,046	2127	11.68%	103.96%	4.4%
	사회계열	145,425	54,814	3,766	3746	20.58%	99.47%	2.6%
	교육계열	30,187	13,356	1,051	1161	6.37%	110.47%	3.8%
	공학계열	124,313	48,232	4,892	5225	28.70%	106.81%	4.2%
	자연계열	54,455	23,430	2,432	2611	14.35%	107.40%	4.8%
	의약계열	51,284	19,511	1,445	1293	7.10%	89.48%	2.5%
	예체능계열	66,481	28,533	2,535	2036	11.19%	80.36%	3.1%

목표표본에 대비하여 성별로는 남성이 108.36%이고 여성이 92.15%로 나타났다. 학교유형별로는 교육대가 115.83%, 4년제 대학이 111.11%, 2~3년제 대학은 77.08%로 나타났고, 권역별로는 서울권이 116.39%, 경상권이 106.59%, 전라·제주권 99.87%, 충청권 91.31%, 경기·강원권 87.79%로 나타났다. 전공계열별로는 교육계열이 110.47%, 자연계열이 107.40%, 공학계열이 106.81%, 인문계열이 103.96%, 사회계열이 99.47%, 의약계열이 89.48%, 예체능계열이 80.36%로 나타났다. 목표모집단 대비 최종 표본의 비율은 각 특성별로 2.4%~4.4% 수준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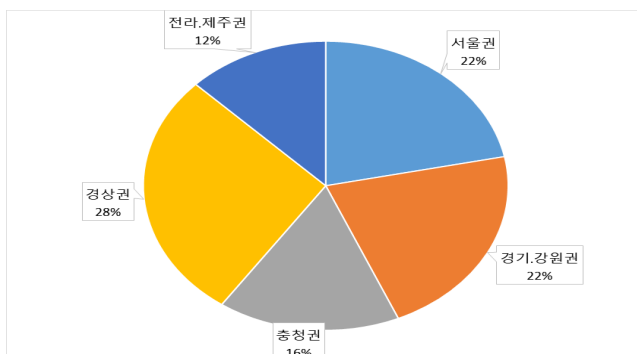
[그림2.5] 성별에 따른 최종표본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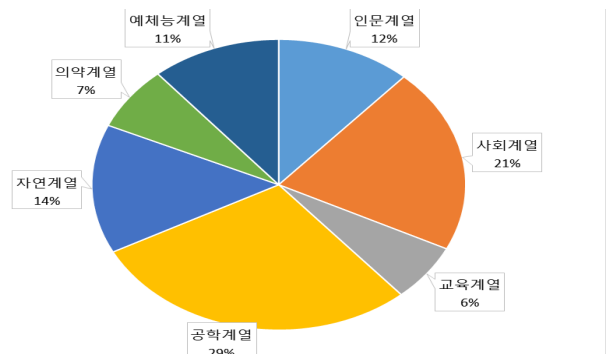
[그림2.6] 학교유형에 따른 최종표본 비율



[그림2.7] 권역에 따른 최종표본 비율



[그림2.8] 전공계열에 따른 최종표본 비율



· 가중치 설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실시한 ‘2016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의 자료를 토대로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의 가중치는 목표모집단에서 조사모집단으로 추출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중치와 조사모집단에서 표본으로의 가중치로 나눌 수 있으며, 초기 가중치는 양자의 곱으로 계산할 수 있다. 조사모집단은 학교단위로, 표본은 학과단위로 추출되므로, 추출계층의 차이로 인해 전체 목표모집단과 초기 가중치의 합은 불일치한다. 따라서 초기 가중치를 목표모집단의 성, 권역, 학교유형, 전공계열, 학과에 대한 사후가중작업을 통해 최종 가중치를 도출하게 된다.

[표2.5] 가중치 산정을 위해 사용된 기호

학과 : $h = 1, 2, \cdots, L$	M : 목표모집단 크기
학교 : $i = 1, 2, \cdots, I$	N : 조사모집단 크기
학생 : $j = 1, 2, \cdots, J$	n : 표본 크기
	r : 응답표본 크기

조사모집단은 목표모집단에서 학교단위로 추출하여 구성하였기 때문에 학교별로 추출확률을 계산한다.

$$w_{ij}^{(1)} = \frac{M_i}{N_i} = \frac{\sum_j M_{ij}}{\sum_j N_{ij}}$$

목표표본은 조사모집단에서 학과단위(h)로 표본을 추출하였기 때문에 추출확률을 이용하여 가중치를 계산한다.

$$w_{hj}^{(2)} = \frac{N_h}{n_h} = \frac{\sum_j N_{hj}}{\sum_j n_{hj}}$$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는 최초표본단위를 대체표본으로 교체(Substitution)하므로 무응답보정과정은 거치지 않는다. 따라서 위의 2단계의 과정을 거쳐 초기 가중치 초기 가중치를 구하고, 사후층화 변인을 고려한 반복적인 수렴과정을 걸쳐 최종적으로 사후조정가중치를 생산한다.

$$\text{초기가중치 : } w_j = w_{ij}^{(1)} \times w_{ij}^{(2)}$$

$$\text{사후조정가중치 : } w_j^p = w_j \times (p^{(1)}, p^{(2)})$$

$$p^{(1)} = \text{학교유형(3)} \times \text{성(2)} \times \text{권역(5)} \times \text{전공계열(7)}$$

$$p^{(2)} = \text{학과(206)}$$

최종 가중치는 사후조정 변인에 대해 반복적인 가중치 조정을 함으로써 수행된다. 반복적인 조정절차 과정 중 한쪽 변인은 100% 목표모집단과 일치하게 되고, 나머지 변인은 다소 차이가 나게 되며, 이러한 현상은 양 변인에 번갈아 가며 발생한다. 조정과정은 한쪽의 차이가 소수점 반올림에 의해 100% 일치할 때까지 반복되어 최종적으로는 양쪽 변인을 정확히 일치시키게 된다.

마지막으로 이상 가중치(outlier)를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최종 가중치를 부여한 후 지나치게 큰 가중치를 갖는 이상 가중치는 가중치의 절단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이는 지나치게 큰 가중치를 갖는 표본단위는 모수 추정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Ⅲ. 응답자 현황 및 특성

[표3.1] 층화변수 특성별 졸업자 분포

		남성		여성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250,539	100%	269,959	100%	520,498	100%
학교유형	2~3년제	78036	31.1%	99701	36.9%	177,737	34.1%
	4년제	171275	68.4%	167653	62.1%	338,928	65.1%
	교육대	1228	0.5%	2605	1.0%	3,833	0.7%
학교소재권역	서울권	44493	17.8%	55711	20.6%	100,204	19.3%
	경기·강원권	63130	25.2%	67472	25.0%	130,602	25.1%
	충청권	44711	17.8%	44174	16.4%	88,885	17.1%
	경상권	68398	27.3%	69215	25.6%	137,613	26.4%
	전라·제주권	29807	11.9%	33387	12.4%	63,194	12.1%
전공계열	인문계열	16067	6.4%	32367	12.0%	48,434	9.3%
	사회계열	65486	26.1%	79893	29.6%	145,379	27.9%
	교육계열	7029	2.8%	23161	8.6%	30,190	5.8%
	공학계열	100774	40.2%	23507	8.7%	124,281	23.9%
	자연계열	24909	9.9%	29572	11.0%	54,481	10.5%
	의약계열	13229	5.3%	38024	14.1%	51,253	9.8%
	예체능계열	23045	9.2%	43435	16.1%	66,480	12.8%

‘2016GOMS’의 목표모집단은 2015년 8월과 2016년 2월에 대학을 졸업한 대졸자이다. 단 목표모집단에 포함된 대학교는 2~3년제 대학, 4년제 대학 그리고 교육대학이며, 4년제 대학은 산업대학을 포함한다. 학점은행제 등 각종학교는 제외된다. 이 조사는 졸업자 520,498명을 목표모집단으로 하며, 그 중 남성 졸업자가 250,539명(48.1%), 여성 졸업자는 269,959명(51.9%)이다. 학교유형별로는 2~3년제는 177,737명(34.1%), 4년제는 338,928명(65.1%), 교육대는 3,833명(0.7%)이다. 학교소재권역별로는 서울권이 100,204명(19.3%), 경기·강원권이 130,602명(25.1%), 충청권이 88,885명(17.1%), 경상권이 137,613명(26.4%) 전라·제주권이 63,194명(12.1%)이다. 전공계열별로는 인문계열이 48,424명(9.3%), 사회계열이 145,379(27.9%), 교육계열이 30,190(5.8%), 공학계열이 124,281(23.9%), 자연계열이 54,481(10.5%), 의약계열이 51,253(9.8%), 예체능계열이 66,480(12.8%)로 나타났다.

학교유형에서 교육대는 여성의 비율이 남성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소재권역별로는 남성과 여성의 큰 차이가 없었으며, 전공계열별로는 공학계열에서 남성의 비율이 여성의 비율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반대로 예체능계열에서는 여성의 비율이 남성의 비율보다 높았다.

[표3.2] 졸업한 학교 특성별 졸업자 분포

		남성		여성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250,539	100%	269,959	100%	520,498	100%
본분교	본교	238,086	95.0%	255,577	94.7%	493,663	94.8%
	분교	6,803	2.7%	6,566	2.4%	13,369	2.6%
	캠퍼스	5,650	2.3%	7,816	2.9%	13,466	2.6%
국공사립	국립	43,734	17.5%	34,535	12.8%	78,269	15.0%
	공립	4,078	1.6%	2,314	0.9%	6,392	1.2%
	사립	196,628	78.5%	229,255	84.9%	425,883	81.8%
	국립대법인	4,419	1.8%	2,990	1.1%	7,409	1.4%
	특별법국립	28	0.0%	150	0.1%	178	0.0%
	특별법법인	1,652	0.7%	715	0.3%	2,367	0.5%
학위과정유형	계약학과	1,785	0.7%	1,175	0.4%	2,960	0.6%
	산업체위탁	4,347	1.7%	3,700	1.4%	8,047	1.5%
	일반과정	239,107	95.4%	255,720	94.7%	494,827	95.1%
	특별과정	0	0.0%	412	0.2%	412	0.1%
	학사학위전공심화 (경력없음)	4,367	1.7%	7,989	3.0%	12,356	2.4%
	학사학위전공심화 (경력있음)	910	0.4%	963	0.4%	1,873	0.4%
주야간	협약학과	23	0.0%	0	0.0%	23	0.0%
	주간	230,507	92.0%	248,624	92.1%	479,131	92.1%
	야간	19,651	7.8%	21,335	7.9%	40,986	7.9%
	원격	381	0.2%	0	0.0%	381	0.1%

졸업한 학교의 특성별로 졸업자의 분포를 보면 본교가 493,663명(94.8%), 분교가 13,369(2.6%), 캠퍼스는 13,466명(2.6%)이다. 국공사립별로 보면 국립이 78,269명(15.0%), 공립이 6,392명(1.2%), 사립이 425,883명(81.8%), 국립대법인이 7,409명(1.4%), 특별법국립은 178명(0.0%), 특별법법인은 2,367명(0.5%)이다. 학위과정유형별로는 계약학과는 2,960명(0.6%), 산업체위탁은 8,047명(1.5%), 일반과정은 494,827명(95.1%), 특별과정은 412명(0.1%), 학사학위전공심화(경력없음)은 12,356명(2.4%), 학사학위전공심화(경력있음)은 1,873명(0.4%)이다. 주야간별로는 협약학과는 23명(0.0%), 주간은 479,131명(92.1%), 야간은 40,989명(7.9%), 원격은 381명(0.1%)이다.

본분교에서 본교가 493,663명(94.8%)로 대부분이었으며, 국공사립에서는 사립이 425,883명(81.8%)로 대부분이었으며, 학위과정유형에서는 일반과정이 494,827(95.1%)이고, 주야간별로는 주간이 479,131명(92.1%)이었다.

IV. 부모의 경제능력과 자녀의 구직활동과의 관계

· 분석 목적 및 대상

최근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수저론”이 유행이다. “수저론”이란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나 상황을 수저의 색깔에 빗대어 등급을 매겨 자신의 현실을 표현하는 것이다. 부모의 형편이 넉넉지 않아 경제적으로 지원을 많이 못 받는 “흙수저” 부터 부모의 경제적 능력으로 하고 싶은 것을 다하면서 살아온 “다이하수저” 까지 등급이 매긴다. 젊은이들은 자식의 자녀에게 만큼은 이런 비참한 현실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신분 상승의 꿈을 위해 열심히 살아간다. 이런 현실을 돌파하기 위해 가장 먼저 젊은이 들이 도전하는 것은 바로 취업이다.

하지만 이런 취업시장에서도 부모의 경제력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고위공직자들이 자녀 청탁으로 인해 검찰의 조사를 받는다는 기사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돈 많은 부모 밑에서 자란 젊은이들은 지금 당장 취업을 하지 않아도 생계의 걱정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 천천히 준비하는 반면 경제적 여력이 없는 젊은이들은 지금 당장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이 원하는 회사보다는 그렇지 않는 곳에 간다.

이번 분석에서는 정말 부모의 경제적인 능력이 자녀에 구직활동에 영향을 미쳤는지 또한 부모의 경제 능력에 따라 취업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어떤 회사에 취업을 하고 싶은지 알아보고자 한다.

2016GOMS의 모집단인 2015년 8월과 2016년 2월 졸업자인 520,498명 중에서 설문 조사일 기준으로 “SQ6. 지난주에 일을 구하려 했는지 여부” 문항에서 “구해 보았다”라고 응답한 39,740명(7.6%)과 “SQ7. 지난 4주 내 일을 구하려 했는지 여부” 문항에서 “구해 보았다”라고 응답한 4,429명(0.7%)을 합한 44,169명(8.4%)을 대상으로 하였다.

SQ6. 귀하는 지난주(2017년 8월 25일~8월 31일)에 직장(일자리)을 구해보았습니까?

1. 구해 보았다. --> B1)로 이동
2. 구해보지 않았다.

SQ7. 귀하는 지난 4주 내(2017년 8월 4일~8월 31일)에 직장(일자리)을 구해보았습니까?

※ 발령대기자 중 1개월 이내에 일을 할 것이 확실한 경우는 “1. 구해 보았다”에 해당합니다.

1. 구해 보았다. --> B1)로 이동
2. 구해보지 않았다. --> C1)로 이동

[표4.1] 현재 구직중인 졸업자 분포

		남성		여성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21,340	48.3%	22,829	51.7%	44,169	100%
학교유형	2~3년제	7308	49.1%	7,572	50.9%	14,880	33.7%
	4년제	13907	47.8%	15,173	52.2%	29,080	65.8%
	교육대	125	59.8%	84	40.2%	209	0.5%
학교소재권역	서울권	3,230	37.6%	5,364	62.4%	8,594	19.5%
	경기.강원권	5,167	48.9%	5,396	51.1%	10,563	23.9%
	충청권	3,238	46.8%	3,676	53.2%	6,914	15.7%
	경상권	6,843	54.9%	5,628	45.1%	12,471	28.2%
	전라.제주권	2,862	50.9%	2,765	49.1%	5,627	12.7%
전공계열	인문계열	1,332	26.8%	3,634	73.2%	4,966	11.2%
	사회계열	6,350	44.6%	7,878	55.4%	14,228	32.2%
	교육계열	478	29.9%	1,118	70.1%	1,596	3.6%
	공학계열	8,592	79.7%	2,191	20.3%	10,783	24.4%
	자연계열	2,353	48.4%	2,512	51.6%	4,865	11.0%
	의약계열	804	33.2%	1,620	66.8%	2,424	5.5%
	예체능계열	1,431	27.0%	3,876	73.0%	5,307	12.0%

분석 대상인 구직 활동 중인 졸업자는 총 44,169명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21,340명(48.3%)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은 22,829명(51.7%)으로 나타났다. 학교유형별로는 2~3년제는 14,880명(33.7%)으로 나타났고, 4년제는 29,080명(65.8%)이고 교육대는 209명(0.5%)이다. 학교유형별 남녀의 차이는 2~3년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263명 더 많았고, 4년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1,266명 더 많았으며 교육대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41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소재권역별로는 서울권은 8,594명(19.5%)이고, 경기.강원권은 12,471명(28.2%)이고, 충청권은 6,914명(15.7%)이고, 경상권은 12,471명(28.2%)이고, 전라.제주권은 5,627명(12.7%)로 나타났다. 학교소재권역별로 남녀의 차이는 서울권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2,134명 더 많았고, 경기.강원권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229명 더 많았으며, 충청권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438명 더 많았고, 경상권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855명 더 많았고, 전라.제주권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97명 더 많았다. 전공계열로 보면 인문계열은 4,996명(11.2%)이고, 사회계열은 14,228명(32.2%)이고, 교육계열은 1,596명(3.6%)이고, 공학계열은 10,783명(24.4%)이고, 자연계열은 4,865명(11.0%)이고, 의약계열은 2,424명(5.5%)이고, 예체능계열은 5,307명(12.0%)으로 나타났다. 전공계열별 남녀의 차이는 인문계열에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2,302명 많았고, 사회계열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1,528명 더 많았고, 교육계열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640명 더 많았고, 공학계열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6,401명 더 많았고, 자연계열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159명 더 많았고, 의약계열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816명 더 많았고, 예체능계열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24,45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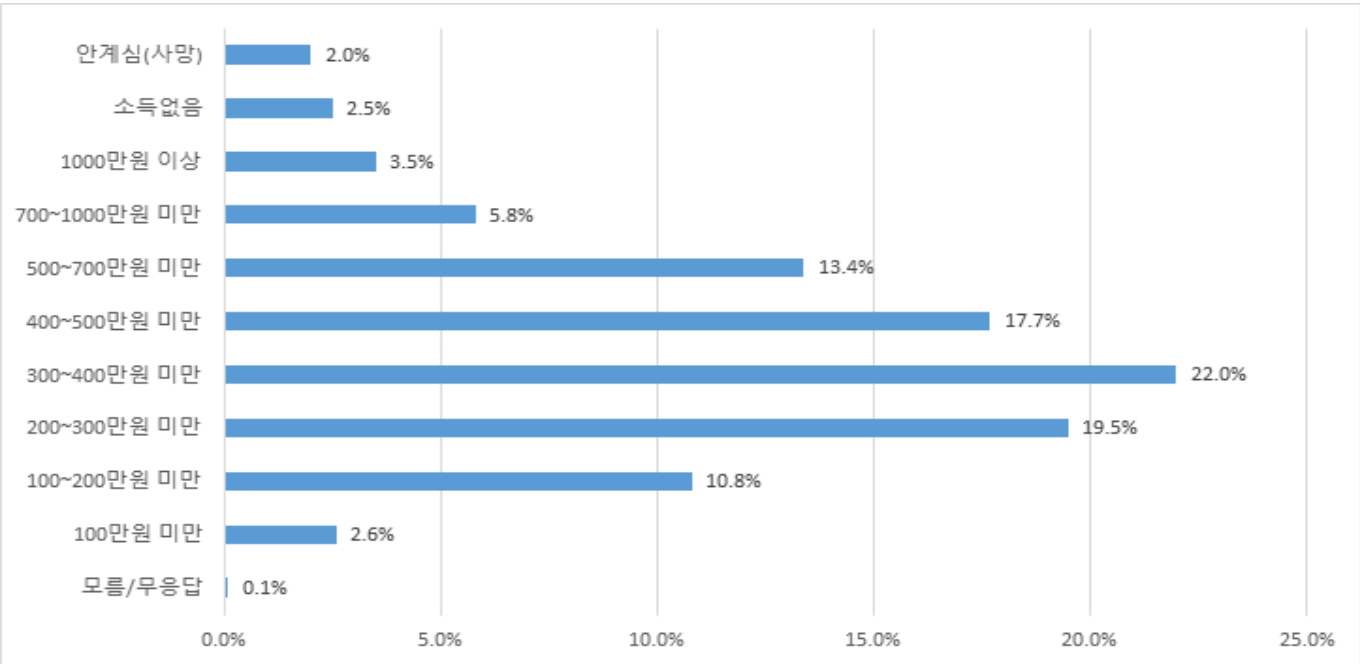
종합해 보면 학교유형, 학교소재권역, 전공계열에서 대부분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많았지만, 교육대, 경상권, 공학계열 부분에서는 남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 활동 중인 졸업자 44,169명에 대하여 성별, 학교유형별, 학교소재권역별, 전공계열별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은 다음과 같다.

[표4.2] 성별, 학교유형별, 학교소재권역별, 전공계열별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400~500만원 미만	500~700만원 미만	700~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소득없음	안계심(사망)	모름/무응답
전체		2.6%	10.8%	19.5%	22.0%	17.7%	13.4%	5.8%	3.5%	2.5%	2.0%	0.1%
성별	남성	3.5%	10.1%	22.4%	22.7%	18.1%	11.2%	3.9%	3.6%	2.8%	1.6%	0.1%
	여성	1.8%	11.4%	16.8%	21.3%	17.3%	15.6%	7.7%	3.5%	2.2%	2.3%	0.2%
학교유형	2~3년제	2.6%	14.6%	18.4%	25.2%	15.2%	8.2%	4.4%	2.9%	3.3%	4.9%	0.3%
	4년제	2.5%	8.6%	20.1%	20.5%	19.2%	16.0%	6.5%	3.9%	2.1%	0.5%	0.0%
	교육대	5.7%	52.6%	9.6%	-	-	22.5%	9.6%	-	-	-	-
학교소재권역	서울권	3.8%	11.6%	16.9%	20.7%	17.5%	13.9%	8.4%	3.7%	2.5%	1.0%	-
	경기.강원권	1.6%	14.3%	19.4%	22.9%	18.8%	9.3%	5.7%	4.0%	2.5%	1.2%	0.4%
	충청권	1.0%	8.1%	24.9%	25.1%	17.2%	14.4%	3.6%	3.5%	2.2%	-	-
	경상권	2.4%	8.7%	20.2%	20.4%	16.9%	17.0%	5.5%	3.1%	3.5%	2.2%	0.1%
	전라.제주권	5.0%	11.0%	15.5%	21.6%	18.6%	11.5%	5.6%	3.4%	0.9%	6.9%	-
전공계열	인문계열	1.3%	9.3%	23.0%	20.2%	18.1%	13.6%	4.1%	5.1%	4.5%	0.8%	-
	사회계열	2.7%	8.9%	18.9%	25.5%	16.6%	13.8%	4.1%	2.9%	3.1%	3.3%	0.3%
	교육계열	3.9%	15.2%	14.2%	15.9%	23.2%	9.1%	10.2%	4.8%	-	3.5%	-
	공학계열	2.4%	10.6%	20.6%	20.7%	18.1%	13.6%	6.5%	3.8%	2.6%	1.0%	-
	자연계열	3.5%	13.4%	19.9%	20.3%	17.3%	14.1%	6.1%	3.8%	0.7%	0.5%	0.3%
	의약계열		9.7%	16.1%	18.5%	25.7%	18.5%	7.9%	1.2%	-	2.4%	-
	예체능계열	3.7%	14.5%	18.2%	21.6%	14.8%	10.5%	8.0%	3.8%	2.5%	2.4%	-

[그림4.1] 성별, 학교유형별, 학교소재권역별, 전공계열별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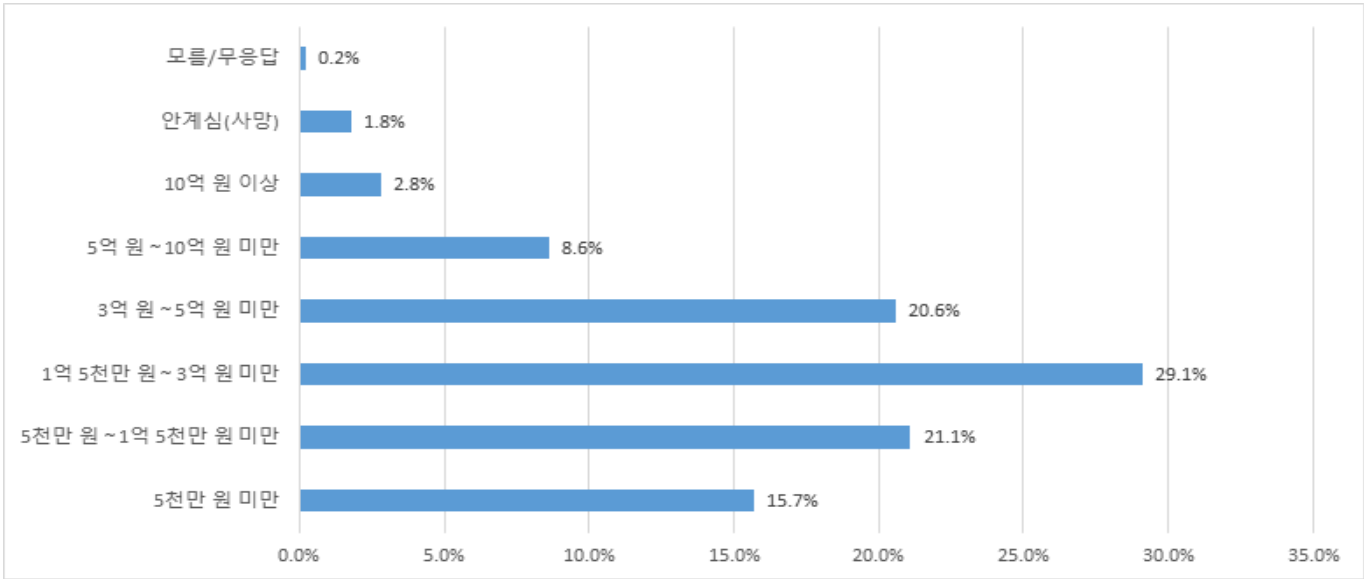


분석 대상인 구직 활동 중인 졸업자는 총 44,169명 중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있는 경우 300~400만원 미만인 22.0%로 가장 많았으며, 100만원 미만인 2.6%로 가장 낮았다. 또한 소득없음은 2.5%, 안계심(사망)은 2.0%, 모름/무응답은 0.1%로 나타났다.

[표4.3] 성별, 학교유형별, 학교소재권역별, 전공계열별 부모님의 자산규모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 1억 5천만 원 미만	1억 5천만 원 ~ 3억 원 미만	3억 원 ~ 5억 원 미만	5억 원 ~ 1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	안계심(사망)
전체		15.7%	21.1%	29.1%	20.6%	8.6%	2.8%	1.8%
성별	남성	14.2%	19.9%	30.9%	21.1%	9.9%	2.6%	1.4%
	여성	17.2%	22.3%	27.5%	20.1%	7.4%	3.0%	2.1%
학교유형	2~3년제	18.8%	24.3%	28.7%	15.6%	5.4%	2.3%	4.3%
	4년제	14.2%	19.4%	29.5%	23.0%	10.3%	3.1%	0.5%
	교육대	9.6%	48.8%	-	32.1%	9.6%	-	-
학교소재권역	서울권	17.8%	18.1%	23.3%	23.6%	12.8%	3.5%	1.0%
	경기.강원권	19.0%	24.1%	24.0%	22.6%	6.2%	3.0%	0.8%
	충청권	14.2%	18.2%	35.1%	17.0%	13.5%	2.1%	-
	경상권	12.1%	21.8%	34.1%	20.2%	6.6%	3.0%	2.2%
	전라.제주권	16.3%	22.4%	29.3%	17.3%	5.7%	2.0%	6.2%
전공계열	인문계열	19.3%	19.1%	25.3%	20.5%	10.4%	4.6%	0.8%
	사회계열	16.5%	21.0%	28.8%	21.8%	6.0%	2.4%	3.0%
	교육계열	19.4%	17.5%	22.7%	21.3%	14.2%	1.3%	3.5%
	공학계열	13.4%	20.9%	32.0%	21.2%	9.0%	3.0%	0.6%
	자연계열	11.4%	20.6%	33.6%	17.5%	14.0%	2.2%	0.5%
	의약계열	16.2%	31.1%	20.1%	22.5%	5.5%	2.1%	2.4%
	예체능계열	17.8%	21.0%	29.8%	17.6%	8.2%	3.3%	2.4%

[그림4.2] 성별, 학교유형별, 학교소재권역별, 전공계열별 부모님의 자산규모



분석 대상인 구직 활동 중인 졸업자는 총 44,169명 중 부모의 자산의 경우 1억 5천만원~3억원 미만이 29.1%로 가장 많았으며, 10억 이상이 2.8%로 가장 낮았다. 안계심(사망)은 1.8%, 모름/무응답은 0.2%로 나타났다.

· 분석문항

B3. 현재까지 얼마동안 구직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 ※ 가장 최근 구직활동을 기준으로 응답해주십시오.
 ※ 1주 이내는 1주로, 4주는 1개월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_____ 개월 _____ 주 동안

B4. 일자리 정보를 얻은 주된 방법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순위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
|-------------------------------|-------------------------|
| 1. 학교 취업정보실 | 9. 인터넷(취업사이트/카페 등) |
| 2. 학과 사무실(교수, 강사, 학과 홈페이지 등) | 10. 회사에 직접 연락 또는 회사홈페이지 |
| 3. 부모 또는 친척(형제자매 포함) | 11. 직업 및 취업박람회 |
| 4. 친구, 선후배 등 지인 | 12. 학원 |
| 5. 신문, TV등 언론매체 | 13. 현장실습/인턴쉽 |
| 6. 생활정보지 | 14. 헤드헌터(서치 컨설턴트) |
| 7. 공공취업알선기관(고용센터, 지자체 취업센터 등) | 15. 기타(_____) |
| 8. 사설취업알선기관(직업소개소 등) | |

B5. 취업을 희망하는 사업체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 | | |
|---------------------------------|--------------------------------|
| 1. 내국인이 운영하는 국내외의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 | 6. 교육기관(대학, 초/중/고 등) |
| 2. 외국인이 운영하는 국내외에 위치하는 외국인 회사 | 7. 연구기관(국립/사립) |
| 3. 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공사합동기관 | 8. 특정한 회사나 사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형태의 근무 |
| 4. (재단, 사단) 법인단체 | 9. 기타(_____) |
| 5. 정부기관(공무원, 군인 등) | 10.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았다. |

B6. 취업을 희망하는 사업체의 규모는 다음 중 어느 정도입니까?

- | | |
|---------------|------------------|
| 1. 1 ~ 29명 | 5. 300 ~ 499명 |
| 2. 30 ~ 49명 | 6. 500 ~ 999명 |
| 3. 50 ~ 99명 | 7. 1,000명 이상 |
| 4. 100 ~ 299명 | 8.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음 |

B11. 구직활동기간 중 일자리에 지원한 횟수는 몇 번입니까?

- ※ 위 B3에 응답하신 구직활동 기간을 기준으로 지원한 횟수를 응답하여 주십시오.

■ _____ 회

B11-1. 구직활동기간 중 면접을 본 횟수는 몇 번입니까?

- ※ 한 기업에서 한 번의 채용전형동안 여러 번 면접을 본 경우는 1회에 해당합니다.

■ _____ 회

B11-2. 구직활동기간 중 일자리를 제의 받은 횟수는 몇 번입니까?

■ _____ 회

B11-3. 일자리 제의(취업, 스카우트 등)를 거절한 경험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B11-4. 일자리 제의를 거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일자리 제의 거절경험이 2회 이상인 경우는 가장 최근 경험을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1. 임금이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해서
2. 고용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아서
3. 적성과 맞지 않아서
4. 전공과 맞지 않아서
5. 장래성이나 발전가능성이 없어 보여서
6. 사회적 이미지가 좋지 않아서
7.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해외근무지 포함)
8. 원하던 직업이 아니어서
9. 더 좋은 곳에 취업도아서
10. 학업 또는 시험준비와 병행이 어려워서
11. 기타(_____)

B15. 향후 일자리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최저 연봉은 얼마입니까?

※ 연평균(연봉)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창업 또는 개인 사업을 준비하시는 경우는 생각하시는 최저 연평균 순수입을 응답하여 주십시오.

■ 연평균(연봉) _____ 만원

B16. 취업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거나 현재 하고 있습니까? 해당하는 곳에 응답해 주십시오.

	예	아니오
(1) 외국어 회화 학원수강	1	2
(2) 토익, 토플 등 외국어 시험	1	2
(3) 면접훈련 교육	1	2
(4) IT, 컴퓨터관련 교육	1	2
(5) 공공취업알선기관 구직등록 또는 상담원 상담	1	2
(6) 취업박람회 참여	1	2
(7) 구직정보를 민간취업알선 인터넷에 등록	1	2
(8) 친인척, 친구, 교수 등에게 취업 부탁	1	2
(9) 자격증 취득	1	2
(10) 헤드헌터(서치 컨설턴트)와 상담	1	2
(11) 외모관리	1	2
(12) 점포물색, 인허가 취득준비 등 창업준비	1	2
(13) 기타(_____)	1	2

B17. 일자리의 선택에서 다음 사항들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2순위까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
|-----------------|---------------------|
| 1. 근로소득 | 9. 직장(고용) 안정성 |
| 2. 근로시간 | 10. 근무환경 |
| 3. 자신의 적성·흥미 | 11. 복리후생 |
| 4. 전공분야와의 관련성 | 12. 회사규모 |
| 5. 업무내용의 난이도 | 13. 출퇴근 거리 |
| 6. 업무량 | 14.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평판 |
| 7. 개인의 발전가능성 | 15. 하는 일에 대한 사회적 평판 |
| 8. 직업 자체의 미래 전망 | 16. 기타(_____) |

B18. 구직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2순위까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1. 취업(창업)정보가 부족하거나 잘 몰라서
2. 본인의 적성을 파악하지 못해서
3. 경력이 부족해서
4. 성차별 때문에
5. 나이가 많거나 적어서
6. 학력, 학벌, 능력(스펙, 자격증 등)이 부족해서
7. 외모 또는 신체적 결함(장애, 병)으로 인해서
8. 수입이나 보수가 맞지 않아서
9. 근무환경이나 근무시간 등이 맞지 않아서
10. 원하는 분야의 일자리가 부족해서
11. 입사 준비서류(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방법을 몰라서
12. 창업자금이 부족해서
13. 기타(_____)

· 문항분석[구직 활동 기간]

B3. 현재까지 얼마동안 구직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 가장 최근 구직활동을 기준으로 응답해주십시오.

※ 1주 이내는 1주로, 4주는 1개월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_____ 개월 _____ 주 동안

[표4.4] 구직 활동 기간

		평균	평균의 표준오차	p-값
전체		24.59	0.73	
성별	남성	26.01	1.05	0.059
	여성	23.25	1.01	
학교유형	2~3년제	17.83	0.97	0.000
	4년제	28.10	0.99	
	교육대	2.56	0.75	
학교소재권역	서울권	28.93	1.91	0.000
	경기.강원권	20.32	1.46	
	충청권	26.92	1.81	
	경상권	25.69	1.30	
	전라.제주권	20.17	1.89	
전공계열	인문계열	29.48	2.18	0.000
	사회계열	24.47	1.45	
	교육계열	20.89	3.15	
	공학계열	27.80	1.48	
	자연계열	26.28	2.17	
	의약계열	12.01	1.71	
	예체능계열	19.28	1.75	
부모님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29.89	6.11	0.991
	100~200만원 미만	28.08	5.12	
	200~300만원 미만	23.36	2.56	
	300~400만원 미만	24.69	1.65	
	400~500만원 미만	24.37	1.61	
	500~700만원 미만	24.22	1.57	
	700~1000만원 미만	24.41	1.99	
	1000만원 이상	25.53	3.19	
	소득없음	23.35	3.05	
	안계심(사망)	27.77	5.07	
	모름/무응답	29.16	7.75	
부모님 자산규모	5천만 원 미만	18.29	7.80	0.321
	5천만 원 ~ 1억 5천만 원 미만	23.74	1.72	
	1억 5천만 원 ~ 3억 원 미만	21.26	1.43	
	3억 원 ~ 5억 원 미만	26.00	1.44	
	5억 원 ~ 10억 원 미만	25.98	1.76	
	10억 원 이상	24.75	2.38	
	안계심(사망)	26.46	4.96	
	모름/무응답	30.65	8.14	

구직 중인 졸업자들이 구직 활동 기간은 평균 24.59주(약 6개월))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평균 26.01주 동안 구직 활동을 했으며, 여성의 경우 평균 23.25주 동안 구직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의수준 5% 하에서 p -값이 0.059로 “성별에 따라 구직 활동 기간의 차이가 없다.” 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만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성별에 따라 구직 활동 기간의 차이는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이를 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2~3년제의 경우 평균 17.83주 동안 구직 활동을 했으며, 4년제의 경우 평균 28.1주 동안 구직 활동을 했으며, 교육대의 경우 평균 2.56주 구직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수준 5% 하에서 p -값이 0.000로 “학교 유형에 따라 구직 활동 기간의 차이가 없다.” 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만한 근거가 충분하다. 따라서 학교 유형에 따라 구직 활동 기간의 차이는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를 학교 소재 권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권의 경우 평균 28.93주 동안 구직 활동을 했으며, 경기·강원권의 경우 평균 20.32주 동안 구직 활동을 했으며, 충청권의 경우 평균 26.92주 구직 활동을 했으며, 전라·제주권의 경우 평균 20.17주 구직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수준 5% 하에서 p -값이 0.000로 “학교 소재 권역에 따라 구직 활동 기간의 차이가 없다.” 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만한 근거가 충분하다. 따라서 학교 소재 권역에 따라 구직 활동 기간의 차이는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를 전공 계열별로 살펴보면 인문계열의 경우 평균 29.48주 동안 구직 활동을 했으며, 사회계열의 경우 평균 24.47주 동안 구직 활동을 했으며, 공학계열의 경우 평균 27.8주 구직 활동을 했으며, 자연계열의 경우 평균 26.28주 구직 활동을 했으며, 의약계열의 경우 평균 12.01주 구직 활동을 했으며, 예체능계열의 경우 평균 19.28주 구직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수준 5% 하에서 p -값이 0.000로 “학교 소재 권역에 따라 구직 활동 기간의 차이가 없다.” 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만한 근거가 충분하다. 따라서 학교 소재 권역에 따라 구직 활동 기간의 차이는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를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별로 살펴보면 100만원 미만의 경우 평균 29.89주 동안 구직 활동을 했으며, 100~200만원 미만의 경우 평균 28.08주 동안 구직 활동을 했으며, 200~300만원 미만의 경우 평균 23.36주 구직 활동을 했으며, 300~400만원 미만의 경우 평균 24.37주 구직 활동을 했으며, 500~700만원 미만의 경우 평균 24.22주 구직 활동을 했으며, 700~1000만원 미만의 경우 평균 24.41주 구직활동을 했으며 1000만원 이상인 경우 평균 25.53주 구직 활동을 했으며, 소득이 없는 경우 평균 23.35주 구직 활동을 했으며, 부모님이 사망하신 경우 평균 27.77주 구직 활동을 했으며 모름/무응답의 경우 평균 29.16회 구직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의수준 5% 하에서 p -값이 0.991로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에 따라 구직 활동 기간의 차이가 없다.” 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만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에 따라 구직 활동 기간의 차이는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이를 부모님의 자산 규모별로 살펴보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평균 18.29주 구직 활동을 했으며, 5천만 원 ~ 1억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평균 23.7주 구직 활동을 했으며, 1억 5천만 원 ~ 3억 원 미만의 경우 평균 26주 구직 활동을 했으며, 3억 원 ~ 5억 원 미만인 경우 평균 25.98주 구직 활동을 했으며, 5억 원 ~ 10억 원 미만인 경우 평균 25.98회 구직 활동을 했으며, 부모님이 사망하신 경우 평균 26.46주 구직 활동을 했으며, 모름/무응답의 경우 평균 30.65주 구직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의수준 5%하에서 p -값이 0.321로 “부모님의 자산 규모에 따라 구직 활동 기간의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만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부모님의 자산 규모에 따라 구직 활동 기간의 차이는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종합해보면 구직 활동 중인 졸업자들은 평균 24.59주(약 6개월) 동안 구직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성별과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 부모님의 자산 규모에 따라서는 구직 활동 기간의 차이가 없었지만, 학교 유형, 학교 소재 권역, 전공계열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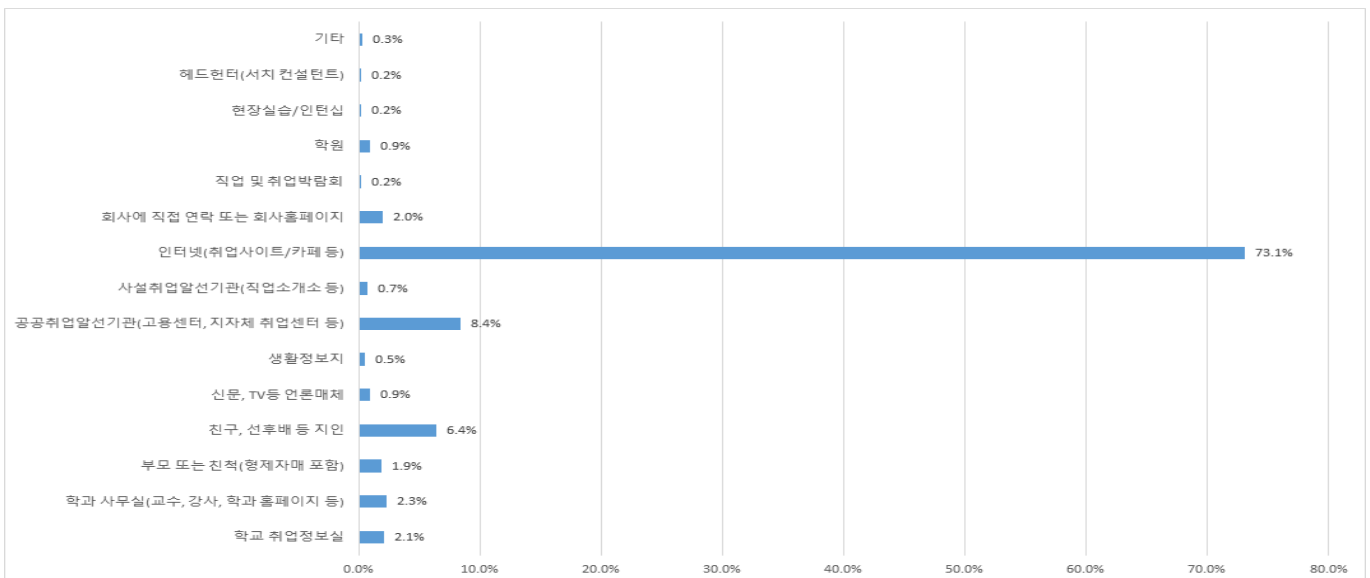
· 문항분석[일자리 정보를 얻는 주된 방법]

B4. 일자리 정보를 얻은 주된 방법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순위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
|-------------------------------|-------------------------|
| 1. 학교 취업정보실 | 9. 인터넷(취업사이트/카페 등) |
| 2. 학과 사무실(교수, 강사, 학과 홈페이지 등) | 10. 회사에 직접 연락 또는 회사홈페이지 |
| 3. 부모 또는 친척(형제자매 포함) | 11. 직업 및 취업박람회 |
| 4. 친구, 선후배 등 지인 | 12. 학원 |
| 5. 신문, TV등 언론매체 | 13. 현장실습/인턴십 |
| 6. 생활정보지 | 14. 헤드헌터(서치 컨설턴트) |
| 7. 공공취업알선기관(고용센터, 지자체 취업센터 등) | 15. 기타(_____) |
| 8. 사설취업알선기관(직업소개소 등) | |

[그림4.3] 일자리 정보를 얻는 주된 방법



[표4.5] 일자리 정보를 얻는 주된 방법_1

	성별		학교유형			학교소재권역					전체
	남성	여성	2~3 년제	4년제	교육대	서울	경기 강원	충청	경상	전라 제주	
학교 취업정보실	2.7%	1.6%	1.7%	2.3%	-	4.1%	2.1%	0.9%	1.7%	1.5%	2.1%
학과 사무실(교수, 강사, 학과 홈페이지 등)	2.2%	2.3%	2.7%	1.9%	31.1%	1.0%	1.9%	3.0%	1.7%	4.9%	2.3%
부모 또는 친척(형제자매 포함)	1.5%	2.4%	2.5%	1.7%	-	1.8%	2.0%	-	1.5%	5.1%	1.9%
친구, 선후배 등 지인	7.5%	5.4%	7.7%	5.7%	35.0%	5.4%	4.0%	2.5%	6.3%	16.9%	6.4%
신문, TV등 언론매체	1.0%	0.9%	1.3%	0.7%	-	1.3%	0.3%	-	1.7%	0.6%	0.9%
생활정보지	0.1%	0.8%	1.1%	0.2%	-	-	0.8%	-	0.4%	1.4%	0.5%
공공취업알선기관(고용센터, 지자체 취업센터 등)	7.2%	9.5%	9.3%	7.9%	-	5.5%	10.8%	7.9%	9.9%	5.6%	8.4%
사설취업알선기관(직업소개소 등)	1.1%	0.4%	0.3%	1.0%	-	1.0%	1.0%	0.6%	0.7%	-	0.7%
인터넷(취업사이트/카페 등)	73.5%	72.8%	70.6%	74.6%	34.0%	76.9%	72.9%	80.9%	72.6%	60.2%	73.1%
회사에 직접 연락 또는 회사홈페이지	1.4%	2.5%	2.0%	1.9%	-	1.9%	3.0%	2.2%	0.9%	2.4%	2.0%
직업 및 취업박람회	0.1%	0.2%	0.2%	0.2%	-	0.2%	-	-	0.5%	-	0.2%
학원	1.1%	0.7%	0.3%	1.2%	-	0.3%	0.2%	0.3%	1.9%	1.4%	0.9%
현장실습/인턴십	0.3%	-	0.2%	0.1%	-	-	0.7%	-	-	-	0.2%
헤드헌터(서치 컨설턴트)	0.2%	0.1%	-	0.2%	-	0.2%	-	0.4%	0.2%	-	0.2%
기타	0.1%	0.4%	-	0.4%	-	0.3%	0.2%	1.1%	-	-	0.3%
p-값	0.140		0.154			0.000					

[표4.6] 일자리 정보를 얻는 주된 방법_2

	전공계열							전체
	인문	사회	교육	공학	자연	의약	예체능	
학교 취업정보실	2.7%	2.7%	1.8%	1.7%	1.8%	3.0%	0.7%	2.1%
학과 사무실(교수, 강사, 학과 홈페이지 등)	1.8%	1.3%	7.4%	2.5%	2.2%	4.1%	2.5%	2.3%
부모 또는 친척(형제자매 포함)	1.0%	2.9%	1.0%	1.1%	2.0%	1.0%	2.7%	1.9%
친구, 선후배 등 지인	3.4%	5.8%	10.5%	5.6%	4.5%	12.1%	10.8%	6.4%
신문, TV등 언론매체	0.8%	1.7%	1.4%	0.1%	0.8%	-	0.8%	0.9%
생활정보지	-	0.6%	-	0.2%	-	4.1%	-	0.5%
공공취업알선기관(고용센터, 지자체 취업센터 등)	5.7%	9.7%	11.4%	9.4%	9.3%	5.7%	4.4%	8.4%
사설취업알선기관(직업소개소 등)	-	0.9%	-	0.7%	1.5%	1.7%	-	0.7%
인터넷(취업사이트/카페 등)	79.6%	72.0%	59.5%	76.1%	74.7%	64.5%	70.7%	73.1%
회사에 직접 연락 또는 회사홈페이지	3.9%	1.3%	1.6%	1.7%	2.1%	1.9%	2.4%	2.0%
직업 및 취업박람회	0.3%	-	-	0.3%	-	-	0.6%	0.2%
학원	0.7%	0.9%	3.7%	-	0.7%	0.6%	2.7%	0.9%
현장실습/인턴십	-	-	-	0.6%	-	-	-	0.2%
헤드헌터(서치 컨설턴트)	-	-	-	-	0.4%	-	0.9%	0.2%
기타	-	0.2%	1.7%	-	-	1.1%	0.8%	0.3%
p-값	0.000							

[표4.7] 일자리 정보를 얻는 주된 방법_3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											전체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400~500만원 미만	500~700만원 미만	700~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소득 없음	안계심(사망)	모름/무응답	
학교 취업정보실	-	2.8%	2.2%	1.2%	2.0%	1.7%	5.9%	1.0%	6.7%	-	-	2.1%
학과 사무실(교수, 강사, 학과 홈페이지 등)	1.5%	4.1%	3.0%	1.7%	0.9%	0.6%	6.3%	1.9%	6.8%	-	-	2.3%
부모 또는 친척(형제자매 포함)	3.3%	1.1%	1.4%	1.6%	2.2%	2.4%	2.2%	1.8%	-	9.9%	-	1.9%
친구, 선후배 등 지인	16.9%	3.7%	5.9%	6.1%	6.5%	4.8%	6.7%	13.9%	6.8%	15.7%	-	6.4%
신문, TV등 언론매체	1.7%	2.0%	0.9%	0.8%	0.2%	1.2%	-	-	-	4.5%	-	0.9%
생활정보지	-	1.6%	0.3%	0.3%	1.0%	-	-	-	-	-	-	0.5%
공공취업알선기관(고용센터, 지자체 취업센터 등)	15.3%	6.9%	11.2%	7.3%	9.2%	5.4%	5.5%	3.6%	4.9%	20.8%	75.5%	8.4%
사설취업알선기관(직업소개소 등)	-	0.6%	1.7%	0.9%	0.3%	-	1.0%	1.3%	-	-	-	0.7%
인터넷(취업사이트/카페 등)	59.3%	76.6%	72.3%	75.2%	72.1%	81.4%	66.4%	66.0%	71.2%	43.5%	24.5%	73.1%
회사에 직접 연락 또는 회사홈페이지	-	0.4%	0.5%	3.1%	2.6%	1.2%	3.5%	6.7%	3.7%	-	-	2.0%
직업 및 취업박람회	-	-	-	-	0.5%	-	1.5%	-	-	-	-	0.2%
학원	-	0.2%	0.3%	1.6%	1.2%	0.8%	0.9%	-	-	5.6%	-	0.9%
현장실습/인턴십	-	-	0.4%	-	-	-	-	2.2%	-	-	-	0.2%
헤드헌터(서치 컨설턴트)	2.0%	-	-	-	-	0.5%	-	1.4%	-	-	-	0.2%
기타	-	-	-	0.2%	1.3%	-	-	-	-	-	-	0.3%
p-값	0.000											

[표4.8] 일자리 정보를 얻는 주된 방법_4

	부모님의 자산 규모								전체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 1억 5천만 원 미만	1억 5천만 원 ~ 3억 미만	3억 원 ~ 5억 원 미만	5억 원 ~ 1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	안계심 (사망)	모름/ 무응답	
학교 취업정보실	2.4%	0.9%	2.2%	2.0%	3.4%	9.2%	-	-	2.1%
학과 사무실(교수, 강사, 학과 홈페이지 등)	1.1%	3.5%	2.4%	1.5%	3.7%	-	-	-	2.3%
부모 또는 친척(형제자매 포함)	2.3%	2.2%	1.0%	2.9%	0.4%	-	10.5%	-	1.9%
친구, 선후배 등 지인	6.1%	6.4%	7.5%	4.0%	6.7%	8.1%	16.6%	-	6.4%
신문, TV등 언론매체	0.9%	1.9%	0.1%	-	3.0%	-	4.8%	-	0.9%
생활정보지	-	1.7%	0.4%	-	-	-	-	-	0.5%
공공취업알선기관(고용센터, 지자체 취업센터 등)	11.7%	8.8%	8.4%	4.9%	4.0%	11.6%	16.1%	86.5%	8.4%
사설취업알선기관(직업소개소 등)	0.7%	1.1%	1.0%	-	0.6%	1.8%	-	-	0.7%
인터넷(취업사이트/카페 등)	73.4%	70.1%	73.2%	80.5%	74.0%	59.7%	46.1%	13.5%	73.1%
회사에 직접 연락 또는 회사홈페이지	1.2%	2.1%	1.3%	2.2%	3.5%	7.7%	-	-	2.0%
직업 및 취업박람회	-	0.3%	-	0.6%	-	-	-	-	0.2%
학원	0.2%	0.9%	1.4%	0.8%	-	-	5.9%	-	0.9%
현장실습/인턴십	-	-	0.5%	-	-	-	-	-	0.2%
헤드헌터(서치 컨설턴트)	-	0.2%	0.2%	-	-	2.0%	-	-	0.2%
기타	-	-	0.4%	0.5%	0.7%	-	-	-	0.3%
p-값	0.000								

일자리를 얻는 주된 방법으로는 “인터넷(취업사이트/카페 등)” 이 73.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두 번째로는 “공공취업알선기관(고용센터, 지자체 취업센터 등)” 이 8.4%로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친구, 선후배 등 지인” 이 6.4%로 나타났다. 이 세 가지 항목을 합하면 87.9%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터넷(취업사이트/카페 등)” 이 73.5%로 가장 높았고, “친구, 선후배 등 지인” 이 7.5%로 두 번째로 높았고, “공공취업알선기관(고용센터, 지자체 취업센터 등)”이 7.2%로 세 번째로 높았다. 여성은 “인터넷(취업사이트/카페 등)” 이 72.8%로 가장 높았고, “공공취업알선기관(고용센터, 지자체 취업센터 등)” 이 9.5%로 두 번째로 높았으며, “친구, 선후배 등 지인” 이 5.4%로 세 번째로 높았다. 그러나 유의수준 5%하에서 p-값이 0.140으로 “남성과 여성의 일자리 정보를 얻는 주된 방법의 차이가 있다.” 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만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남성과 여성의 일자리 정보를 얻는 주된 방법의 차이는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학교유형별로 보면 2~3년제 대학의 경우 “인터넷(취업사이트/카페 등)” 가 70.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두 번째는 “공공취업알선기관(고용센터, 지자체 취업센터 등)” 이 9.3% 이었으며, 세 번째는 “친구, 선후배 등 지인” 이 7.7%로 나타났다. 4년제 대학의 경우 “인터넷(취업사이트/카페 등)” 가 74.6%로 가장 높았으며 두 번째는 “공공취업알선기관(고용센터, 지자체 취업센터 등)” 가 7.9%, 세 번째는 “친구, 선후배 등 지인” 이 5.7%로 나타났다. 교육대의 경우 “친구, 선후배 등 지인” 이 35.0%, “인터넷(취업사이트/카페 등)” 이 34.0%, “학과 사무실(교수, 강사, 학과 홈페이지 등)” 이 31.1%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의수준 5% 하에서 p-값이 0.154 으로 “학교 유형에 따른 일자리 정

보를 얻는 주된 방법의 차이가 있다.” 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만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학교 유형에 따른 일자리 정보를 얻는 주된 방법의 차이는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학교소재권역별로 보면 서울권은 “인터넷(취업사이트/카페 등)” 이 74.9%로 가장 높았으며, “공공취업알선기관(고용센터, 지자체 취업센터 등)” 이 5.5%로 두 번째로 높았으며, “친구, 선후배 등 지인” 이 5.4%로 세 번째로 높았다. 경기·강원권은 “인터넷(취업사이트/카페 등)” 이 72.9%로 가장 높았고, 두 번째는 “공공취업알선기관(고용센터, 지자체 취업센터 등)” 이 10.8%이며, 세 번째는 “친구, 선후배 등 지인” 이 4.0%이었다. 충청권은 “인터넷(취업사이트/카페 등)” 이 80.9%로 가장 높았고, 두 번째는 “공공취업알선기관(고용센터, 지자체 취업센터 등)” 이 7.9%이며, 세 번째는 “학과 사무실(교수, 강사, 학과 홈페이지 등)” 이 3.0%이었다. 경상권은 “인터넷(취업사이트/카페 등)” 이 72.6%로 가장 높았고, 두 번째는 “공공취업알선기관(고용센터, 지자체 취업센터 등)” 이 9.9%이며, 세 번째는 “친구, 선후배 등 지인” 이 6.3%이다. 유의수준 5% 하에서 p-값이 0.000으로 “학교소재 권역에 따른 일자리 정보를 얻는 주된 방법의 차이가 있다.” 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만한 근거가 충분하다. 따라서 학교 소재 권역에 따른 일자리 정보를 얻는 주된 방법의 차이는 있다고 볼 수 있다.

전공계열별로는 인문계열은 “인터넷(취업사이트/카페 등)” 이 79.6%로 가장 높았고, 두 번째는 “공공취업알선기관(고용센터, 지자체 취업센터 등)” 이 5.7%이고, 세 번째는 “회사에 직접 연락 또는 회사홈페이지” 이 3.9%이었다. 사회계열은 “인터넷(취업사이트/카페 등)” 이 72.0%로 가장 높았고, 두 번째는 “공공취업알선기관(고용센터, 지자체 취업센터 등)” 이 9.7%이고, 세 번째는 “친구, 선후배 등 지인” 이 5.8%이었다. 교육계열은 “인터넷(취업사이트/카페 등)” 이 59.5%로 가장 높았고, 두 번째는 “공공취업알선기관(고용센터, 지자체 취업센터 등)” 이 11.4%이고, “친구, 선후배 등 지인” 이 10.5%이었다. 공학계열은 “인터넷(취업사이트/카페 등)” 이 76.1%로 가장 높았고, 두 번째는 “공공취업알선기관(고용센터, 지자체 취업센터 등)” 이 9.4%이고, 세 번째는 “친구, 선후배 등 지인” 이 5.6%이었다. 자연계열은 “인터넷(취업사이트/카페 등)” 74.7%로 가장 높았고, 두 번째는 “공공취업알선기관(고용센터, 지자체 취업센터 등)” 이 9.3%이고, “친구, 선후배 등 지인” 이 4.5%이었다. 의약계열은 “인터넷(취업사이트/카페 등)” 이 64.5%로 가장 높았고, 두 번째는 “친구, 선후배 등 지인” 이 12.1%이고, 세 번째는 “공공취업알선기관(고용센터, 지자체 취업센터 등)” 이 5.7%이었다. 예체능 계열은 “인터넷(취업사이트/카페 등)” 이 70.7%로 가장 높았고, 두 번째는 “친구, 선후배 등 지인” 이 10.8%이고, 세 번째는 “공공취업알선기관(고용센터, 지자체 취업센터 등)” 이 4.4%이었다. 유의수준 5% 하에서 p-값이 0.000으로 “전공계열에 따른 일자리 정보를 얻는 주된 방법의 차이가 있다.” 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만한 근거가 충분하다. 따라서 전공계열에 따른 일자리 정보를 얻는 주된 방법의 차이는 있다고 볼 수 있다.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별로는 100만원 미만의 경우 “인터넷(취업사이트/카페 등)” 이 53.9%로 가장 높았고, 두 번째는 “친구, 선후배 등 지인” 이 16.9%이고, 세 번째는 “공공취업알선기관(고용센터, 지자체 취업센터 등)” 이 15.3%이었다. 100~200만원 미만인 경우 “인터넷(취업사이트/카페 등)” 이 76.6%로 가장 높았고, 두 번째는 “공공취업알선기관(고용센터, 지자체 취업센터 등)” 이 6.9%이고, 세 번째는 “학과 사무실(교수, 강사, 학과 홈페이지 등)” 이 4.1%이었다. 200~300만원 미만의 경우 “인터넷(취업사이트/카페 등)” 이 72.3%로 가장 높았고, 두 번째는 “공공취업알선기관(고용센터, 지자체 취업센터 등)” 이 11.2%이고, 세 번째는 “친구, 선후배 등 지인” 이 5.9%이었다. 300~400만원 미만의 경우 “인터넷(취업사이트/카페 등)” 이 75.2%로 가장 높았고, 두 번째는 “공공취업알선기관(고용센터, 지자체 취업센터 등)” 이 7.3%이고, 세 번째는 “친구, 선후배 등 지인”

이 6.1%이었다. 400~500만원 미만의 경우 “인터넷(취업사이트/카페 등)” 이 72.1%로 가장 높았으며, 두 번째는 “공공취업알선기관(고용센터, 지자체 취업센터 등)” 이 9.2% 이고, 세 번째는 “친구, 선후배 등 지인” 이 6.5%이었다. 500~700만원 미만의 경우 “인터넷(취업사이트/카페 등)” 이 81.4%로 가장 높았으며, 두 번째는 “공공취업알선기관(고용센터, 지자체 취업센터 등)” 이 5.4%이고, 세 번째는 “친구, 선후배 등 지인” 이 4.8%이었다. 700~1000만원 미만의 경우 “인터넷(취업사이트/카페 등)” 이 66.4%로 가장 높았으며, 두 번째는 “친구, 선후배 등 지인” 이 6.7%이고, 세 번째는 “학과 사무실(교수, 강사, 학과 홈페이지 등)” 이 6.3%이었다. 1000만원 이상의 경우 “인터넷(취업사이트/카페 등)” 이 66.0%로 가장 높았으며, 두 번째는 “친구, 선후배 등 지인” 이 13.9%이고, 세 번째는 “공공취업알선기관(고용센터, 지자체 취업센터 등)” 이 3.6%이었다. 소득이 없는 경우 “인터넷(취업사이트/카페 등)” 이 71.2%로 가장 높았고, 두 번째는 “학과 사무실(교수, 강사, 학과 홈페이지 등)” 과 “친구, 선후배 등 지인” 이 6.8%이었다.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인터넷(취업사이트/카페 등)” 이 43.5%로 가장 높았고, 두 번째는 “공공취업알선기관(고용센터, 지자체 취업센터 등)” 이 20.8%이고, 세 번째는 “친구, 선후배 등 지인” 이 15.7%이었다.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을 모르거나 무응답한 경우 “공공취업알선기관(고용센터, 지자체 취업센터 등)” 이 75.5%이고, “인터넷(취업사이트/카페 등)” 이 24.5%이었다. 유의수준 5% 하에서 p-값이 0.000 으로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에 따른 일자리 정보를 얻는 주된 방법의 차이가 있다.” 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만한 근거가 충분하다. 따라서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에 따른 일자리 정보를 얻는 주된 방법의 차이는 있다고 볼 수 있다.

부모님의 자산 규모별로 보면 5천만 원 미만의 경우 “인터넷(취업사이트/카페 등)” 이 73.4%로 가장 높았고, 두 번째는 “공공취업알선기관(고용센터, 지자체 취업센터 등)” 이 11.7%이고, 세 번째는 “친구, 선후배 등 지인” 이 6.1%이었다. 5천만 원 ~ 1억 5천만 원 미만의 경우 “인터넷(취업사이트/카페 등)” 이 70.1%로 가장 높았고, 두 번째는 “공공취업알선기관(고용센터, 지자체 취업센터 등)” 이 8.8%이고, 세 번째는 “친구, 선후배 등 지인” 이 6.4%이었다. 1억 5천만 원 ~ 3억 원 미만의 경우 “인터넷(취업사이트/카페 등)” 이 73.2%로 가장 높았고, 두 번째는 “공공취업알선기관(고용센터, 지자체 취업센터 등)” 이 8.4%이고, 세 번째는 “친구, 선후배 등 지인” 이 7.5%이었다. 3억 원 ~ 5억 원 미만의 경우 “인터넷(취업사이트/카페 등)” 이 80.5%로 가장 높았고, 두 번째는 “공공취업알선기관(고용센터, 지자체 취업센터 등)” 이 4.9%이고, 세 번째는 “친구, 선후배 등 지인” 이 4.0%이었다. 3억 원 ~ 5억 원 미만의 경우 “인터넷(취업사이트/카페 등)” 이 74.0%로 가장 높았고, 두 번째는 “친구, 선후배 등 지인” 이 6.7%이고, 세 번째는 “공공취업알선기관(고용센터, 지자체 취업센터 등)” 이 4.0%이었다. 10억 원 이상의 경우 “인터넷(취업사이트/카페 등)” 이 59.7%로 가장 높았고, 두 번째는 “공공취업알선기관(고용센터, 지자체 취업센터 등)” 이 11.6%이고, 세 번째는 “학교 취업정보실” 이 9.2%이었다.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인터넷(취업사이트/카페 등)” 이 46.1%로 가장 높았고, 두 번째는 “친구, 선후배 등 지인” 이 16.6%이고, 세 번째는 “공공취업알선기관(고용센터, 지자체 취업센터 등)” 이 16.1%이었다. 모름/무응답의 경우 “공공취업알선기관(고용센터, 지자체 취업센터 등)” 이 86.5%이고, “인터넷(취업사이트/카페 등)” 이 13.5%로 나타났다. 유의수준 5% 하에서 p-값이 0.000 으로 “부모님의 자산 규모에 따른 일자리 정보를 얻는 주된 방법의 차이가 있다.” 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만한 근거가 충분하다. 따라서 부모님의 자산 규모에 따른 일자리 정보를 얻는 주된 방법의 차이는 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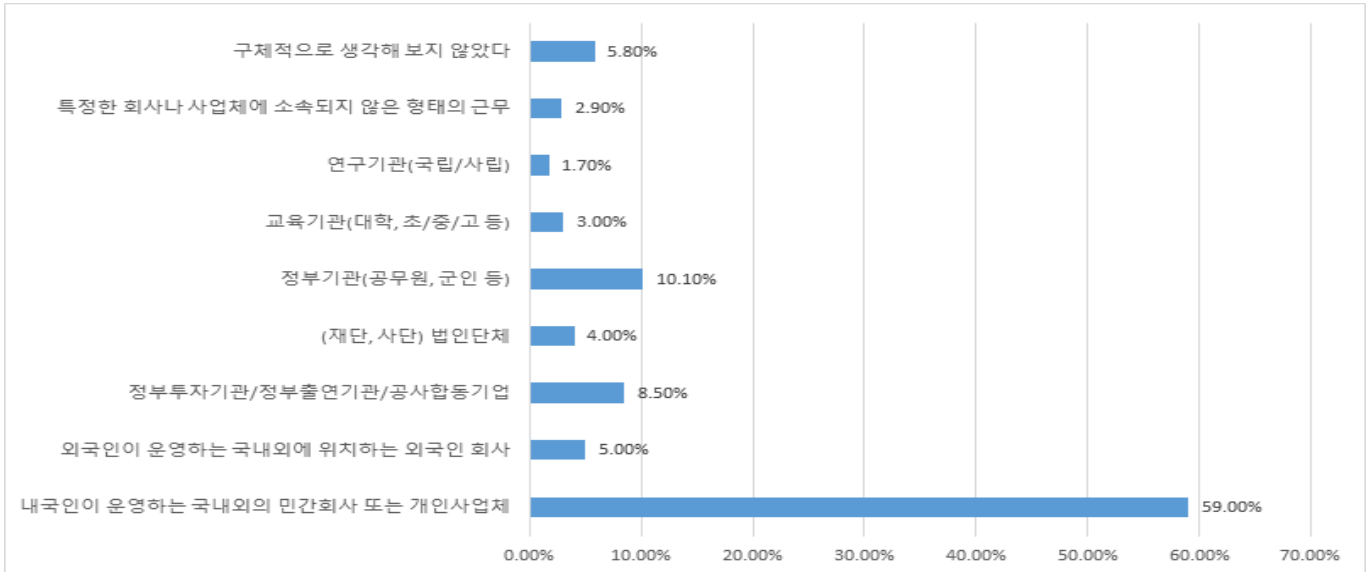
종합해보면 현재 구직중인 졸업자들은 대부분 “인터넷(취업사이트/카페 등)” 과 “공공취업알선기관(고용센터, 지자체 취업센터 등)” 과 “친구, 선후배 등 지인” 에게서 취업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 문항분석[취업을 희망하는 사업체 유형]

B5. 취업을 희망하는 사업체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1. 내국인이 운영하는 국내외의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
2. 외국인이 운영하는 국내외에 위치하는 외국인 회사
3. 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공사합동기업
4. (재단, 사단) 법인단체
5. 정부기관(공무원, 군인 등)
6. 교육기관(대학, 초/중/고 등)
7. 연구기관(국립/사립)
8. 특정한 회사나 사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형태의 근무
9. 기타(_____)
10.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았다.

[그림4.4] 취업을 희망하는 사업체 유형



[표4.9] 취업을 희망하는 사업체 유형_1

		내국인이 운영하는 국내외의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	외국인이 운영하는 국내외에 위치하는 외국인 회사	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공사합동기업	(재단, 사단) 법인단체	정부기관(공무원, 군인 등)	교육기관(대학, 초/중/고 등)	연구기관(국립/사립)	특정한 회사나 사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형태의 근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았다	p-값
전체		59.0%	5.0%	8.5%	4.0%	10.1%	3.0%	1.7%	2.9%	5.8%	
성별	남성	61.3%	5.0%	8.8%	2.6%	9.1%	1.9%	2.2%	3.0%	6.1%	0.062
	여성	56.8%	4.9%	8.3%	5.3%	11.1%	4.0%	1.3%	2.9%	5.5%	
학교유형	2~3년제	70.9%	3.7%	2.0%	5.6%	5.2%	1.6%	0.8%	4.0%	6.1%	0.000
	4년제	53.2%	5.6%	11.9%	3.2%	12.7%	3.2%	2.2%	2.4%	5.7%	
	교육대	-	-	-	-	-	100.0%	-	-	-	
학교소재권역	서울권	54.6%	7.3%	11.4%	1.0%	13.3%	3.4%	2.6%	2.0%	4.4%	0.000
	경기.강원권	65.1%	4.8%	6.7%	3.9%	8.3%	0.9%	1.2%	4.5%	4.6%	
	충청권	50.4%	5.9%	7.9%	7.3%	11.2%	4.6%	2.4%	3.8%	6.5%	
	경상권	63.1%	3.6%	7.8%	4.7%	9.4%	2.6%	1.1%	2.7%	5.0%	
전공계열	전라.제주권	55.8%	3.5%	9.7%	3.3%	8.9%	4.7%	1.8%	1.3%	10.9%	0.000
	인문계열	53.6%	10.8%	9.8%	2.5%	12.8%	2.9%	1.2%	1.1%	5.4%	
	사회계열	60.5%	3.4%	11.4%	4.8%	11.4%	1.6%	0.2%	2.8%	3.8%	
	교육계열	38.6%	3.1%	5.7%	1.6%	4.9%	31.8%	-	6.7%	7.7%	
	공학계열	61.4%	6.1%	10.9%	1.1%	8.6%	1.3%	3.1%	1.4%	6.2%	
	자연계열	63.2%	3.3%	5.8%	0.6%	14.1%	0.3%	5.1%	2.2%	5.5%	
	의약계열	51.3%	-	0.9%	24.8%	10.8%	2.1%	1.3%	3.4%	5.5%	
	예체능계열	60.8%	6.0%	1.7%	2.1%	4.4%	4.9%	1.1%	8.0%	11.0%	

[표4.10] 취업을 희망하는 사업체 유형_2

		내국인이 운영하는 국내외의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	외국인이 운영하는 국내외에 위치하는 외국인 회사	정부투자 기관/정부 출연기관/ 공사합동 기업	(재단, 사단) 법인단체	정부기관(공무원, 군인 등)	교육기관(대학, 초/중/고 등)	연구기관(국립/사립)	특정한 회사나 사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형태의 근무	구체적으 로 생각해 보지 않았다	p-값
전체		59.0%	5.0%	8.5%	4.0%	10.1%	3.0%	1.7%	2.9%	5.8%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50.1%	6.9%	7.0%	1.7%	18.2%	10.8%	3.8%		1.6%	0.000
	100~200만원 미만	64.1%	4.0%	5.7%	1.5%	13.1%	2.7%	2.3%	3.3%	3.2%	
	200~300만원 미만	64.9%	3.8%	7.7%	4.0%	7.9%	3.4%	1.7%	2.5%	4.0%	
	300~400만원 미만	62.2%	4.0%	9.4%	3.8%	8.9%	0.8%	1.1%	1.7%	8.0%	
	400~500만원 미만	52.6%	7.5%	7.6%	4.8%	12.8%	2.7%	1.5%	2.1%	8.3%	
	500~700만원 미만	58.8%	2.2%	9.8%	3.5%	11.7%	3.7%	1.3%	5.3%	3.7%	
	700~1000만원 미만	51.1%	10.7%	12.7%	2.8%	6.2%	3.9%	3.5%	4.7%	4.4%	
	1000만원 이상	53.4%	6.6%	8.7%	-	8.6%	3.6%	2.9%	1.4%	14.6%	
	소득없음	48.8%	10.5%	15.2%	4.9%	8.2%	1.2%	2.7%	6.8%	1.7%	
	안계심(사망)	52.9%	-	-	26.8%	-	10.9%	-	6.1%	3.4%	
	모름/무응답	24.5%	-	75.5%	-	-	-	-	-	-	
부모님의 자산규모	5천만 원 미만	57.0%	5.9%	9.3%	4.0%	10.0%	3.8%	3.5%	3.2%	3.3%	0.00
	5천만 원 ~ 1억 5천만 원 미만	58.5%	4.2%	7.3%	5.3%	9.9%	3.3%	1.5%	4.7%	5.1%	
	1억 5천만 원 ~ 3억 원 미만	65.3%	4.2%	5.8%	3.3%	9.4%	1.3%	1.9%	2.2%	6.5%	
	3억 원 ~ 5억 원 미만	57.1%	5.3%	12.0%	3.2%	10.9%	2.5%	0.2%	0.9%	7.9%	
	5억 원 ~ 10억 원 미만	47.6%	7.0%	12.1%	0.4%	15.6%	6.4%	2.8%	3.1%	5.0%	
	10억 원 이상	61.2%	10.1%	9.0%	-	4.6%	-	-	9.3%	5.9%	
	안계심(사망)	56.0%	-	-	28.3%	-	5.6%	-	6.5%	3.6%	
	모름/무응답	13.5%	-	41.7%	-	-	44.8%	-	-	-	

희망하는 사업체 유형으로는 “내국인이 운영하는 국내외의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 이 59.0%로 가장 높았고, 두 번째는 “정부기관(공무원, 군인 등)” 이 10.1%이고, “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공사합동기업” 이 8.5%이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의 경우 “내국인이 운영하는 국내외의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 이 61.3%로 가장 높았고, 두 번째는 “정부기관(공무원, 군인 등)” 이 9.1%이고, 세 번째는 “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공사합동기업” 이 8.8%이었다. 여성의 경우 “내국인이 운영하는 국내외의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 이 56.8%로 가장 높았고, 두 번째는 “정부기관(공무원, 군인 등)” 이 11.1%이고, 세 번째는 “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공사합동기업” 이 8.3%이었다. 그러나 유의수준 5% 하에서 p-값이 0.062 으로 “성별에 따른 희망 사업체 유형에는 차이가 있다.” 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만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성별에 따른 희망 사업체 유형에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학교유형으로 보면 2~3년제의 경우 “내국인이 운영하는 국내외의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 이 70.9%로 가장 높았고,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았다” 이 9.1%이고, 세 번째는 “(재단, 사단) 법인단체” 이 5.6%이었다. 4년제의 경우 “내국인이 운영하는 국내외의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 이 53.2%로 가장 높았고, 두 번째는 “정부기관(공무원, 군인 등)” 이 12.7%이고, 세 번째는 “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공사합동기업”이 11.9%이었다. 교육대는 “교육기관(대학, 초/중

/고 등)”이 100%로 나타났다. 유의수준 5% 하에서 p -값이 0.000 으로 “학교유형에 따른 희망 사업체 유형에는 차이가 있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만한 근거가 충분하다. 따라서 학교유형에 따른 희망 사업체 유형에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학교소재권역별로 보면 서울권의 경우 “내국인이 운영하는 국내외의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이 54.6%로 가장 높았고, 두 번째는 “정부기관(공무원, 군인 등)”이 13.3%이고, 세 번째는 “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공사합동기업”이 11.4%이었다. 경기·강원권의 경우 “내국인이 운영하는 국내외의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이 65.1%로 가장 높았고, 두 번째는 “정부기관(공무원, 군인 등)”이 8.3%이고, 세 번째는 “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공사합동기업”이 6.7%이었다. 충청권의 경우 “내국인이 운영하는 국내외의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이 50.4%로 가장 높았고, 두 번째는 “정부기관(공무원, 군인 등)”이 11.2%이고, 세 번째는 “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공사합동기업”이 7.9%이었다. 경상권의 경우 “내국인이 운영하는 국내외의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이 63.1%로 가장 높았고, 두 번째는 “정부기관(공무원, 군인 등)”이 9.4%이고, 세 번째는 “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공사합동기업”이 7.8%이었다. 전라·제주권의 경우 “내국인이 운영하는 국내외의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이 55.8%로 가장 높았고,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았다”이 10.9%이고, 세 번째는 “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공사합동기업”이 9.7%이었다. 유의수준 5% 하에서 p -값이 0.000 으로 “학교소재권역에 따른 희망 사업체 유형에는 차이가 있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만한 근거가 충분하다. 따라서 학교소재권역에 따른 희망 사업체 유형에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전공계열로 보면 인문계열의 경우 “내국인이 운영하는 국내외의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이 53.6%로 가장 높았고, 두 번째는 “정부기관(공무원, 군인 등)”이 12.8%이고, 세 번째는 “외국인이 운영하는 국내외에 위치하는 외국인 회사”이 10.8%이었다. 사회계열의 경우 “내국인이 운영하는 국내외의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이 60.5%로 가장 높았고, 두 번째는 “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공사합동기업”이 11.4%이고, 세 번째는 “정부기관(공무원, 군인 등)”이 11.4%이었다. 교육계열의 경우 “내국인이 운영하는 국내외의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이 38.6%로 가장 높았고, 두 번째는 “교육기관(대학, 초/중/고 등)”이 31.8%이고, 세 번째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았다”이 7.7%이었다. 공학계열의 경우 “내국인이 운영하는 국내외의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이 61.4%로 가장 높았고, 두 번째는 “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공사합동기업”이 10.9%이고, 세 번째는 “정부기관(공무원, 군인 등)”이 8.6%이었다. 자연계열의 경우 “내국인이 운영하는 국내외의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이 63.2%로 가장 높았고, 두 번째는 “정부기관(공무원, 군인 등)”이 14.1%이고, 세 번째는 “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공사합동기업”이 5.8%이었다. 의약계열의 경우 “내국인이 운영하는 국내외의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이 51.3%로 가장 높았고, 두 번째는 “(재단, 사단) 법인단체”이 24.8%이고, 세 번째는 “정부기관(공무원, 군인 등)”이 10.8%이었다. 예체능계열의 경우 “내국인이 운영하는 국내외의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이 60.8%로 가장 높았고,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았다”이 11.0%이고, 세 번째는 “특정한 회사나 사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형태의 근무”이 8.0%이었다. 유의수준 5% 하에서 p -값이 0.000 으로 “전공계열에 따른 희망 사업체 유형에는 차이가 있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만한 근거가 충분하다. 따라서 전공계열에 따른 희망 사업체 유형에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별로 보면 100만원 미만의 경우 “내국인이 운영하는 국내외의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이 50.1%로 가장 높았고, 두 번째는 “정부기관(공무원, 군인 등)”이 18.2%이고, 세 번째는 “교육기관(대학, 초/중/고 등)”이 10.8%이었다. 100~200만원 미만의 경우 “내국인이

운영하는 국내외의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이 64.1%로 가장 높았고, 두 번째는 “정부기관(공무원, 군인 등)”이 13.1%이고, 세 번째는 “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공사합동기업”이 5.7%이었다. 200~300만원 미만의 경우 “내국인이 운영하는 국내외의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이 64.9%로 가장 높았고, 두 번째는 “정부기관(공무원, 군인 등)”이 7.9%이고, 세 번째는 “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공사합동기업”이 7.7%이었다. 300~400만원 미만의 경우 “내국인이 운영하는 국내외의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이 62.2%로 가장 높았고, 두 번째는 “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공사합동기업”이 9.4%이고, 세 번째는 “정부기관(공무원, 군인 등)”이 8.9%이었다. 400~500만원 미만의 경우 “내국인이 운영하는 국내외의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이 52.6%로 가장 높았고, 두 번째는 “정부기관(공무원, 군인 등)”이 12.8%이고, 세 번째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았다”이 8.3%이었다. 500~700만원 미만의 경우 “내국인이 운영하는 국내외의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이 58.8%로 가장 높았고, 두 번째는 “정부기관(공무원, 군인 등)”이 11.7%이고, 세 번째는 “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공사합동기업”이 9.8%이었다. 700~1000만원 미만의 경우 “내국인이 운영하는 국내외의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이 51.1%로 가장 높았고, 두 번째는 “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공사합동기업”이 12.7%이고, 세 번째는 “외국인이 운영하는 국내외에 위치하는 외국인 회사”이 10.7%이었다. 700~1000만원 미만의 경우 “내국인이 운영하는 국내외의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이 53.4%로 가장 높았고,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았다”이 14.6%이고, 세 번째는 “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공사합동기업”이 8.7%이었다. 소득이 없는 경우 “내국인이 운영하는 국내외의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이 48.8%로 가장 높았고, 두 번째는 “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공사합동기업”이 15.2%이고, 세 번째는 “외국인이 운영하는 국내외에 위치하는 외국인 회사”이 10.5%이었다.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내국인이 운영하는 국내외의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이 52.9%로 가장 높았고, 두 번째는 “(재단, 사단) 법인단체”이 26.8%이고, 세 번째는 “교육기관(대학, 초/중/고 등)”이 10.9%이었다. 모름/무응답의 경우 “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공사합동기업”이 75.5%로 가장 높았고, 두 번째는 “내국인이 운영하는 국내외의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이 24.5%이었다. 유의수준 5% 하에서 p-값이 0.000 으로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에 따른 희망 사업체 유형에는 차이가 있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만한 근거가 충분하다. 따라서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에 따른 희망 사업체 유형에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부모님의 자산 규모별로 보면 5천만 원 미만의 경우 “내국인이 운영하는 국내외의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이 57.0%로 가장 높았고, 두 번째는 “정부기관(공무원, 군인 등)”이 10.0%이고, 세 번째는 “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공사합동기업”이 9.3%이었다. 5천만 원 ~ 1억 5천만 원 미만의 경우 “내국인이 운영하는 국내외의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이 58.5%로 가장 높았고, 두 번째는 “정부기관(공무원, 군인 등)”이 9.9%이고, 세 번째는 “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공사합동기업”이 7.3%이었다. 1억 5천만 원 ~ 3억 원 미만의 경우 “내국인이 운영하는 국내외의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이 65.3%로 가장 높았고, 두 번째는 “정부기관(공무원, 군인 등)”이 9.4%이고, 세 번째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았다”이 6.5%이었다. 3억 원 ~ 5억 원 미만의 경우 “내국인이 운영하는 국내외의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이 57.1%로 가장 높았고, 두 번째는 “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공사합동기업”이 12.0%이고, 세 번째는 “정부기관(공무원, 군인 등)”이 10.9%이었다. 5억 원 ~ 10억 원 미만의 경우 “내국인이 운영하는 국내외의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이 47.6%로 가장 높았고, 두 번째는 “정부기관(공무원, 군인 등)”이 15.6%이고, 세 번째는 “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공사합동기업”이 12.1%이었다. 10억 원 이상의 경우 “내국인이 운영하는 국내외의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이 61.2%로 가장 높았고, 두 번째는 “외국인이 운영하는 국내외에 위치하는 외국인 회사”이 10.1%이고, 세 번째는 “특정한 회사나 사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형태의 근무”이 9.3%이었다.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내국인이 운영하는 국내외의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이 56.0%로 가장 높았고, 두 번째는 “(재단, 사단) 법인단체”이 28.3%이고, 세 번째는 “특정한 회사나 사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형태의 근무”이 6.5%이었다. 모름/무응답의 경우 “교육기관(대학, 초/중/고 등)”이 44.8%로 가장 높았고, 두 번째는 “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공사합동기업”이 41.7%이고, 세 번째는 “내국인이 운영하는 국내외의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이 13.5%이었다. 유의수준 5% 하에서 p -값이 0.000 으로 “부모님의 자산 규모에 따른 희망 사업체 유형에는 차이가 있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만한 근거가 충분하다. 따라서 부모님의 자산 규모에 따른 희망 사업체 유형에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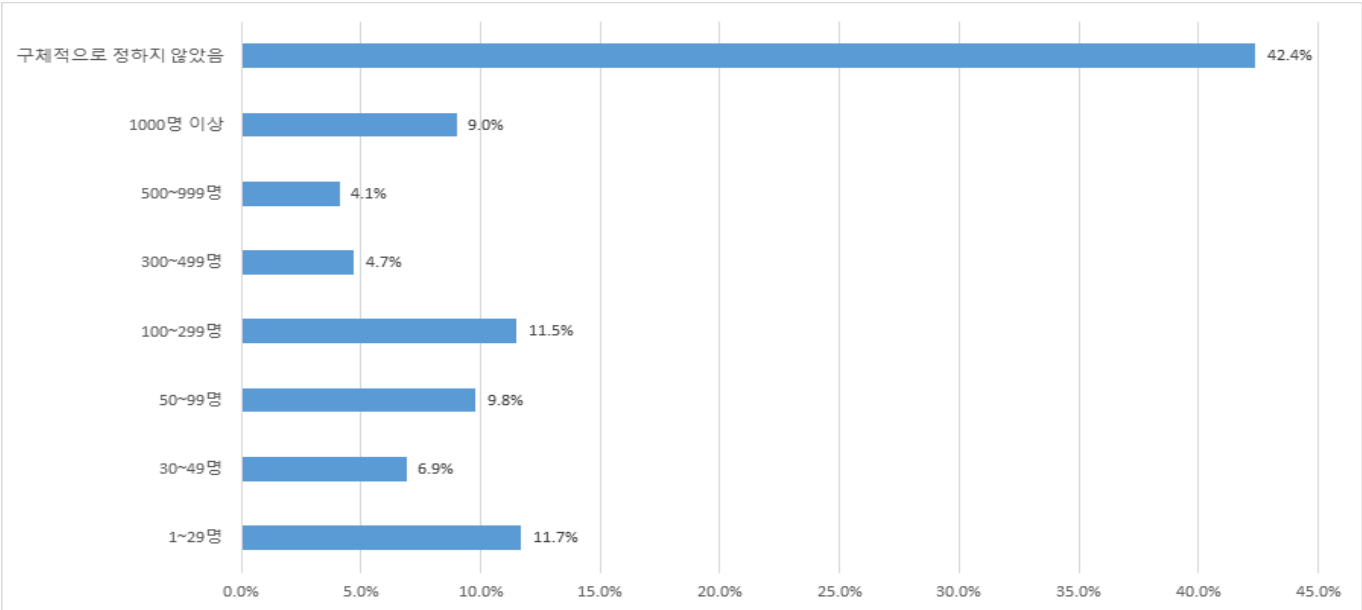
종합해보면 구직중인 졸업자들의 희망하는 사업체 유형은 대부분 “내국인이 운영하는 국내외의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이었으나, “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공사합동기업”과 “정부기관(공무원, 군인 등)” 등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또한 성별에 따라서는 희망 사업체 유형은 차이가 없었지만, 학교유형, 학교소재권역, 전공계열,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 부모님의 자산규모에 따라 희망 사업체 유형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문항분석[취업을 희망하는 사업체 규모]

B6. 취업을 희망하는 사업체의 규모는 다음 중 어느 정도입니까?

- | | |
|---------------|------------------|
| 1. 1 ~ 29명 | 5. 300 ~ 499명 |
| 2. 30 ~ 49명 | 6. 500 ~ 999명 |
| 3. 50 ~ 99명 | 7. 1,000명 이상 |
| 4. 100 ~ 299명 | 8.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음 |

[그림4.5] 취업을 희망하는 사업체 규모



[표4.11] 취업을 희망하는 사업체 규모_1

		1~29명	30~49명	50~99명	100~299명	300~499명	500~999명	1000명 이상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음	p-값
전체		11.7%	6.9%	9.8%	11.5%	4.7%	4.1%	9.0%	42.4%	
성별	남성	7.6%	6.5%	10.0%	12.8%	5.1%	2.8%	11.1%	44.2%	0.000
	여성	15.5%	7.3%	9.7%	10.2%	4.4%	5.3%	7.0%	40.7%	
학교유형	2~3년제	19.3%	9.1%	9.2%	8.6%	2.5%	3.1%	5.8%	42.3%	0.000
	4년제	7.8%	5.6%	10.2%	12.9%	5.9%	4.6%	10.7%	42.4%	
	교육대	11.7%	35.0%	-	-	-	-	-	53.4%	
학교소재권역	서울권	6.3%	8.1%	10.1%	12.7%	5.4%	6.9%	12.3%	38.3%	0.000
	경기.강원권	17.6%	8.0%	11.2%	12.3%	4.1%	5.0%	9.5%	32.4%	
	충청권	13.0%	5.8%	11.0%	12.4%	7.6%	3.3%	4.6%	42.3%	
	경상권	10.4%	7.2%	9.0%	11.9%	4.3%	2.4%	8.8%	46.1%	
	전라.제주권	11.0%	3.5%	7.7%	6.2%	2.4%	2.9%	8.6%	57.7%	
전공계열	인문계열	6.2%	6.7%	12.3%	14.5%	5.8%	6.0%	9.6%	38.8%	0.000
	사회계열	12.1%	8.0%	8.9%	11.2%	4.6%	4.2%	7.3%	43.7%	
	교육계열	24.2%	9.8%	19.0%	4.3%	1.2%	-	4.3%	37.1%	
	공학계열	7.7%	4.3%	8.2%	14.6%	5.5%	4.6%	12.2%	42.9%	
	자연계열	8.8%	5.6%	10.5%	11.5%	3.4%	3.4%	9.2%	47.5%	
	의약계열	14.8%	5.3%	4.7%	7.2%	9.7%	6.0%	15.5%	36.8%	
	예체능계열	21.7%	10.4%	13.0%	6.6%	2.0%	1.3%	3.7%	41.2%	

[표4.12] 취업을 희망하는 사업체 규모_2

		1~29명	30~49명	50~99명	100~299명	300~499명	500~999명	1000명 이상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음	p-값
전체		11.7%	6.9%	9.8%	11.5%	4.7%	4.1%	9.0%	42.4%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2.8%	3.8%	20.4%	9.1%	5.3%	-	9.1%	49.6%	0.294
	100~200만원 미만	14.7%	6.1%	16.2%	9.8%	5.2%	3.4%	7.3%	37.3%	
	200~300만원 미만	10.9%	9.2%	12.0%	11.2%	5.7%	3.3%	10.1%	37.7%	
	300~400만원 미만	12.2%	6.0%	10.1%	10.2%	3.7%	5.0%	8.2%	44.5%	
	400~500만원 미만	9.5%	4.9%	6.4%	10.9%	5.6%	5.4%	11.5%	45.9%	
	500~700만원 미만	15.0%	6.5%	9.4%	16.1%	4.9%	4.3%	6.5%	37.4%	
	700~1000만원 미만	7.6%	11.7%	5.2%	12.7%	2.0%	2.5%	8.9%	49.5%	
	1000만원 이상	8.9%	3.3%	4.7%	13.4%	6.6%	3.8%	8.1%	51.3%	
	소득없음	9.0%	7.5%	6.0%	18.4%	3.4%	-	13.7%	42.0%	
	안계심(사망)	22.2%	9.5%	-	-	-	4.5%	7.4%	56.4%	
	모름/무응답	-	75.5%	-	-	24.5%	-	-	-	
부모님의 자산규모	5천만 원 미만	16.8%	8.2%	10.6%	9.9%	4.0%	3.8%	7.6%	39.1%	0.096
	5천만 원 ~ 1억 5천만 원 미만	15.1%	8.2%	11.9%	10.7%	4.8%	3.5%	9.5%	36.3%	
	1억 5천만 원 ~ 3억 원 미만	9.6%	6.5%	12.3%	12.6%	3.6%	3.0%	7.8%	44.7%	
	3억 원 ~ 5억 원 미만	7.0%	4.7%	7.4%	13.7%	6.5%	6.2%	9.8%	44.7%	
	5억 원 ~ 10억 원 미만	11.0%	6.4%	4.7%	8.7%	7.1%	4.6%	12.3%	45.2%	
	10억 원 이상	5.7%	5.3%	3.1%	14.0%	3.0%	4.3%	11.9%	52.6%	
	안계심(사망)	17.6%	10.0%	-	-	-	4.8%	7.8%	59.7%	
	모름/무응답	44.8%	41.7%	-	-	13.5%	-	-	-	

취업을 희망하는 사업체 규모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음” 이 42.4%로 가장 높았고, 두 번째는 “1~29명” 이 11.7%이고, 세 번째는 “100~299명” 이 11.5%이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의 경우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음” 이 44.2%로 가장 높았고, 두 번째는 “100~299명” 이 12.8%이고, 세 번째는 “1000명 이상” 이 11.1%이었다. 여성의 경우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음” 이 40.7%로 가장 높았고, 두 번째는 “1~29명” 이 15.5%이고, 세 번째는 “100~299명” 이 10.2%이었다. 유의수준 5% 하에서 p-값이 0.000 으로 “성별에 따른 희망 사업체 규모에는 차이가 있다.” 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만한 근거가 충분하다. 따라서 성별에 따른 희망 사업체 규모에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학교 유형별로 보면 2~3년제의 경우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음” 이 42.3%로 가장 높았고, 두 번째는 “1~29명” 이 19.3%이고, 세 번째는 “30~49명” 이 9.1%이었다. 4년제의 경우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음” 이 42.4%로 가장 높았고, 두 번째는 “100~299명” 이 12.9%이고, 세 번째는 “1000명 이상” 이 10.7%이었다. 교육대의 경우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음” 이 53.4%로 가장 높았고, 두 번째는 “30~49명” 이 35.0%이고, 세 번째는 “1~29명” 이 11.7%이었다. 유의수준 5% 하에서 p-값이 0.000 으로 “학교 유형에 따른 희망 사업체 규모에는 차이가 있다.” 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만한 근거가 충분하다. 따라서 학교 유형에 따른 희망 사업체 규모에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학교 소재 권역별로 보면 서울권의 경우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음” 이 38.3%로 가장 높았고, 두

번째는 “100~299명” 이 12.7%이고, 세 번째는 “1000명 이상” 이 12.3%이었다. 경기·강원권의 경우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음” 이 32.4%로 가장 높았고, 두 번째는 “1~29명” 이 17.6%이고, 세 번째는 “100~299명” 이 12.3%이었다. 충청권의 경우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음” 이 42.3%로 가장 높았고, 두 번째는 “1~29명” 이 13.0%이고, 세 번째는 “100~299명” 이 12.4%이었다. 경상권의 경우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음” 이 46.1%로 가장 높았고, 두 번째는 “100~299명” 이 11.9%이고, 세 번째는 “1~29명” 이 10.4%이었다. 전라·제주권의 경우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음” 이 57.7%로 가장 높았고, 두 번째는 “1~29명” 이 11.0%이고, 세 번째는 “1000명 이상” 이 8.6%이었다. 유의수준 5% 하에서 p-값이 0.000 으로 “학교 소재 권역에 따른 희망 사업체 규모에는 차이가 있다.” 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만한 근거가 충분하다. 따라서 학교 소재 권역에 따른 희망 사업체 규모에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전공 계열별로 보면 인문계열의 경우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음” 이 38.8%로 가장 높았고, 두 번째는 “100~299명” 이 14.5%이고, 세 번째는 “50~99명” 이 12.3%이었다. 사회계열의 경우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음” 이 43.7%로 가장 높았고, 두 번째는 “1~29명” 이 12.1%이고, 세 번째는 “100~299명” 이 11.2%이었다. 교육계열의 경우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음” 이 37.1%로 가장 높았고, 두 번째는 “1~29명” 이 24.2%이고, 세 번째는 “50~99명” 이 19.0%이었다. 공학계열의 경우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음” 이 42.9%로 가장 높았고, 두 번째는 “100~299명” 이 14.6%이고, 세 번째는 “1000명 이상” 이 12.2%이었다. 자연계열의 경우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음” 이 47.5%로 가장 높았고, 두 번째는 “100~299명” 이 11.5%이고, 세 번째는 “50~99명” 이 10.5%이었다. 의약계열의 경우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음” 이 36.8%로 가장 높았고, 두 번째는 “1000명 이상” 이 15.5%이고, 세 번째는 “1~29명” 이 14.8%이었다. 예체능계열의 경우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음” 이 41.2%로 가장 높았고, 두 번째는 “1~29명” 이 21.7%이고, 세 번째는 “50~99명” 이 13.0%이었다. 유의수준 5% 하에서 p-값이 0.000 으로 “전공 계열에 따른 희망 사업체 규모에는 차이가 있다.” 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만한 근거가 충분하다. 따라서 전공 계열에 따른 희망 사업체 규모에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별로 보면 100만원 미만의 경우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음” 이 49.6%로 가장 높았고, 두 번째는 “50~99명” 이 20.4%이고, 세 번째는 “100~299명” 이 9.1%이었다. 100~200만원 미만의 경우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음” 이 37.3%로 가장 높았고, 두 번째는 “50~99명” 이 16.2%이고, 세 번째는 “1~29명” 이 14.7%이었다. 200~300만원 미만의 경우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음” 이 37.7%로 가장 높았고, 두 번째는 “50~99명” 이 12.0%이고, 세 번째는 “100~299명” 이 11.2%이었다. 300~400만원 미만의 경우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음” 이 44.5%로 가장 높았고, 두 번째는 “1~29명” 이 12.2%이고, 세 번째는 “100~299명” 이 10.2%이었다. 400~500만원 미만의 경우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음” 이 45.9%로 가장 높았고, 두 번째는 “1000명 이상” 이 11.5%이고, 세 번째는 “100~299명” 이 10.9%이었다. 500~700만원 미만의 경우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음” 이 37.4%로 가장 높았고, 두 번째는 “100~299명” 이 16.1%이고, 세 번째는 “1~29명” 이 15.0%이었다. 700~1000만원 미만의 경우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음” 이 49.5%로 가장 높았고, 두 번째는 “100~299명” 이 12.7%이고, 세 번째는 “30~49명” 이 11.7%이었다. 1000만원 이상의 경우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음” 이 51.3%로 가장 높았고, 두 번째는 “100~299명” 이 13.4%이고, 세 번째는 “1~29명” 이 8.9%이었다. 부모님의 소득이 없는 경우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음” 이 42.0%로 가장 높았고, 두 번째는 “100~299명” 이 18.4%이고, 세 번째는 “1000명 이상” 이 13.7%이었다.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음” 이 56.4%로 가장 높았고, 두 번째는 “1~29명” 이 22.2%이고, 세 번째는 “30~49명” 이 9.5%이었다.

모름/무응답의 경우 “1~29명” 이 44.8%로 가장 높았고, 두 번째는 “30~49명” 이 41.7%이고, 세 번째는 “300~499명” 이 13.5%이었다. 그러나 유의수준 5% 하에서 p-값이 0.294 으로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에 따른 희망 사업체 규모에는 차이가 있다.” 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만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에 따른 희망 사업체 규모에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부모님의 자산 규모별로 보면 5천만 원 미만의 경우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음” 이 39.1%로 가장 높았고, 두 번째는 “1~29명” 이 16.8%이고, 세 번째는 “50~99명” 이 10.6%이었다. 5천만 원 ~ 1억 5천만 원 미만의 경우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음” 이 36.3%로 가장 높았고, 두 번째는 “1~29명” 이 15.1%이고, 세 번째는 “50~99명” 이 11.9%이었다. 1억 5천만 원 ~ 3억 원 미만의 경우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음” 이 44.7%로 가장 높았고, 두 번째는 “100~299명” 이 12.6%이고, 세 번째는 “50~99명” 이 12.3%이었다. 3억 원 ~ 5억 원 미만의 경우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음” 이 44.7%로 가장 높았고, 두 번째는 “100~299명” 이 13.7%이고, 세 번째는 “1000명 이상” 이 9.8%이었다. 5억 원 ~ 10억 원 미만의 경우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음” 이 45.2%로 가장 높았고, 두 번째는 “1000명 이상” 이 12.3%이고, 세 번째는 “1~29명” 이 11.0%이었다. 10억 원 이상의 경우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음” 이 52.6%로 가장 높았고, 두 번째는 “100~299명” 이 14.0%이고, 세 번째는 “1000명 이상” 이 11.9%이었다.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음” 이 59.7%로 가장 높았고, 두 번째는 “1~29명” 이 17.6%이고, 세 번째는 “30~49명” 이 10.0%이었다. 모름/무응답 경우 “1~29명” 이 44.8%로 가장 높았고, 두 번째는 “30~49명” 이 41.7%이고, 세 번째는 “300~499명” 이 13.5%이었다. 그러나 유의수준 5% 하에서 p-값이 0.096 으로 “부모님의 자산 규모에 따른 희망 사업체 규모에는 차이가 있다.” 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만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부모님의 자산 규모에 따른 희망 사업체 규모에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종합해보면 구직중인 졸업자들의 희망 사업체 규모는 대부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음”이었지만, “1~29명” 와 “100~299명” 도 10% 내외를 차지하였다. 성별, 학교유형, 학교소재권역, 전공계열에 따라 희망하는 사업체의 규모는 다른 것으로 나타났지만,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나 자산 규모에 따라서는 다르게 나타나지 않았다.

· 문항분석[구직활동 기간 중 일자리에 지원한 횟수]

B11. 구직활동기간 중 일자리에 지원한 횟수는 몇 번입니까?

※ 위 B3에 응답하신 구직활동 기간을 기준으로 지원한 횟수를 응답하여 주십시오.

■ _____ 회

[표4.13] 구직활동 기간 중 일자리에 지원한 횟수

		평균	평균의 표준오차	p-값
전체		11.56	0.564	
성별	남성	13.08	0.849	0.008
	여성	10.07	0.744	
학교유형	2~3년제	7.16	0.594	0.000
	4년제	13.76	0.787	
	교육대	2.00	0.000	
학교소재권역	서울권	15.99	1.544	0.000
	경기.강원권	9.57	0.62	
	충청권	14.11	1.789	
	경상권	10.36	0.972	
	전라.제주권	7.68	1.022	
전공계열	인문계열	15.54	1.976	0.000
	사회계열	13.12	1.339	
	교육계열	5.51	1.051	
	공학계열	12.44	0.902	
	자연계열	9.48	0.926	
	의약계열	5.19	0.361	
	예체능계열	7.53	0.853	
부모님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12.83	9.161	0.000
	100~200만원 미만	9.38	2.598	
	200~300만원 미만	10.54	1.427	
	300~400만원 미만	11.96	1.338	
	400~500만원 미만	11.69	1.248	
	500~700만원 미만	9.38	1.044	
	700~1000만원 미만	11.39	1.454	
	1000만원 이상	10.30	1.855	
	소득없음	19.29	5.103	
	안계심(사망)	27.96	7.531	
	모름/무응답	4.22	0.627	
부모님 자산규모	5천만 원 미만	12.83	9.196	0.000
	5천만 원 ~ 1억 5천만 원 미만	11.77	1.178	
	1억 5천만 원 ~ 3억 원 미만	10.98	1.324	
	3억 원 ~ 5억 원 미만	11.00	0.903	
	5억 원 ~ 10억 원 미만	12.12	1.498	
	10억 원 이상	13.76	2.583	
	안계심(사망)	14.52	4.003	
	모름/무응답	4.22	0.625	

구직 중인 졸업자들이 구직 활동 기간 중 일자리에 지원한 횟수는 평균 11.56회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평균 13.08회를 지원했으며, 여성의 경우 평균 10.07회를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수준 5% 하에서 p -값이 0.008로 “성별에 따라 구직 기간 중 일자리에 지원한 평균 횟수의 차이가 없다.” 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만한 근거가 충분하다. 따라서 성별에 따라 구직 기간 중 일자리에 지원한 횟수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2~3년제의 경우 평균 7.16회를 지원했으며, 4년제의 경우 평균 13.76회를 지원했으며 교육대의 경우 평균 2.00회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수준 5% 하에서 p -값이 0.000로 “학교 유형에 따라 구직 기간 중 일자리에 지원한 평균 횟수의 차이가 없다.” 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만한 근거가 충분하다. 따라서 학교 유형에 따라 구직 기간 중 일자리에 지원한 횟수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소재 권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권의 경우 평균 15.99회를 지원했으며, 경기·강원권의 경우 평균 9.57회를 지원했으며 충청권의 경우 평균 14.11회를 지원했으며 경상권의 경우 평균 10.36회 지원했으며 전라·제주권의 경우 평균 7.68회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수준 5% 하에서 p -값이 0.000로 “학교 소재 권역에 따라 구직 기간 중 일자리에 지원한 평균 횟수의 차이가 없다.” 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만한 근거가 충분하다. 따라서 학교 소재 권역에 따라 구직 기간 중 일자리에 지원한 횟수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 계열별로 살펴보면 인문계열의 경우 평균 15.54회를 지원했으며, 사회계열의 경우 평균 13.12회를 지원했으며, 교육계열의 경우 평균 5.51회 지원했으며, 공학계열의 경우 평균 12.44회를 지원했으며, 자연계열의 경우 평균 9.48회를 지원했으며, 의약계열의 경우 평균 5.19회를 지원했으며, 예체능계열의 경우 평균 7.53회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수준 5% 하에서 p -값이 0.000로 “전공 계열에 따라 구직 기간 중 일자리에 지원한 평균 횟수의 차이가 없다.” 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만한 근거가 충분하다. 따라서 전공 계열에 따라 구직 기간 중 일자리에 지원한 횟수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별로 살펴보면 100만원 미만의 경우 평균 12.83회를 지원했으며, 100~200만원 미만의 경우 평균 9.38회를 지원했으며, 200~300만원 미만의 경우 평균 10.54회를 지원했으며, 300~400만원 미만의 경우 평균 11.96회를 지원했으며, 400~500만원 미만의 경우 평균 11.69회를 지원했으며, 500~700만원 미만의 경우 평균 9.38회를 지원했으며, 700~1000만원 미만의 경우 평균 11.39회를 지원했으며, 1000만원 이상의 경우 평균 10.3회를 지원했으며, 부모님의 소득이 없는 경우 평균 19.29회를 지원했으며,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평균 27.96회를 지원했으며, 모름/무응답의 경우 4.22회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수준 5% 하에서 p -값이 0.000로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에 따라 구직 기간 중 일자리에 지원한 평균 횟수의 차이가 없다.” 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만한 근거가 충분하다. 따라서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에 따라 구직 기간 중 일자리에 지원한 횟수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님의 자산 규모별로 살펴보면 5천만 원 미만의 경우 평균 12.83회를 지원했으며, 5천만 원 ~ 1억 5천만 원 미만의 경우 평균 11.77회를 지원하였고, 1억 5천만 원 ~ 3억 원 미만의 경우 평균 10.98회를 지원하였고, 3억 원 ~ 5억 원 미만의 경우 평균 11.0회를 지원하였고, 5억 원 ~ 10억

원 미만의 경우 평균 12.12회를 지원하였고, 10억 원 이상의 경우 평균 13.76회를 지원하였고,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평균 14.52회를 지원하였고, 모름/무응답의 경우 평균 4.22회 지원하였다. 유의 수준 5% 하에서 p-값이 0.000로 “부모님의 자산 규모에 따라 구직 기간 중 일자리에 지원한 평균 횟수의 차이가 없다.” 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만한 근거가 충분하다. 따라서 부모님의 자산 규모에 따라 구직 기간 중 일자리에 지원한 횟수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해보면 구직 중인 졸업자들이 구직 활동 기간 중 일자리에 지원한 횟수는 평균 11.56회로 나타났다으며, 성별, 학교유형, 학교소재권역, 전공계열,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 부모님의 자산규모 따라 일자리에 지원한 횟수가 지원한 횟수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문항분석[구직활동 기간 중 면접을 본 횟수]

B11-1. 구직활동기간 중 면접을 본 횟수는 몇 번입니까?

※ 한 기업에서 한 번의 채용전형동안 여러 번 면접을 본 경우는 1회에 해당합니다.

■ _____ 회

[표4.14] 구직활동 기간 중 면접을 본 횟수

		평균	평균의 표준오차	p-값
전체		2.76	0.150	
성별	남성	3.14	0.260	0.008
	여성	2.34	0.154	
학교유형	2~3년제	2.59	0.199	0.000
	4년제	2.81	0.202	
	교육대	1.66	0.026	
학교소재권역	서울권	3.04	0.432	0.000
	경기.강원권	2.85	0.370	
	충청권	3.71	0.382	
	경상권	2.22	0.197	
	전라.제주권	2.08	0.313	
전공계열	인문계열	2.86	0.359	0.000
	사회계열	3.02	0.374	
	교육계열	1.56	0.293	
	공학계열	2.98	0.282	
	자연계열	2.06	0.164	
	의약계열	2.81	0.29	
	예체능계열	2.17	0.243	
부모님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1.72	0.327	0.000
	100~200만원 미만	2.61	0.277	
	200~300만원 미만	2.63	0.289	
	300~400만원 미만	2.72	0.256	
	400~500만원 미만	1.95	0.152	
	500~700만원 미만	3.01	0.356	
	700~1000만원 미만	2.11	0.441	
	1000만원 이상	6.21	2.150	
	소득없음	7.78	3.076	
	안계심(사망)	1.08	0.25	
	모름/무응답	1.96	2.036	
부모님 자산규모	5천만 원 미만	2.87	0.325	0.000
	5천만 원 ~ 1억 5천만 원 미만	2.43	0.208	
	1억 5천만 원 ~ 3억 원 미만	2.82	0.217	
	3억 원 ~ 5억 원 미만	2.77	0.417	
	5억 원 ~ 10억 원 미만	3.11	0.901	
	10억 원 이상	3.01	0.993	
	안계심(사망)	1.09	0.276	
	모름/무응답	1.53	1.078	

구직 중인 졸업자가 구직 기간 중 면접을 본 횟수는 평균 2.76회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평균 3.14회를 면접을 봤으며, 여성의 경우 평균 2.34회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수준 5% 하에서 p-값이 0.008로 “성별에 따라 구직 기간 중 면접을 본 평균 횟수의 차이가 없다.” 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만한 근거가 충분하다. 따라서 성별에 따라 구직 기간 중 면접을 본 평균 횟수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2~3년제는 평균 2.59회 면접을 봤으며, 4년제는 평균 2.81회 면접을 봤으며, 교육대는 평균 1.66회 면접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수준 5% 하에서 p-값이 0.000로 “학교 유형에 따라 구직 기간 중 면접을 본 평균 횟수의 차이가 없다.” 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만한 근거가 충분하다. 따라서 학교 유형에 따라 구직 기간 중 면접을 본 평균 횟수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소재 권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권은 평균 3.04회 면접을 봤으며, 경기·강원권은 평균 2.85회 면접을 봤으며, 충청권은 평균 3.71회 면접을 봤으며, 경상권은 평균 2.22회 면접을 봤으며, 전라·제주권은 평균 2.08회 면접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수준 5% 하에서 p-값이 0.000로 “학교 소재 권역에 따라 구직 기간 중 면접을 본 평균 횟수의 차이가 없다.” 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만한 근거가 충분하다. 따라서 학교 소재 권역에 따라 구직 기간 중 면접을 본 평균 횟수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 계열별로는 인문계열은 평균 2.86회를 면접을 봤으며, 사회계열은 평균 3.02회 면접을 봤으며, 교육계열은 평균 1.56회 면접을 봤으며, 공학계열은 평균 2.98회 면접을 봤으며, 자연계열은 평균 2.06회 면접을 봤으며, 의약계열은 평균 2.81회 면접을 봤으며, 예체능계열은 평균 2.17회 면접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수준 5% 하에서 p-값이 0.000로 “전공 계열에 따라 구직 기간 중 면접을 본 평균 횟수의 차이가 없다.” 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만한 근거가 충분하다. 따라서 전공 계열에 따라 구직 기간 중 면접을 본 평균 횟수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별로 살펴보면 100만원 미만의 경우 평균 1.72회 면접을 봤으며, 100~200만원 미만은 평균 2.61회 면접을 봤으며, 200~300만원 미만의 경우 평균 2.63회 면접을 봤으며, 300~400만원 미만의 경우 평균 2.72회 면접을 봤으며, 400~500만원 미만의 경우 평균 1.95회 면접을 봤으며, 500~700만원 미만의 경우 평균 3.01회 면접을 봤으며, 700~1000만원 미만의 경우 평균 2.11회 면접을 봤으며, 1000만원 이상의 경우 평균 6.21회 면접을 봤으며, 소득이 없는 경우 평균 7.78회 면접을 봤으며,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평균 1.08회 면접을 봤으며, 모름/무응답의 경우 평균 1.96회 면접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수준 5% 하에서 p-값이 0.000로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에 따라 구직 기간 중 면접을 본 평균 횟수의 차이가 없다.” 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만한 근거가 충분하다. 따라서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에 따라 구직 기간 중 면접을 본 평균 횟수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님의 자산 규모별로 살펴보면 5천만 원 미만의 경우 평균 2.87회 면접을 봤으며, 5천만 원 ~ 1억 5천만 원 미만의 경우 평균 2.43회 면접을 봤으며, 1억 5천만 원 ~ 3억 원 미만의 경우 평균 2.82회 면접을 봤으며 3억 원 ~ 5억 원 미만의 경우 평균 2.77회 면접을 봤으며, 5억 원 ~ 10억 원 미만의 경우 평균 3.11회 면접을 봤으며, 10억 원 이상의 경우 평균 3.01회 면접을 봤으며 부모

님이 사망한 경우 평균 1.09회 면접을 봤으며, 모름/무응답의 경우 평균 1.53회 면접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수준 5%하에서 p-값이 0.000로 “부모님의 자산 규모에 따라 구직 기간 중 면접을 본 평균 횟수의 차이가 없다.” 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만한 근거가 충분하다. 따라서 부모님의 자산 규모에 따라 구직 기간 중 면접을 본 평균 횟수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해보면 구직 중인 졸업자가 구직 기간 중 면접을 본 횟수는 평균 2.76회로 나타났으며, 성별, 학교유형, 학교소재권역, 전공계열,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 부모님의 자산규모에 따라 구직 기간 중 면접을 본 평균 횟수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 문항분석[구직활동 기간 중 일자리 제의를 받은 횟수]

B11-2. 구직활동기간 중 일자리를 제의 받은 횟수는 몇 번입니까?

■ _____ 회

[표4.15] 구직활동 기간 중 일자리 제의를 받은 횟수

		평균	평균의 표준오차	p-값
전체		1.08	0.54	
성별	남성	1.19	0.08	0.037
	여성	0.97	0.07	
학교유형	2~3년제	1.21	0.10	0.010
	4년제	1.01	0.06	
	교육대	1.47	0.15	
학교소재권역	서울권	1.07	0.12	0.002
	경기.강원권	1.24	0.11	
	충청권	1.48	0.16	
	경상권	0.86	0.10	
	전라.제주권	0.84	0.11	
전공계열	인문계열	1.01	0.13	0.008
	사회계열	0.98	0.10	
	교육계열	0.73	0.18	
	공학계열	1.25	0.13	
	자연계열	0.92	0.11	
	의약계열	1.59	0.17	
	예체능계열	1.05	0.12	
부모님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0.82	0.26	0.036
	100~200만원 미만	1.17	0.13	
	200~300만원 미만	1.10	0.13	
	300~400만원 미만	1.23	0.14	
	400~500만원 미만	0.80	0.08	
	500~700만원 미만	1.13	0.13	
	700~1000만원 미만	0.82	0.13	
	1000만원 이상	1.21	0.22	
	소득없음	2.03	0.81	
	안계심(사망)	0.60	0.22	
	모름/무응답	1.23	1.27	
부모님 자산규모	5천만 원 미만	1.29	.175	0.055
	5천만 원 ~ 1억 5천만 원 미만	1.12	.120	
	1억 5천만 원 ~ 3억 원 미만	1.06	.099	
	3억 원 ~ 5억 원 미만	.88	.086	
	5억 원 ~ 10억 원 미만	1.19	.192	
	10억 원 이상	1.24	.242	
	안계심(사망)	.50	.214	
	모름/무응답	1.57	.811	

구직 중인 졸업자들은 면접, 서류 등에 합격하여 평균 1.08회 일자리 제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평균 1.19회 일자리를 제의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평균 0.97회 일자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수준 5%하에서 p -값이 0.037로 “성별에 따른 일자리 제의 횟수에는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근거가 충분하다. 따라서 성별에 따라 일자리 제의 횟수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말할 수 있다.

이를 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2~3년제의 경우 평균 1.21회 일자리를 제의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4년제의 경우 평균 1.01회 일자리를 제의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대의 경우 평균 1.47회 일자리를 제의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수준 5%하에서 p -값이 0.01로 “학교 유형에 따른 일자리 제의 횟수에는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근거가 충분하다, 따라서 학교 유형에 따라 일자리 제의 횟수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학교 소재 권역으로 보면 서울권의 경우 평균 1.08회 일자리를 제의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강원권의 경우 평균 1.24회 일자리를 제의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충청권의 경우 평균 1.48회 일자리를 제의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상권의 경우 평균 0.86회 일자리를 제의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라·제주권의 경우 평균 0.84회 일자리를 제의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수준 5%하에서 p -값이 0.002로 “학교 소재 권역에 따른 일자리 제의 횟수에는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근거가 충분하다, 따라서 학교 소재 권역에 따라 일자리 제의 횟수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전공계열별로 살펴보면 인문계열의 경우 평균 1.01회 일자리를 제의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계열의 경우 평균 0.98회 일자리를 제의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계열의 경우 평균 0.73회 일자리를 제의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학계열의 경우 평균 1.25회 일자리를 제의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연계열의 경우 평균 0.92회 일자리를 제의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약계열의 경우 평균 1.59회 일자리를 제의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체능계열의 경우 평균 1.05회 일자리를 제의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수준 5%하에서 p -값이 0.008로 “전공계열에 따른 일자리 제의 횟수에는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근거가 충분하다, 따라서 전공계열에 따라 일자리 제의 횟수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 별로 살펴보면 100만원 미만의 경우 평균 0.82회 일자리를 제의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00~200만원 미만의 경우 평균 1.17회 일자리를 제의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300만원 미만의 경우 평균 1.1회 일자리를 제의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300~400만원 미만의 경우 평균 1.23회 일자리를 제의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400~500만원 미만의 경우 평균 0.8회 일자리를 제의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500~700만원의 경우 평균 1.13회 일자리를 제의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700~1000만원 미만의 경우 평균 1.21회 일자리를 제의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이 없는 경우 평균 2.03회 일자리를 제의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님이 사망하신 경우 평균 0.6회 일자리를 제의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름/무응답의 경우 평균 1.23회 일자리를 제의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수준 5%하에서 p -값이 0.036로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에 따른 일자리 제의 횟수에는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근거가 충분하다, 따라서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에 따라 일자리 제의 횟수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부모님의 자산 규모 별로 살펴보면 5천만 원 미만의 경우 평균 1.29회 일자리를 제의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5천만 원에서 ~ 1억 5천만 원 미만의 경우 평균 1.12회 일자리를 제의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억 5천만 원 ~ 3억 원 미만의 경우 평균 1.06회 일자리를 제의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3억 원 ~ 5억 원 미만의 경우 평균 0.88회 일자리를 제의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5억 원 ~ 10억 원 미만의 경우 평균 1.19회 일자리를 제의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억 원 이상의 경우 평균 1.24회 일자리를 제의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님이 사망하신 경우 평균 0.5회 일자리를 제의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모름/무응답의 경우 평균 1.57회 일자리를 제의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의수준 5%하에서 p-값이 0.055로 “부모님의 자산 규모에 따른 일자리 제의 횟수에는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부모님의 자산 규모에 따라 일자리 제의 횟수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해보면 구직 중인 졸업자들은 평균 1.08회 일자리를 제의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학교 유형, 학교 소재 권역, 전공 계열,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에 따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부모님의 자산 규모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문항분석[구직활동 기간 중 일자리를 거절한 경험]

B11-3. 일자리 제의(취업, 스카우트 등)를 거절한 경험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표4.16] 구직활동 기간 중 일자리를 거절한 경험

		거절한 경험이 있다.	p-값
전체		42.0%	
성별	남성	42.1%	0.918
	여성	41.8%	
학교유형	2~3년제	43.9%	0.185
	4년제	40.8%	
	교육대	80.6%	
학교소재권역	서울권	39.0%	0.001
	경기.강원권	50.8%	
	충청권	46.9%	
	경상권	39.0%	
	전라.제주권	32.1%	
전공계열	인문계열	41.3%	0.295
	사회계열	38.3%	
	교육계열	38.5%	
	공학계열	43.0%	
	자연계열	41.3%	
	의약계열	53.9%	
	예체능계열	46.3%	
부모님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35.8%	0.565
	100~200만원 미만	49.3%	
	200~300만원 미만	43.2%	
	300~400만원 미만	39.9%	
	400~500만원 미만	40.5%	
	500~700만원 미만	40.0%	
	700~1000만원 미만	36.6%	
	1000만원 이상	52.0%	
	소득없음	51.4%	
	안계심(사망)	32.8%	
	모름/무응답	24.5%	
부모님 자산규모	5천만 원 미만	47.9%	0.137
	5천만 원 ~ 1억 5천만 원 미만	44.5%	
	1억 5천만 원 ~ 3억 원 미만	39.6%	
	3억 원 ~ 5억 원 미만	37.2%	
	5억 원 ~ 10억 원 미만	41.8%	
	10억 원 이상	59.3%	
	안계심(사망)	28.0%	
	모름/무응답	58.3%	

구직 중인 졸업자들은 일자리에 제의를 받았지만 거절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42.0%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42.1%가 일자리를 거절한 경험이 있었으며, 여성의 경우 41.8%가 일자리를 거절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의수준 5%하에서 p -값이 0.918로 “성별에 따른 일자리를 거절한 경험의 유무는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는 일자리 제의를 받았지만 거절한 경험의 유무는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2~3년제의 경우 43.9%가 일자리를 거절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년제의 경우 40.8%가 일자리를 거절한 경험을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대의 경우 80.6%가 일자리를 거절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의수준 5%하에서 p -값이 0.185로 “학교 유형에 따른 일자리를 거절한 경험의 유무는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학교 유형에 따라서는 일자리 제의를 받았지만 거절한 경험의 유무는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학교 소재 권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권의 경우 39.0%가 일자리를 거절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강원권의 경우 50.8%가 일자리를 거절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충청권의 경우 46.9%가 일자리를 거절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상권의 경우 39.0%가 일자리를 거절한 경험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라·제주권의 경우 32.1%가 일자리를 거절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수준 5%하에서 p -값이 0.001로 “학교 소재 권역에 따른 일자리를 거절한 경험의 유무는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학교 소재 권역에 따라서는 일자리 제의를 받았지만 거절한 경험의 유무는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전공계열별로 살펴보면 인문계열의 경우 41.3%가 일자리를 거절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계열의 경우 38.3%가 일자리를 거절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계열의 경우 38.3%가 일자리를 거절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공학계열의 경우 43%가 일자리를 거절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연계열의 경우 41.3%가 일자리를 거절한 경험이 있었으며, 의학계열의 경우 53.9%가 일자리를 거절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체능계열의 경우 46.3%가 일자리를 거절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5%하에서 p -값이 0.295로 “전공계열에 따라 일자리를 거절한 경험의 유무는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전공계열에 따라서는 일자리 제의를 받았지만 거절한 경험의 유무는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별로 살펴보면 100만원 미만의 경우 35.8%가 일자리를 거절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100~200만원 미만의 경우 49.3%가 일자리를 거절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200~300만원의 경우 39.9%가 일자리를 거절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00~500만원 미만의 경우 40.5%가 일자리를 거절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00~700만원 미만의 경우 40.0%가 일자리를 거절한 경험이 있었으며, 700~1000만원 미만의 경우 36.6%가 일자리를 거절한 경험이 있었으며, 1000만원 이상의 경우 52.0%가 일자리를 거절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이 없는 경우 51.4%가 일자리를 거절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님이 사망하신 경우 32.8%가 일자리를 거절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름/무응답의 경우 24.5%가 일자리를 거절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5%하에서 p -값이 0.565로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에 따라 일자리를 거절한 경험의 유무는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에 따라서는 일자리 제의를 받았지만 거절한 경험의 유무는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부모님의 자산 규모별로 살펴보면 5천만 원 미만의 경우 47.9%가 일자리를 거절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천만 원 ~ 1억 5천만 원 미만의 경우 44.5%가 일자리를 거절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억 5천만 원 ~ 3억 원 미만의 경우 39.6%가 일자리를 거절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억 원 ~ 10억 원 미만의 경우 41.8%가 일자리를 거절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0억 원 이상의 경우 59.3%가 일자리를 거절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님이 사망하신 경우 28.0%가 일자리를 거절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름/무응답의 경우 58.3%가 일자리를 거절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의수준 5%하에서 p-값이 0.137로 “부모님의 자산 규모에 따라 일자리를 거절한 경험의 유무는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부모님의 자산 규모에 따라서는 일자리 제의를 받았지만 거절한 경험의 유무는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종합해보면 일자리를 제안 받았으나 거절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42.0%로 나타났으며, 성별, 학교 유형, 전공계열,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 부모님의 자산 규모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학교 소재 권역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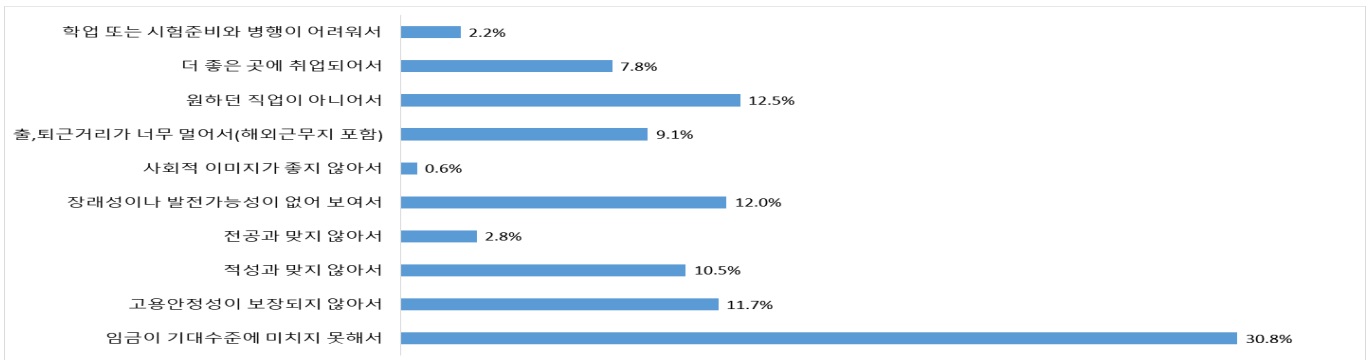
· 문항분석[구직활동 기간 중 일자리 제의를 거절한 이유]

B11-4. 일자리 제의를 거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일자리 제의 거절경험이 2회 이상인 경우는 가장 최근 경험을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1. 임금이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해서
2. 고용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아서
3. 적성과 맞지 않아서
4. 전공과 맞지 않아서
5. 장래성이나 발전가능성이 없어 보여서
6. 사회적 이미지가 좋지 않아서
7.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해외근무지 포함)
8. 원하던 직업이 아니어서
9. 더 좋은 곳에 취업도아서
10. 학업 또는 시험준비와 병행이 어려워서
11. 기타()

[그림4.6] 일자리 제의를 거절한 이유



[표4.17] 일자리 제의를 거절한 이유_1

		임금이 기대수 준에 미치지 못해서	고용안 정성이 보장되 지 않아서	적성과 맞지 않아서	전공과 맞지 않아서	장래성 이나 발전가 능성이 없어 보여서	사회적 이미지 가 좋지 않아서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해외근 무지 포함)	원하던 직업이 아니어 서	더 좋은 곳에 취업되 어서	학업 또는 시험준 비와 병행이 어려워 서	P-값
전체		30.8%	11.7%	10.5%	2.8%	12.0%	0.6%	9.1%	12.5%	7.8%	2.2%	
성별	남성	31.1%	13.0%	11.6%	4.0%	12.4%	1.1%	7.7%	12.3%	4.4%	2.3%	0.118
	여성	30.5%	10.3%	9.5%	1.6%	11.6%	.2%	10.5%	12.6%	11.0%	2.1%	
학교 유형	2~3년제	33.2%	11.6%	9.6%	4.6%	10.2%	0.2%	8.9%	9.2%	10.7%	1.7%	0.008
	4년제	29.7%	11.5%	11.1%	1.8%	13.1%	.8%	9.2%	14.3%	6.3%	2.1%	
	교육대	-	42.2%	-	-	-	-	14.5%	-	-	43.4%	
학교 소재 권역	서울권	26.9%	12.7%	14.2%	3.4%	14.9%	.9%	3.9%	13.5%	7.3%	2.3%	0.295
	경기.강원권	30.3%	6.5%	14.6%	4.6%	11.2%	-	11.8%	8.2%	10.3%	2.6%	
	충청권	28.3%	17.0%	9.5%	1.1%	10.0%	.5%	10.1%	12.0%	9.1%	2.4%	
	경상권	36.9%	11.9%	7.1%	1.4%	14.1%	1.3%	8.9%	12.8%	4.0%	1.6%	
	전라.제주권	26.8%	13.9%	3.9%	3.5%	6.9%	-	10.5%	21.9%	10.2%	2.4%	
전공 계열	인문계열	19.1%	12.2%	14.3%	.7%	20.3%	1.5%	9.4%	12.8%	5.0%	4.7%	0.146
	사회계열	31.1%	11.0%	14.3%	2.9%	9.9%	-	7.7%	15.4%	6.6%	1.0%	
	교육계열	17.8%	18.4%	2.7%	-	6.7%	-	6.7%	19.0%	16.6%	12.1%	
	공학계열	30.4%	13.5%	8.2%	4.6%	12.1%	1.4%	8.3%	13.2%	5.7%	2.6%	
	자연계열	41.8%	10.7%	6.5%	2.3%	9.2%	.8%	11.2%	8.4%	9.2%	-	
	의약계열	21.2%	9.1%	14.9%	-	17.6%	-	21.8%	4.3%	8.6%	2.4%	
	예체능계열	41.3%	9.8%	5.4%	3.6%	9.7%	-	4.7%	10.5%	13.7%	1.2%	

[표4.18] 일자리 제의를 거절한 이유_2

		임금이 기대수 준에 미치지 못해서	고용안 정성이 보장되 지 않아서	적성과 맞지 않아서	전공과 맞지 않아서	장래성 이나 발전가 능성이 없어 보여서	사회적 이미지 가 좋지 않아서	출,퇴 근거리 가 너무 멀어서 (해외 근무지 포함)	원하던 직업이 아니어 서	더 좋은 곳에 취업되 어서	학업 또는 시험준 비와 병행이 어려워 서	P-값
전체		30.8%	11.7%	10.5%	2.8%	12.0%	0.6%	9.1%	12.5%	7.8%	2.2%	
부모님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31.2%	23.6%	3.8%	-	13.4%	-	4.1%	17.5%	6.5%	-	0.041
	100~200만원 미만	37.3%	10.8%	11.3%	5.9%	8.9%	-	7.4%	6.6%	4.6%	7.3%	
	200~300만원 미만	35.9%	11.2%	9.5%	3.1%	15.6%	.5%	7.2%	11.0%	5.4%	.5%	
	300~400만원 미만	27.9%	15.8%	10.5%	-	10.0%	.7%	9.7%	12.7%	10.3%	2.5%	
	400~500만원 미만	24.2%	8.5%	18.6%	6.0%	10.7%	.7%	9.5%	17.0%	2.6%	2.2%	
	500~700만원 미만	24.8%	15.4%	6.1%	1.3%	12.2%	1.8%	10.8%	8.1%	17.8%	1.7%	
	700~1000만원 미만	48.8%	3.5%	7.3%	1.9%	9.2%	-	1.7%	25.5%	2.1%	-	
	1000만원 이상	30.1%	13.1%	-	2.1%	20.0%	-	9.3%	12.2%	13.1%	-	
	소득없음	28.7%	-	13.3%	-	11.1%	-	26.0%	21.0%	-	-	
	안계심(사망)	19.5%	-	-	-	27.1%	-	22.9%	-	30.5%	-	
	모름/무응답	100.0%	-	-	-	-	-	-	-	-	-	
부모님 자산규 모	5천만 원 미만	32.2%	17.9%	10.4%	4.9%	12.3%	-	4.5%	9.2%	5.8%	2.8%	0.250
	5천만 원 ~ 1억 5천만 원 미만	33.0%	4.6%	10.2%	1.1%	20.0%	.4%	10.5%	8.6%	7.4%	4.1%	
	1억 5천만 원 ~ 3억 원 미만	28.7%	12.6%	10.2%	3.4%	10.7%	1.3%	7.8%	15.1%	9.3%	.9%	
	3억 원 ~ 5억 원 미만	29.8%	12.8%	10.5%	2.6%	4.7%	.4%	13.2%	17.2%	6.7%	2.1%	
	5억 원 ~ 10억 원 미만	32.4%	11.7%	15.3%	2.0%	5.5%	.9%	9.2%	12.3%	9.5%	1.3%	
	10억 원 이상	29.2%	17.5%	8.0%	2.4%	17.7%	-	7.8%	14.7%	2.6%	-	
	안계심(사망)	24.6%	-	-	-	34.1%	-	28.7%	-	12.6%	-	
	모름/무응답	23.2%	-	-	-	-	-	-	-	76.8%	-	

일 자리를 거절한 이유로는 “임금이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해서”가 30.8%로 가장 많았고, 두 번째는 “원하던 직업이 아니어서”가 12.5%이었으며, 세 번째는 “장래성이나 발전가능성이 없어 보여서”가 12.0%이었다.

이를 성별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임금이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해서”가 31.1%로 가장 많았고 두 번째는 “고용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아서”가 13.0%이었으며, 세 번째는 “장래성이나 발전가능성이 없어 보여서”가 12.4%이었다. 여성의 경우 “임금이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해서”가 30.5%로 가장 많았고, 두 번째는 “원하던 직업이 아니어서”가 12.6%이었고, 세 번째는 “장래성이나 발전가능성이 없어 보여서”가 11.6%이었다. 그러나 유의수준 5%하에서 p -값이 0.118로 “성별에 따라 일 자리를 거절한 이유에는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성별에 따른 일자리 제안의 거절의 이유에는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2~3년제의 경우 “임금이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해서”가 31.1%로 가장 많았고 두 번째는 “고용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아서”가 11.6%이었으며 세 번째는 “더 좋은 곳에 취업되어서”가 10.7%이었다. 4년제의 경우 “임금이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해서”가 29.7%로 가장 많았고 “원하던 직업이 아니어서”가 14.3%이었고, “장래성이나 발전가능성이 없어 보여서”가 13.1%이었다. 교육대의 경우 “학업 또는 시험준비와 병행이 어려워서”가 43.4%로 가장 많았고 두 번째는 “고용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아서”가 42.2%이었고, 세 번째는 “출,퇴근거리가 너무 멀어서(해외근무지 포함)”이 14.5%이었다. 유의수준 5%하에서 p -값이 0.008로 “학교 유형에 따라 일 자리를 거절한 이유에는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근거가 충분하다. 따라서 학교 유형에 따른 일자리 제안의 거절의 이유에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학교 소재 권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권의 경우 “임금이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해서”가 26.9%로 가장 많았고 두 번째는 “장래성이나 발전가능성이 없어 보여서”가 14.9%이었고 세 번째는 “적성과 맞지 않아서”가 14.2%이었다. 경기·강원권의 경우 “임금이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해서”가 30.3%로 가장 많았고 두 번째는 “적성과 맞지 않아서”가 14.6%이었고 세 번째는 “출,퇴근거리가 너무 멀어서(해외근무지 포함)”가 11.8%이었다. 충청권의 경우 “임금이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해서”가 28.3%로 가장 많았고 두 번째는 “고용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아서”가 17.0%이었고 세 번째는 “원하던 직업이 아니어서”가 12.0%이었다. 경상권의 경우 “임금이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해서”가 36.9%로 가장 많았고 두 번째는 “장래성이나 발전가능성이 없어 보여서”가 14.1%이었고 세 번째는 “원하던 직업이 아니어서”가 12.8%이었다. 전라·제주권의 경우 “임금이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해서”가 26.8%로 가장 많았고 두 번째는 “원하던 직업이 아니어서”가 21.9%이었고 세 번째는 “고용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아서”가 13.9%이었다. 그러나 유의수준 5%하에서 p -값이 0.295로 “학교 소재 권역에 따라 일 자리를 거절한 이유에는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학교 소재 권역에 따른 일자리 제안의 거절의 이유에는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전공계열별로 살펴보면 인문계열의 경우 “장래성이나 발전가능성이 없어 보여서”가 20.3%로 가장 많았으며 두 번째는 “임금이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해서”가 19.1%이었으며, 세 번째는 “적성과 맞지 않아서”가 14.3%이었다. 사회계열의 경우 “임금이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해서”가 31.1%로 가장 많았으며 두 번째는 “원하던 직업이 아니어서”가 15.4%이었으며, 세 번째는 “적성과 맞지 않아서”가 14.3%이었다. 교육계열의 경우 “원하던 직업이 아니어서”가 19.0%로 가장 많았으며 두 번째는 “고용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아서”가 18.4%이었으며, 세 번째는 “임금이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해

서”가 17.8%이었다. 공학계열의 경우 “임금이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해서”가 30.4%로 가장 많았으며 두 번째는 “고용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아서”가 13.5%이었으며, 세 번째는 “원하던 직업이 아니어서”가 13.2%이었다. 자연계열의 경우 “임금이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해서”가 41.8%로 가장 많았으며 두 번째는 “출,퇴근거리가 너무 멀어서(해외근무지 포함)”가 11.2%이었으며, 세 번째는 “고용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아서”가 10.7%이었다. 의약계열의 경우 “출,퇴근거리가 너무 멀어서(해외근무지 포함)”가 21.8%로 가장 많았으며 두 번째는 “임금이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해서”가 21.2%이었으며, 세 번째는 “장래성이나 발전가능성이 없어 보여서”가 17.6%이었다. 예체능계열의 경우 “임금이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해서”가 41.3%로 가장 많았으며 두 번째는 “더 좋은 곳에 취업되어서”가 13.7%이었으며, 세 번째는 “원하던 직업이 아니어서”가 10.5%이었다. 그러나 유의수준 5%하에서 p-값이 0.146로 “전공계열에 따라 일자리를 거절한 이유에는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전공계열에 따른 일자리 제안의 거절의 이유에는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별로 살펴보면 100만원 미만의 경우 “임금이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해서”가 31.2%로 가장 많았으며 두 번째는 “고용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아서”가 23.6%이었으며 세 번째는 “원하던 직업이 아니어서”가 17.5%이었다. 100~200만원 미만의 경우 “임금이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해서”가 37.3%로 가장 많았으며 두 번째는 “적성과 맞지 않아서”가 11.3%이었으며 세 번째는 “고용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아서”가 10.8%이었다. 200~300만원 미만의 경우 “임금이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해서”가 35.9%로 가장 많았으며 두 번째는 “장래성이나 발전가능성이 없어 보여서”가 15.6%이었으며 세 번째는 “고용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아서”가 11.2%이었다. 300~400만원 미만의 경우 “임금이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해서”가 27.9%로 가장 많았으며 두 번째는 “적성과 맞지 않아서”가 11.8%이었으며 세 번째는 “원하던 직업이 아니어서”가 12.7%이었다. 400~500만원 미만의 경우 “임금이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해서”가 24.2%로 가장 높았고, 두 번째는 “적성과 맞지 않아서”가 18.6%이었고 세 번째는 “원하던 직업이 아니어서”가 17.0%이었다. 500~700만원 미만의 경우 “임금이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해서”가 24.8%로 가장 높았고, 두 번째는 “더 좋은 곳에 취업되어서”가 17.8%이었고 세 번째는 “고용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아서”가 15.4%이었다. 700~1000만원 미만의 경우 “임금이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해서”가 48.8로 가장 높았고, 두 번째는 “원하던 직업이 아니어서”가 25.5%이었고 세 번째는 “장래성이나 발전가능성이 없어 보여서”가 9.3%이었다. 1000만원 이상의 경우 “임금이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해서”가 30.1%로 가장 높았고, 두 번째는 “장래성이나 발전가능성이 없어 보여서”가 20.0%이었고 세 번째는 “고용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아서”가 13.1%이었다. 소득이 없는 경우 “임금이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해서”가 28.7%로 가장 많았고 두 번째는 “출,퇴근거리가 너무 멀어서(해외근무지 포함)”가 26.0%이었고 세 번째는 “원하던 직업이 아니어서”가 2.0%이었다. 부모님이 사망하신 경우 “더 좋은 곳에 취업되어서”가 30.5%로 가장 높았고 두 번째는 “장래성이나 발전가능성이 없어 보여서”가 27.1%이었고, 세 번째는 “출,퇴근거리가 너무 멀어서(해외근무지 포함)”가 22.9%이었다. 모름/무응답의 경우 “임금이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해서”가 100%이었다. 유의수준 5%하에서 p-값이 0.041로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에 따라 일자리를 거절한 이유에는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근거가 충분하다. 따라서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에 따른 일자리 제안의 거절의 이유에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부모님의 자산 규모별로 살펴보면 5천만 원 미만의 경우 “임금이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해서”가 32.2%로 가장 많았으며 두 번째는 “고용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아서”가 17.9%이었으며 세 번째는 “장래성이나 발전가능성이 없어 보여서”가 12.3%이었다. 5천만 원 ~ 1억 5천만 원 미만의 경우 “임금이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해서”가 33.0%로 가장 많았으며, 두 번째는 “장래성이나 발전가능성이 없어 보여서”가 20.0%이었으며 세 번째는 “적성과 맞지 않아서”가 10.2%이었다. 1억 5천만 원

~ 3억 원 미만의 경우 “임금이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해서”가 28.7%로 가장 많았고 두 번째는 “고용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아서”가 12.6%이었고 세 번째는 “장래성이나 발전가능성이 없어 보여서”가 10.7%이었다. 3억 원 ~ 5억 원 미만의 경우 “임금이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해서”가 29.%로 가장 많았고 두 번째는 “원하던 직업이 아니어서”가 17.2%이었고 세 번째는 “출,퇴근거리가 너무 멀어서(해외근무지 포함)”가 13.2%이었다. 5억 원 ~ 10억 원 미만의 경우에는 “임금이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해서”가 32.4%로 가장 많았고 두 번째는 “원하던 직업이 아니어서”가 12.3%이었고, 세 번째는 “고용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아서”가 11.7%이었다. 10억 원 이상의 경우에는 “임금이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해서”가 29.2%로 가장 많았고 두 번째는 “장래성이나 발전가능성이 없어 보여서”가 17.7%이었고 세 번째는 “고용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아서”가 17.5%이었다. 부모님이 사망하신 경우 “장래성이나 발전가능성이 없어 보여서”가 34.1%로 가장 많았고 두 번째는 “출,퇴근거리가 너무 멀어서(해외근무지 포함)”가 28.7%이었고, 세 번째는 “임금이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해서”가 24.6%이었다. 모름/무응답의 경우 “더 좋은 곳에 취업되어서”가 76.8%이었고 “임금이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해서”가 23.2%이었다. 그러나 유의수준 5%하에서 p-값이 0.250로 “부모님의 자산 규모에 따라 일자리를 거절한 이유에는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부모님의 자산 규모에 따른 일자리 제안의 거절의 이유에는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종합해보면 일자리를 거절한 이유로는 “임금이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해서”가 30.8%로 가장 많았고, 두 번째는 “원하던 직업이 아니어서”가 12.5%이었으며, 세 번째는 “장래성이나 발전가능성이 없어 보여서”가 12.0%이었다. 또한 성별, 학교 소재 권역, 전공계열, 부모의 자산 규모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학교 유형과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문항분석[향후 받아들일 수 있는 최저 연봉]

B15. 향후 일자리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최저 연봉은 얼마입니까?

※ 연평균(연봉)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창업 또는 개인 사업을 준비하시는 경우는 생각하시는 최저 연평균 순수입을 응답하여 주십시오.

■ 연평균(연봉) _____ 만원

[표4.19] 향후 받아들일 수 있는 최저 연봉

		평균	평균의 표준오차	p-값
전체		2588.10	14.39	
성별	남성	2704.98	21.06	0.000
	여성	2418.97	19.52	
학교유형	2~3년제	2369.84	27.62	0.000
	4년제	2653.72	16.43	
	교육대	2433.98	59.35	
학교소재권역	서울권	2703.16	29.72	0.000
	경기.강원권	2540.97	35.54	
	충청권	2488.46	32.10	
	경상권	2533.11	23.48	
	전라.제주권	2505.42	47.22	
전공계열	인문계열	2464.37	30.23	0.000
	사회계열	2496.98	28.01	
	교육계열	2277.02	84.85	
	공학계열	2719.28	24.97	
	자연계열	2623.16	42.77	
	의약계열	2740.98	84.49	
	예체능계열	2397.52	35.76	
부모님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2622.64	127.23	0.005
	100~200만원 미만	2556.07	90.55	
	200~300만원 미만	2505.56	54.28	
	300~400만원 미만	2549.91	35.99	
	400~500만원 미만	2494.79	29.04	
	500~700만원 미만	2602.67	36.14	
	700~1000만원 미만	2574.41	38.52	
	1000만원 이상	2713.54	60.77	
	소득없음	2784.24	116.99	
	안계심(사망)	2682.98	114.95	
	모름/무응답	2167.66	153.71	
부모님 자산규모	5천만 원 미만	1985.42	429.79	0.007
	5천만 원 ~ 1억 5천만 원 미만	2529.68	47.46	
	1억 5천만 원 ~ 3억 원 미만	2522.34	35.02	
	3억 원 ~ 5억 원 미만	2542.43	26.26	
	5억 원 ~ 10억 원 미만	2610.01	29.68	
	10억 원 이상	2694.81	48.08	
	안계심(사망)	2670.72	121.15	
	모름/무응답	2224.90	152.72	

구직 활동 중인 졸업자들은 최저 희망 연봉으로 평균 2588만원을 받기를 원했다.

이를 성별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최저 희망 연봉으로 2704만원을 받기를 원했으며, 여성의 경우 최저 희망 연봉으로 2418만원을 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수준 5%하에서 p -값이 0.000으로 “성별에 따른 최저 희망 연봉에는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근거가 충분하다. 따라서 성별에 따라 최저 희망 연봉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2~3년제의 경우 최저 희망 연봉으로 2369만원을 받기를 원했으며, 4년제의 경우 최저 희망 연봉으로 2653만원을 받기를 원했으며, 교육대의 경우 최저 희망 연봉으로 2433만원을 받기를 원했다. 유의수준 5%하에서 p -값이 0.000으로 “학교 유형에 따른 최저 희망 연봉에는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근거가 충분하다. 따라서 학교 유형에 따라 최저 희망 연봉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학교 소재 권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권의 경우 최저 희망 연봉으로 2703만원을 받기를 원했으며, 경기·강원권의 경우 최저 희망 연봉으로 2540만원을 받기를 원했으며, 충청권의 경우 최저 희망 연봉으로 2488만원을 받기를 원했으며, 경상권의 경우 최저 희망 연봉으로 2533만원을 받기를 원했으며, 전라제주권의 경우 최저 희망 연봉으로 2505만원을 받기 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수준 5%하에서 p -값이 0.000으로 “학교 소재 권역에 따른 최저 희망 연봉에는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근거가 충분하다. 따라서 학교 소재 권역에 따라 최저 희망 연봉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전공계열별로 살펴보면 인문계열의 경우 최저 희망 연봉으로 2464만원을 받기를 원했으며, 사회계열의 경우 최저 희망 연봉으로 2496만원을 받기를 원했으며, 교육계열의 경우 최저 희망 연봉으로 2277만원을 받기를 원했으며, 공학계열의 경우 최저 희망 연봉으로 2719만원을 받기를 원했으며, 자연계열의 경우 최저 희망 연봉으로 2623만원을 받기를 원했으며, 의약계열의 경우 최저 희망 연봉으로 2740만원을 받기를 원했으며, 예체능 계열의 경우 최저 희망 연봉으로 2397만원을 받기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수준 5%하에서 p -값이 0.000으로 “전공계열에 따른 최저 희망 연봉에는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근거가 충분하다. 따라서 전공계열에 따라 최저 희망 연봉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별로 살펴보면 100만원 미만의 경우 최저 희망 연봉으로 2622만원을 받기를 원했으며, 100~200만원 미만의 경우 최저 희망 연봉으로 2556만원을 받기를 원했으며, 200~300만원의 경우 최저 희망 연봉으로 2505만원을 받기로 원했으며, 300~400만원 미만의 경우 최저 희망 연봉으로 2549만원을 받기를 원했으며, 400~500만원 미만의 경우 최저 희망 연봉으로 2494만원을 받기를 원했으며, 500~700만원 미만의 경우 최저 희망 연봉으로 2602만원을 받기 원했으며, 700~1000만원 미만의 경우 최저 희망 연봉으로 2713만원을 받기 원했으며,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최저 희망 연봉으로 2713만원을 받기를 원했으며 소득이 없는 경우 최저 희망 연봉으로 2784만원을 받기를 원했으며, 부모님이 사망하신 경우 최저 희망 연봉으로 2682만원을 받기를 원했으며, 모름/무응답의 경우 최저 희망 연봉으로 2167만원을 받기를 원했다. 유의수준 5%하에서 p -값이 0.005로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에 따른 최저 희망 연봉에는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근거가 충분하다. 따라서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에 따라 최저 희망 연봉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부모님의 자산 규모별로 살펴보면 5천만 원 미만의 경우 최저 희망 연봉으로 1895만원을 받기를 원했으며, 5천만 원 ~ 1억 5천만 원 미만의 경우에는 최저 희망 연봉으로 2529만원을 받기를 원했으며, 1억 5천만 원 ~ 3억 원 미만의 경우 최저 희망 연봉으로 2522만원을 받기를 원했으며, 3억 원 ~ 5억 원 미만의 경우 최저 희망 연봉으로 2542만원 받기를 원했으며, 5억 원 ~ 10억 원 미만의 경우 최저 희망 연봉으로 2610만원을 받기를 원했으며, 10억 원 이상인 경우 최저 희망 연봉으로 2694만원을 받기를 원했으며, 부모님이 사망하신 경우 최저 희망 연봉으로 2670만원을 받기를 원했으며, 모름/무응답의 경우 최저 희망 연봉으로 2224만원을 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수준 5%하에서 p-값이 0.007으로 “부모님의 자산 규모에 따른 최저 희망 연봉에는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근거가 충분하다. 따라서 부모님의 자산 규모에 따라 최저 희망 연봉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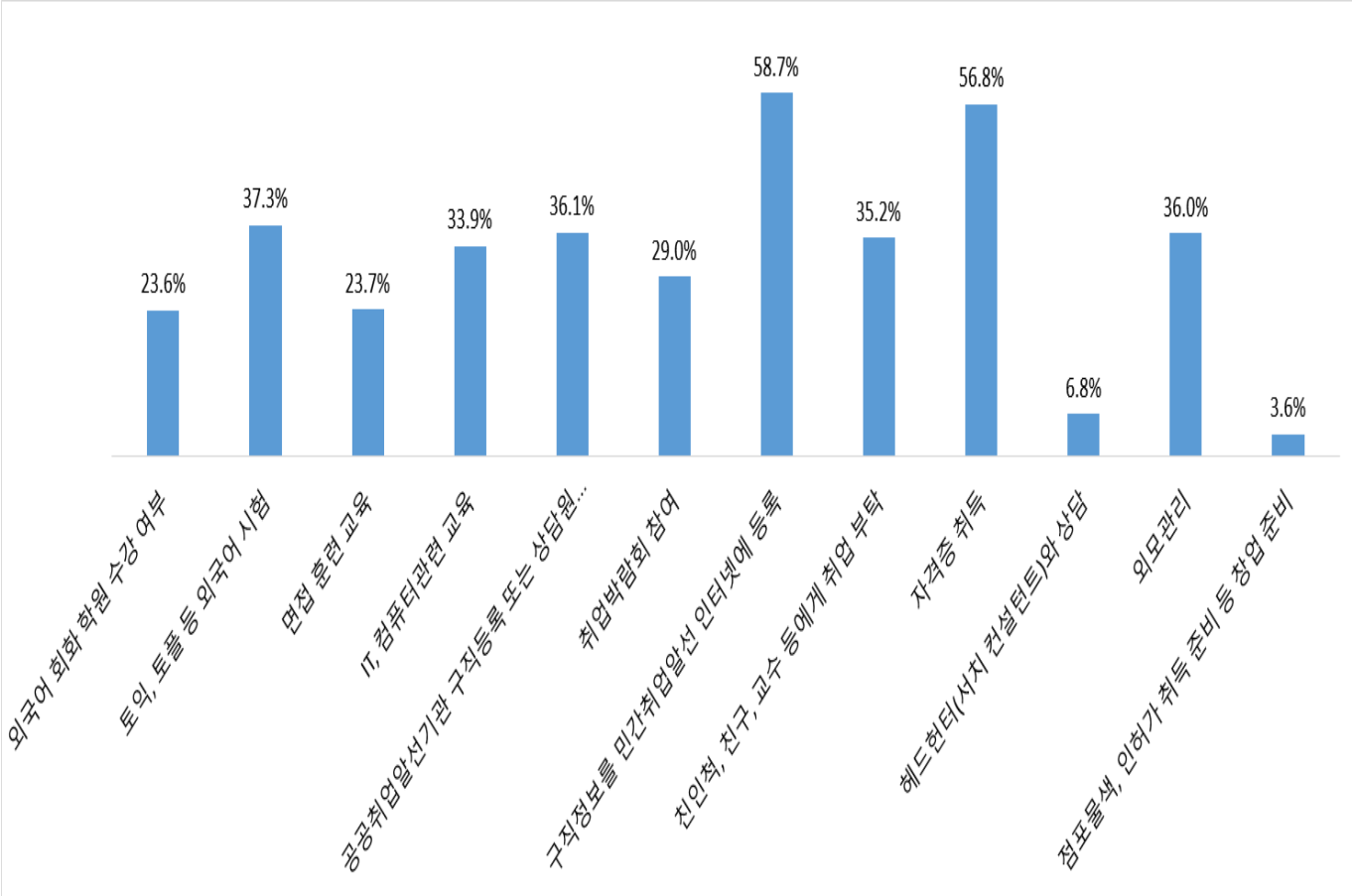
종합해보면 구직 활동 중인 졸업자들은 최저 희망 연봉으로 평균 2588만원을 받기를 원했다. 성별, 학교 유형, 학교 소재 권역, 전공계열,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 부모님의 자산 규모에 따라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문항분석[취업을 위해 한 노력]

B16. 취업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거나 현재 하고 있습니까? 해당하는 곳에 응답해 주십시오.

	예	아니오
(1) 외국어 회화 학원수강	1	2
(2) 토익, 토플 등 외국어 시험	1	2
(3) 면접훈련 교육	1	2
(4) IT, 컴퓨터관련 교육	1	2
(5) 공공취업알선기관 구직등록 또는 상담원 상담	1	2
(6) 취업박람회 참여	1	2
(7) 구직정보를 민간취업알선 인터넷에 등록	1	2
(8) 친인척, 친구, 교수 등에게 취업 부탁	1	2
(9) 자격증 취득	1	2
(10) 헤드헌터(서치 컨설턴트)와 상담	1	2
(11) 외모관리	1	2
(12) 점포물색, 인허가 취득준비 등 창업준비	1	2
(13) 기타(_____)	1	2

[그림4.7] 취업을 위한 노력



[표4.20] 외국어 회화 학원 수강 여부

		예	p-값
전체		23.6%	
성별	남성	21.3%	0.064
	여성	25.8%	
학교유형	2~3년제	12.0%	0.000
	4년제	29.6%	
	교육대	0%	
학교소재권역	서울권	32.3%	0.001
	경기.강원권	21.8%	
	충청권	28.0%	
	경상권	19.7%	
	전라.제주권	17.6%	
전공계열	인문계열	37.2%	0.002
	사회계열	25.5%	
	교육계열	15.8%	
	공학계열	19.4%	
	자연계열	25.0%	
	의약계열	20.5%	
	예체능계열	16.7%	
부모님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20.4%	0.177
	100~200만원 미만	21.8%	
	200~300만원 미만	21.5%	
	300~400만원 미만	19.6%	
	400~500만원 미만	26.1%	
	500~700만원 미만	31.2%	
	700~1000만원 미만	26.9%	
	1000만원 이상	31.3%	
	소득없음	25.3%	
	안계심(사망)	7.4%	
	모름/무응답	0%	
부모님 자산규모	5천만 원 미만	22.5%	0.007
	5천만 원 ~ 1억 5천만 원 미만	20.5%	
	1억 5천만 원 ~ 3억 원 미만	20.3%	
	3억 원 ~ 5억 원 미만	33.0%	
	5억 원 ~ 10억 원 미만	23.1%	
	10억 원 이상	36.7%	
	안계심(사망)	7.8%	
	모름/무응답	0%	

구직중인 졸업자들은 23.6%가 취업을 위해 외국어 회화 학원을 수강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21.3%가 외국어 회화 학원을 수강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25.8%가 외국어 회화 학원을 수강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의수준 5%하에서 p -값이 0.064로 “성별에 따라 취업을 위해 외국어 회화 학원을 수강한 경험은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성별에 따라 취업을 위해 외국어 회화 학원을 수강한 경험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2~3년제의 경우 12.0%가 외국어 회화 학원을 수강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년제의 경우 29.6%가 외국어 회화 학원을 수강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대의 경우 0%가 외국어 회화 학원을 수강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수준 5%하에서 p -값이 0.000로 “학교 유형에 따라 취업을 위해 외국어 회화 학원을 수강한 경험은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근거가 충분하다. 따라서 학교 유형에 따라 취업을 위해 외국어 회화 학원을 수강한 경험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학교 소재 권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권의 경우 32.3%가 외국어 회화 학원을 수강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강원권의 경우 21.8%가 외국어 회화 학원을 수강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충청권의 경우 28.0%가 외국어 회화 학원을 수강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상권의 경우 19.7%가 외국어 회화 학원을 수강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라·제주권의 경우 17.6%가 외국어 회화 학원을 수강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수준 5%하에서 p -값이 0.000로 “학교 소재 권역에 따라 취업을 위해 외국어 회화 학원을 수강한 경험은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근거가 충분하다. 따라서 학교 소재 권역에 따라 취업을 위해 외국어 회화 학원을 수강한 경험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전공계열별로 살펴보면 인문계열의 경우 37.2%가 외국어 회화 학원을 수강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계열의 경우 25.5%가 외국어 회화 학원을 수강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계열의 경우 15.8%가 외국어 회화 학원을 수강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공학계열의 경우 19.4%가 외국어 회화 학원을 수강한 경험이 있는 것을 나타냈고, 자연계열의 경우 25.0%가 외국어 회화 학원을 수강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의약계열의 경우 20.5%가 외국어 회화 학원을 수강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예체능계열의 경우 16.7%가 외국어 회화 학원을 수강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수준 5%하에서 p -값이 0.000로 “전공계열에 따라 취업을 위해 외국어 회화 학원을 수강한 경험은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근거가 충분하다. 따라서 전공계열에 따라 취업을 위해 외국어 회화 학원을 수강한 경험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별로 살펴보면 100만원 미만의 경우 20.4%가 외국어 회화 학원을 수강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100~200만원 미만의 경우 21.8%가 외국어 회화 학원을 수강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200~300만원 미만의 경우 21.5%가 외국어 회화 학원을 수강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300~400만원 미만의 경우 19.6%가 외국어 회화 학원을 수강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400~500만원 미만의 경우 26.1%가 외국어 회화 학원을 수강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500~700만원 미만의 경우 31.2%가 외국어 회화 학원을 수강한 경험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고, 700~1000만원 미만의 경우 26.9%가 외국어 회화 학원을 수강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1000만원 이상의 경우 31.3%가 외국어 회화 학원을 수강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소득이 없는 경우 25.3%가 외국어 회화 학원을 수강한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님이 사망하신 경우 7.4%가 외국어 회화 학원을 수강한 것으로 나타났고, 모름/무응답의 경우 0%가 외국어 회화 학원을 수강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의수준 5%하에서 p-값이 0.177로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에 따라 취업을 위해 외국어 회화 학원을 수강한 경험은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근거가 충분하다. 따라서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에 따라 취업을 위해 외국어 회화 학원을 수강한 경험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해보면 구직중인 졸업자들은 23.6%가 취업을 위해 외국어 회화 학원을 수강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 부모님의 자산 규모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학교 유형, 학교 소재 권역, 전공계열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21] 토익, 토플 등 외국어 시험

		예	p-값
전체		37.3%	
성별	남성	36.9%	0.741
	여성	37.7%	
학교유형	2~3년제	10.9%	0.000
	4년제	50.8%	
	교육대	11.7%	
학교소재권역	서울권	56.0%	0.000
	경기.강원권	33.4%	
	충청권	36.4%	
	경상권	32.0%	
	전라.제주권	28.7%	
전공계열	인문계열	52.0%	0.000
	사회계열	39.2%	
	교육계열	27.6%	
	공학계열	40.0%	
	자연계열	44.4%	
	의약계열	18.7%	
	예체능계열	17.3%	
부모님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34.5%	0.006
	100~200만원 미만	30.7%	
	200~300만원 미만	37.1%	
	300~400만원 미만	36.9%	
	400~500만원 미만	39.1%	
	500~700만원 미만	41.2%	
	700~1000만원 미만	51.3%	
	1000만원 이상	40.6%	
	소득없음	32.6%	
	안계심(사망)	4.2%	
	모름/무응답	24.5%	
부모님 자산규모	5천만 원 미만	38.0%	0.000
	5천만 원 ~ 1억 5천만 원 미만	31.8%	
	1억 5천만 원 ~ 3억 원 미만	35.0%	
	3억 원 ~ 5억 원 미만	45.1%	
	5억 원 ~ 10억 원 미만	43.7%	
	10억 원 이상	51.6%	
	안계심(사망)	4.4%	
	모름/무응답	13.5%	

구직중인 졸업자들은 37.3%가 취업을 위해 토익, 토플 등 외국어 시험을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36.9%가 외국어 시험을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 37.7%가 외국어 시험을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의수준 5%하에서 p -값이 0.741로 “성별에 따라 취업을 위해 외국어 시험을 본 경험은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성별에 따라 취업을 위해 외국어 시험을 본 경험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2~3년제의 경우 10.9%가 외국어 시험을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년제의 경우 50.8%가 외국어 시험을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대의 경우 11.7%가 외국어 시험을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수준 5%하에서 p -값이 0.000로 “학교 유형에 따라 취업을 위해 외국어 시험을 본 경험은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근거가 충분하다. 따라서 학교 유형에 따라 취업을 위해 외국어 시험을 본 경험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학교 소재 권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권의 경우 56.0%가 외국어 시험을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강원권의 경우 33.4%가 외국어 시험을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충청권의 경우 36.4%가 외국어 시험을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상권의 경우 32.0%가 외국어 시험을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라·제주권의 경우 28.7%가 외국어 시험을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수준 5%하에서 p -값이 0.000로 “학교 소재 권역에 따라 취업을 위해 외국어 시험을 본 경험은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근거가 충분하다. 따라서 학교 소재 권역에 따라 취업을 위해 외국어 시험을 본 경험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전공계열별로 살펴보면 인문계열의 경우 52.0%가 외국어 시험을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계열의 경우 39.2%가 외국어 시험을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계열의 경우 27.6%가 외국어 시험을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학계열의 경우 40.0%가 외국어 시험을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연계열의 경우 44.4%가 외국어 시험을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약계열의 경우 18.7%가 외국어 시험을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체능계열의 경우 17.7%가 외국어 시험을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수준 5%하에서 p -값이 0.000로 “전공계열에 따라 취업을 위해 외국어 시험을 본 경험은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근거가 충분하다. 따라서 전공계열에 따라 취업을 위해 외국어 시험을 본 경험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별로 살펴보면 100만원 미만의 경우 34.5%가 외국어 시험을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00~200만원 미만의 경우 30.7%가 외국어 시험을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300만원 미만의 경우 37.1%가 외국어 시험을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00~400만원 미만의 경우 36.9%가 외국어 시험을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00~500만원 미만의 경우 39.1%가 외국어 시험을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00~700만원 미만의 경우 41.2%가 외국어 시험을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700~1000만원 미만의 경우 51.3%가 외국어 시험을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000만원 이상의 경우 40.6%가 외국어 시험을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이 없는 경우 32.6%가 외국어 시험을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님이 사망하신 경우 4.2%가 외국어 시험을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름/무응답의 경우 24.5%가 외국어 시험을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수준 5%하에서 p-값이 0.006로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에 따라 취업을 위해 외국어 시험을 본 경험은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근거가 충분하다. 따라서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에 따라 취업을 위해 외국어 시험을 본 경험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부모님의 자산 규모별로 살펴보면 5천만 원 미만의 경우 38.0%가 외국어 시험을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5천만 원 ~ 1억 5천만 원의 경우 31.8%가 외국어 시험을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1억 5천만 원 ~ 3억 원 미만의 경우 35.0%가 외국어 시험을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3억 원 ~ 5억 원 미만의 경우 45.1%가 외국어 시험을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5억 원 ~ 10억 원 미만의 경우 43.7%가 외국어 시험을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님이 사망하신 경우 4.4%가 외국어 시험을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모름/무응답의 경우 13.5%가 외국어 시험을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수준 5%하에서 p-값이 0.000로 “부모님의 자산 규모에 따라 취업을 위해 외국어 시험을 본 경험은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근거가 충분하다. 따라서 부모님의 자산 규모에 따라 취업을 위해 외국어 시험을 본 경험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해보면 구직중인 졸업자들은 37.3%가 취업을 위해 토익, 토플 등 외국어 시험을 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학교 유형, 학교 소재 권역, 전공 계열,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 부모님의 자산 규모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22] 면접 훈련 교육

		예	p-값
전체		23.7%	
성별	남성	26.3%	0.050
	여성	21.3%	
학교유형	2~3년제	19.3%	0.033
	4년제	25.9%	
	교육대	31.1%	
학교소재권역	서울권	26.6%	0.081
	경기.강원권	25.5%	
	충청권	25.2%	
	경상권	23.5%	
	전라.제주권	15.0%	
전공계열	인문계열	27.9%	0.015
	사회계열	26.4%	
	교육계열	23.5%	
	공학계열	25.4%	
	자연계열	24.4%	
	의약계열	18.4%	
	예체능계열	10.2%	
부모님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23.3%	0.18
	100~200만원 미만	20.4%	
	200~300만원 미만	25.3%	
	300~400만원 미만	26.5%	
	400~500만원 미만	22.2%	
	500~700만원 미만	28.3%	
	700~1000만원 미만	15.2%	
	1000만원 이상	19.0%	
	소득없음	22.4%	
	안계심(사망)	7.4%	
	모름/무응답	100%	
부모님 자산규모	5천만 원 미만	55.2%	0.232
	5천만 원 ~ 1억 5천만 원 미만	26.2%	
	1억 5천만 원 ~ 3억 원 미만	19.2%	
	3억 원 ~ 5억 원 미만	24.5%	
	5억 원 ~ 10억 원 미만	27.1%	
	10억 원 이상	23.8%	
	안계심(사망)	18.9%	
	모름/무응답	7.8%	

구직 중인 졸업자들은 23.7%가 취업을 위해 면접 훈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26.3%가 면접 훈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을 나타냈으며, 여성의 경우 21.3%가 면접 훈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의수준 5%하에서 p -값이 0.05로 “성별에 따라 취업을 위해 면접 훈련 교육을 받은 경험에는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는 취업을 위해 면접 훈련 교육을 받은 경험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2~3년제의 경우 19.3%가 면접 훈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년제 경우 25.9%가 면접 훈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대의 경우 31.1%가 면접 훈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수준 5%하에서 p -값이 0.033로 “학교 유형에 따라 취업을 위해 면접 훈련 교육을 받은 경험에는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근거가 충분하다. 따라서 학교 유형에 따라서는 취업을 위해 면접 훈련 교육을 받은 경험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학교 소재 권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권의 경우 26.6%가 면접 훈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강원권의 경우 25.5%가 면접 훈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충청권의 경우 25.2%가 면접 훈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상권의 경우 23.5%가 면접 훈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라·제주권의 경우 15.0%가 면접 훈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의수준 5%하에서 p -값이 0.081로 “학교 소재 권역에 따라 취업을 위해 면접 훈련 교육을 받은 경험에는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학교 소재 권역에 따라서는 취업을 위해 면접 훈련 교육을 받은 경험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전공계열별로 살펴보면 인문계열의 경우 27.9%가 면접 훈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계열의 경우 26.4%가 면접 훈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계열의 경우 23.5%가 면접 훈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학계열의 경우 25.4%가 면접 훈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연계열의 경우 24.4%가 면접 훈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약계열의 경우 18.4%가 면접 훈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체능계열의 경우 10.2%가 면접 훈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수준 5%하에서 p -값이 0.0015로 “전공계열에 따라 취업을 위해 면접 훈련 교육을 받은 경험에는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근거가 충분하다. 따라서 전공계열에 따라서는 취업을 위해 면접 훈련 교육을 받은 경험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별로 살펴보면 100만원 미만의 경우 23.3%가 면접 훈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00~200만원 미만의 경우 20.4%가 면접 훈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300만원 미만의 경우 25.3%가 면접 훈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00~400만원 미만의 경우 26.5%가 면접 훈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00~500만원 미만의 경우 22.2%가 면접 훈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00~700만원 미만의 경우 28.3%가 면접 훈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700~1000만원 미만의 경우 15.2%가 면접 훈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000만원 이상의 경우 19.0%가 면접 훈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이

없는 경우 22.4%가 면접 훈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님이 사망하신 경우 7.4%가 면접 훈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름/무응답의 경우 100%가 면접 훈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의수준 5%하에서 p-값이 0.18로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에 따라 취업을 위해 면접 훈련 교육을 받은 경험에는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에 따라서는 취업을 위해 면접 훈련 교육을 받은 경험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부모님의 자산 규모별로 살펴보면 5천만 원 미만의 경우 55.2%가 면접 훈련 교육을 받았으며, 5천만 원 ~ 1억 5천만 원 미만의 경우 26.2%가 면접 훈련 교육을 받았으며, 1억 5천만 원 ~ 3억 원 미만의 경우 19.2%가 면접 훈련 교육을 받았으며, 3억 원 ~ 5억 원 미만의 경우 24.5%가 면접 훈련 교육을 받았으며, 5억 원 ~ 10억 원 미만의 경우 27.1%가 면접 훈련 교육을 받았으며, 10억 원 이상의 경우 23.8%가 면접 훈련 교육을 받았으며, 부모님이 사망하신 경우 18.9%가 면접 훈련 교육을 받았으며, 모름/무응답의 경우 7.8%가 면접 훈련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의수준 5%하에서 p-값이 0.232로 “부모님의 자산 규모에 따라 취업을 위해 면접 훈련 교육을 받은 경험에는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부모님의 자산 규모에 따라서는 취업을 위해 면접 훈련 교육을 받은 경험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해보면 구직 중인 졸업자들은 23.7%가 취업을 위해 면접 훈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학교 소재 권역,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 부모님의 자산 규모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학교 유형, 전공계열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4.23] IT, 컴퓨터관련 교육

		예	p-값
전체		33.9%	
성별	남성	33.9%	0.959
	여성	33.8%	
학교유형	2~3년제	27.3%	0.001
	4년제	37.3%	
	교육대	11.7%	
학교소재권역	서울권	39.4%	0.000
	경기.강원권	40.7%	
	충청권	40.1%	
	경상권	27.3%	
	전라.제주권	21.2%	
전공계열	인문계열	36.7%	0.003
	사회계열	35.7%	
	교육계열	24.2%	
	공학계열	39.1%	
	자연계열	30.6%	
	의약계열	12.9%	
	예체능계열	31.7%	
부모님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20.0%	0.437
	100~200만원 미만	33.2%	
	200~300만원 미만	32.5%	
	300~400만원 미만	34.9%	
	400~500만원 미만	34.3%	
	500~700만원 미만	35.4%	
	700~1000만원 미만	35.1%	
	1000만원 이상	22.0%	
	소득없음	42.8%	
	안계심(사망)	39.6%	
	모름/무응답	100.0%	
부모님 자산규모	5천만 원 미만	37.8%	0.625
	5천만 원 ~ 1억 5천만 원 미만	29.0%	
	1억 5천만 원 ~ 3억 원 미만	34.5%	
	3억 원 ~ 5억 원 미만	34.2%	
	5억 원 ~ 10억 원 미만	33.9%	
	10억 원 이상	31.9%	
	안계심(사망)	42.0%	
	모름/무응답	55.2%	

구직 중인 졸업자들은 취업을 위해 IT, 컴퓨터관련 교육을 33.9%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33.9%가 컴퓨터 교육을 받았으며, 여성의 경우 33.8%가 컴퓨터 교육을 받았다. 그러나 유의수준 5%하에서 p -값이 0.959로 “성별에 따라 취업을 위해 IT, 컴퓨터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에는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는 취업을 위해 IT, 컴퓨터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2~3년제의 경우 27.3%가 컴퓨터 교육을 받았으며, 4년제의 경우 37.3%가 컴퓨터 교육을 받았으며, 교육대의 경우 11.7%가 컴퓨터 교육을 받았다. 유의수준 5%하에서 p -값이 0.001로 “학교 유형에 따라 취업을 위해 IT, 컴퓨터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에는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근거가 충분하다. 따라서 학교 유형에 따라서는 취업을 위해 IT, 컴퓨터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학교 소재 권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권의 경우 39.4%가 컴퓨터 교육을 받았으며, 경기·강원권의 경우 40.7%가 컴퓨터 교육을 받았으며, 충청권의 40.1%가 컴퓨터 교육을 받았으며, 경상권의 경우 27.3%가 컴퓨터 교육을 받았으며, 전라·제주권의 경우 21.2%가 컴퓨터 교육을 받았다. 유의수준 5%하에서 p -값이 0.000로 “학교 소재 권역에 따라 취업을 위해 IT, 컴퓨터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에는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근거가 충분하다. 따라서 학교 소재 권역에 따라서는 취업을 위해 IT, 컴퓨터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전공계열별로 살펴보면 인문계열의 경우 36.7%가 컴퓨터 교육을 받았으며, 사회계열의 경우 35.7%가 컴퓨터 교육을 받았으며, 교육계열의 경우 24.2%가 컴퓨터 교육을 받았으며, 공학계열의 경우 39.1%가 컴퓨터 교육을 받았으며, 자연계열의 경우 30.6%가 컴퓨터 교육을 받았으며, 의약계열의 경우 12.9%가 컴퓨터 교육을 받았으며, 예체능계열의 경우 31.7%가 컴퓨터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수준 5%하에서 p -값이 0.003로 “전공계열에 따라 취업을 위해 IT, 컴퓨터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에는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근거가 충분하다. 따라서 전공계열에 따라서는 취업을 위해 IT, 컴퓨터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별로 살펴보면 100만원 미만의 경우 20.0%가 컴퓨터 교육을 받았으며, 100~200만원 미만의 경우 33.2%가 컴퓨터 교육을 받았으며, 200~300만원 미만의 경우 32.5%가 컴퓨터 교육을 받았으며, 300~400만원 미만의 경우 34.9%가 컴퓨터 교육을 받았으며, 400~500만원 미만의 경우 34.3%가 컴퓨터 교육을 받았으며, 500~700만원 미만의 경우 35.4%가 컴퓨터 교육을 받았으며, 700~1000만원 미만의 경우 35.1%가 컴퓨터 교육을 받았으며, 1000만원 이상의 경우 22.0%가 컴퓨터 교육을 받았으며, 소득이 없는 경우 42.8%가 컴퓨터 교육을 받았으며, 부모님이 사망하신 경우 39.6%가 컴퓨터 교육을 받았으며, 모름/무응답의 경우 100%가 컴퓨터 교육을 받았다. 그러나 유의수준 5%하에서 p -값이 0.437로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에 따라 취업을 위해 IT, 컴퓨터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에는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에 따라서는 취업을 위해 IT, 컴퓨터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부모님의 자산 규모별로 살펴보면 5천만 원 미만의 경우 37.8%가 컴퓨터 교육을 받았으며, 5천만 원 ~ 1억 5천만 원의 경우 29.0%가 컴퓨터 교육을 받았으며, 1억 5천만 원 ~ 3억 원 미만

의 경우 34.5%가 컴퓨터 교육을 받았으며, 3억 원 ~ 5억 원 미만의 경우 34.2%가 컴퓨터 교육을 받았으며, 5억 원 ~ 10억 원 미만의 경우 33.9%가 컴퓨터 교육을 받았으며, 10억 원 이상의 경우 31.9%가 컴퓨터 교육을 받았으며, 부모님이 사망하신 경우 42.0%가 컴퓨터 교육을 받았으며, 모름/무응답의 경우 55.2%가 컴퓨터 교육을 받았다. 그러나 유의수준 5%하에서 p-값이 0.625로 “부모님의 자산 규모에 따라 취업을 위해 IT, 컴퓨터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에는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부모님의 자산 규모에 따라서는 취업을 위해 IT, 컴퓨터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해보면 구직 중인 졸업자들은 취업을 위해 IT, 컴퓨터관련 교육을 33.9%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 부모님의 자산 규모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학교 유형, 학교 소재 권역, 전공계열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4.24] 공공취업알선기관 구직등록 또는 상담원 상담

		예	p-값
전체		36.1%	
성별	남성	35.6%	0.720
	여성	36.6%	
학교유형	2~3년제	34.7%	0.667
	4년제	36.8%	
	교육대	31.1%	
학교소재권역	서울권	35.2%	0.074
	경기.강원권	37.8%	
	충청권	36.5%	
	경상권	39.7%	
	전라.제주권	26.2%	
전공계열	인문계열	40.6%	0.230
	사회계열	39.0%	
	교육계열	28.2%	
	공학계열	34.0%	
	자연계열	37.7%	
	의약계열	24.8%	
	예체능계열	34.9%	
부모님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42.0%	0.299
	100~200만원 미만	39.3%	
	200~300만원 미만	38.9%	
	300~400만원 미만	36.1%	
	400~500만원 미만	30.7%	
	500~700만원 미만	37.1%	
	700~1000만원 미만	29.3%	
	1000만원 이상	28.6%	
	소득없음	49.8%	
	안계심(사망)	39.4%	
	모름/무응답	100.0%	
부모님 자산규모	5천만 원 미만	48.4%	0.001
	5천만 원 ~ 1억 5천만 원 미만	32.7%	
	1억 5천만 원 ~ 3억 원 미만	38.0%	
	3억 원 ~ 5억 원 미만	32.4%	
	5억 원 ~ 10억 원 미만	26.0%	
	10억 원 이상	24.9%	
	안계심(사망)	35.8%	
	모름/무응답	100.0%	

구직 중인 졸업자들은 취업을 위해 공공취업알선기관 구직등록 또는 상담원 상담을 36.1%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35.6%가 상담을 받았으며, 여성의 경우 36.6%가 상담을 받았다. 그러나 유의수준 5%하에서 p -값이 0.72로 “성별에 따라 취업을 위해 공공취업알선기관 구직등록 또는 상담원 상담을 받은 경험에는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가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성별에 따라 취업을 위해 공공취업알선기관 구직등록 또는 상담원 상담을 받은 경험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2~3년제의 경우 34.7%가 상담을 받았으며, 4년제의 경우 36.8%가 상담을 받았으며, 교육대의 경우 31.1%가 상담을 받았다. 그러나 유의수준 5%하에서 p -값이 0.667로 “학교 유형에 따라 취업을 위해 공공취업알선기관 구직등록 또는 상담원 상담을 받은 경험에는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가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학교 유형에 따라 취업을 위해 공공취업알선기관 구직등록 또는 상담원 상담을 받은 경험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학교 소재 권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권의 경우 35.2%가 상담을 받았고, 경기·강원권은 37.8%가 상담을 받았고, 충청권은 36.5%가 상담을 받았고, 경상권은 39.7%가 상담을 받았고, 전라·제주권은 26.2%가 상담을 받았다. 그러나 유의수준 5%하에서 p -값이 0.074로 “학교 소재 권역에 따라 취업을 위해 공공취업알선기관 구직등록 또는 상담원 상담을 받은 경험에는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가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학교 유형에 따라 취업을 위해 공공취업알선기관 구직등록 또는 상담원 상담을 받은 경험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전공계열별로 살펴보면 인문계열은 40.6%가 상담을 받았고, 사회계열은 39.0%가 상담을 받았고, 교육계열은 28.2%가 상담을 받았고, 공학계열은 34.0%가 상담을 받았고, 자연계열은 37.7%가 상담을 받았고, 의약계열은 24.8%가 상담을 받았고, 예체능계열은 34.9%가 상담을 받았다. 그러나 유의수준 5%하에서 p -값이 0.23로 “전공계열에 따라 취업을 위해 공공취업알선기관 구직등록 또는 상담원 상담을 받은 경험에는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가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전공계열에 따라 취업을 위해 공공취업알선기관 구직등록 또는 상담원 상담을 받은 경험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별로 살펴보면 100만원 미만의 경우 42.0%가 상담을 받았고, 100~200만원 미만의 경우 39.3%가 상담을 받았고, 200~300만원 미만의 경우 38.9%가 상담을 받았고, 300~400만원 미만의 경우 36.1%가 상담을 받았고, 400~500만원 미만의 경우 30.7%가 상담을 받았고, 500~700만원 미만의 경우 37.1%가 상담을 받았고, 700~1000만원 미만의 경우 29.3%가 상담을 받았고, 1000만원 이상의 경우 28.6%가 상담을 받았고, 소득이 없는 경우 49.8%가 상담을 받았고, 부모님이 사망하신 경우 39.4%가 상담을 받았고, 모름/무응답의 경우 100%가 상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의수준 5%하에서 p -값이 0.229로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에 따라 취업을 위해 공공취업알선기관 구직등록 또는 상담원 상담을 받은 경험에는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가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에 따라 취업을 위해 공공취업알선기관 구직등록 또는 상담원 상담을 받은 경험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부모님의 자산 규모별로 살펴보면 5천만 원 미만의 경우 48.4%가 상담을 받았고, 5천만 원

~ 1억 5천만 원 미만의 경우 32.7%가 상담을 받았고, 1억 5천만 원 ~ 3억 원 미만의 경우 38.0%가 상담을 받았고, 3억 원 ~ 5억 원 미만의 경우 32.4%가 상담을 받았고, 5억 원 ~ 10억 원 미만의 경우 26.0%가 상담을 받았고, 10억 원 이상의 경우 24.9%가 상담을 받았고, 부모님이 사망하신 경우 35.8%가 상담을 받았고, 모름/무응답의 경우 100%가 상담을 받았다. 유의수준 5%하에서 p-값이 0.001로 “부모님의 자산 규모에 따라 취업을 위해 공공취업알선기관 구직등록 또는 상담원 상담을 받은 경험에는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부모님의 자산 규모에 따라 취업을 위해 공공취업알선기관 구직등록 또는 상담원 상담을 받은 경험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해보면 구직 중인 졸업자들은 취업을 위해 공공취업알선기관 구직등록 또는 상담원 상담을 36.1%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학교 유형, 학교 소재 권역, 전공계열,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부모님의 자산 규모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4.25] 취업박람회 참여

		예	p-값
전체		29.0%	
성별	남성	34.5%	0.000
	여성	23.8%	
학교유형	2~3년제	21.9%	0.000
	4년제	32.7%	
	교육대	0%	
학교소재권역	서울권	35.6%	0.010
	경기.강원권	29.7%	
	충청권	29.2%	
	경상권	28.5%	
	전라.제주권	18.9%	
전공계열	인문계열	32.6%	0.000
	사회계열	29.2%	
	교육계열	9.5%	
	공학계열	35.0%	
	자연계열	35.1%	
	의약계열	14.8%	
	예체능계열	19.2%	
부모님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45.4%	0.255
	100~200만원 미만	27.9%	
	200~300만원 미만	31.7%	
	300~400만원 미만	26.0%	
	400~500만원 미만	27.9%	
	500~700만원 미만	30.4%	
	700~1000만원 미만	32.1%	
	1000만원 이상	21.8%	
	소득없음	35.8%	
	안계심(사망)	15.8%	
	모름/무응답	75.5%	
부모님 자산규모	5천만 원 미만	35.0%	0.240
	5천만 원 ~ 1억 5천만 원 미만	24.5%	
	1억 5천만 원 ~ 3억 원 미만	29.2%	
	3억 원 ~ 5억 원 미만	30.7%	
	5억 원 ~ 10억 원 미만	30.1%	
	10억 원 이상	19.1%	
	안계심(사망)	16.8%	
	모름/무응답	41.7%	

구직 중인 졸업자들은 29.0%가 취업을 위해 취업박람회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34.5%가 참여했고, 여성의 경우 23.8%가 참여했다. 유의수준 5%하에서 p-값이 0.000로 “성별에 따라 취업을 위해 취업박람회에 참여한 경험에는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근거가 충분하다.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는 취업을 위해 취업박람회에 참여하는 경험에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다.

이를 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2~3년제의 경우 21.9%가 참여했고, 4년제의 경우 32.7%가 참여했고, 교육대의 경우 0%가 참여했다. 유의수준 5%하에서 p-값이 0.000로 “학교 유형에 따라 취업을 위해 취업박람회에 참여한 경험에는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근거가 충분하다. 따라서 학교 유형에 따라서는 취업을 위해 취업박람회에 참여하는 경험에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다.

이를 학교 소재 권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권의 경우 35.6%가 참여했고, 경기·강원권은 29.7%가 참여했고, 충청권은 29.2%가 참여했고, 경상권은 28.5%가 참여했고, 전라·제주권은 18.9%가 참여했다. 유의수준 5%하에서 p-값이 0.001로 “학교 소재 권역에 따라 취업을 위해 취업박람회에 참여한 경험에는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근거가 충분하다. 따라서 학교 소재 권역에 따라서는 취업을 위해 취업박람회에 참여하는 경험에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다.

이를 전공계열별로 살펴보면 인문계열의 경우 32.6%가 참여했고, 사회계열의 경우 29.2%가 참여했고, 교육계열의 경우 9.5%가 참여했고, 공학계열의 경우 35.0%가 참여했고, 자연계열의 경우 35.1%가 참여했고, 의약계열의 경우 14.8%가 참여했고, 예체능계열의 경우 19.2%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수준 5%하에서 p-값이 0.000로 “전공계열에 따라 취업을 위해 취업박람회에 참여한 경험에는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근거가 충분하다. 따라서 전공계열에 따라서는 취업을 위해 취업박람회에 참여하는 경험에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다.

이를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별로 살펴보면 100만원 미만의 경우 45.4%가 참여했고, 100~200만원 미만의 경우 27.9%가 참여했고, 200~300만원 미만의 경우 31.7%가 참여했고, 300~400만원 미만의 경우 26.0%가 참여했고, 400~500만원 미만의 경우 27.9%가 참여했고, 500~700만원 미만의 경우 30.4%가 참여했고, 700~1000만원 미만의 경우 32.1%가 참여했고, 1000만원 이상의 경우 21.8%가 참여했고, 소득이 없는 경우 35.8%가 참여했고, 부모님이 사망하신 경우 15.8%가 참여했고, 모름/무응답의 경우 75.5%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의수준 5%하에서 p-값이 0.255로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에 따라 취업을 위해 취업박람회에 참여한 경험에는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에 따라서는 취업을 위해 취업박람회에 참여하는 경험에 차이가 없다고 나타났다.

이를 부모님의 자산 규모별로 살펴보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35.0%가 참여했고, 5천만 원 ~ 1억 5천만 원 미만의 경우 24.5%가 참여했고, 1억 5천만 원 ~ 3억 원 미만의 경우 29.2%가 참여했고, 3억 원 ~ 5억 원 미만의 경우 30.7%가 참여했고, 5억 원 ~ 10억 원 미만의 경우 30.1%가 참여했고, 10억 원 이상의 경우 19.1%가 참여했고, 부모님이 사망하신 경우 16.8%가 참여했고, 모름/무응답의 경우 41.7%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의수준 5%하에서 p-값이 0.24로 “부모님의 자산 규모에 따라 취업을 위해 취업박람회에 참여한 경험에는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부모님의 자산 규모에 따라서는 취업을 위해 취업박람회에 참여

하는 경험에 차이가 없다고 나타났다.

종합해보면 구직 중인 졸업자들은 29.0%가 취업을 위해 취업박람회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학교 유형, 학교 소재 권역, 전공계열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지만, 부모님의 월 평균 소득과 부모님의 자산 규모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표4.26] 구직정보를 민간취업알선 인터넷에 등록

		예	p-값
전체		58.7%	
성별	남성	60.9%	0.144
	여성	56.7%	
학교유형	2~3년제	60.4%	0.114
	4년제	58.0%	
	교육대	11.7%	
학교소재권역	서울권	60.0%	0.002
	경기.강원권	65.6%	
	충청권	52.4%	
	경상권	51.9%	
	전라.제주권	58.7%	
전공계열	인문계열	59.2%	0.009
	사회계열	54.9%	
	교육계열	46.8%	
	공학계열	63.1%	
	자연계열	61.5%	
	의약계열	46.2%	
	예체능계열	67.4%	
부모님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48.1%	0.014
	100~200만원 미만	57.8%	
	200~300만원 미만	69.3%	
	300~400만원 미만	60.8%	
	400~500만원 미만	51.1%	
	500~700만원 미만	59.7%	
	700~1000만원 미만	50.3%	
	1000만원 이상	52.6%	
	소득없음	58.6%	
	안계심(사망)	45.6%	
	모름/무응답	100.0%	
부모님 자산규모	5천만 원 미만	67.2%	0.016
	5천만 원 ~ 1억 5천만 원 미만	54.7%	
	1억 5천만 원 ~ 3억 원 미만	62.6%	
	3억 원 ~ 5억 원 미만	55.5%	
	5억 원 ~ 10억 원 미만	50.4%	
	10억 원 이상	55.7%	
	안계심(사망)	42.4%	
	모름/무응답	58.7%	

구직 중인 졸업자들은 58.7%가 취업을 위해 구직정보를 민간취업알선 인터넷에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60.9%가 등록했으며, 여성의 경우 56.7%가 등록하였다. 그러나 유의수준 5%하에서 p -값이 0.144로 “성별에 따라 취업을 위해 구직정보를 민간취업알선 인터넷에 등록한 것에는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성별에 따라 취업을 위해 구직정보를 민간취업알선 인터넷에 등록한 것에는 차이가 없다고 나타났다.

이를 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2~3년제의 경우 60.4%가 등록했으며, 4년제의 경우 58.0%가 등록했으며, 교육대의 경우 11.7%가 등록했다. 그러나 유의수준 5%하에서 p -값이 0.144로 “학교 유형에 따라 취업을 위해 구직정보를 민간취업알선 인터넷에 등록한 것에는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학교 유형에 따라 취업을 위해 구직정보를 민간취업알선 인터넷에 등록한 것에는 차이가 없다고 나타났다.

이를 학교 소재 권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권은 60.0%가 등록했고, 경기·강원권은 65.6%가 등록했고, 충청권은 52.4%가 등록했고, 경상권은 51.9%가 등록했고, 전라·제주권은 58.7%가 등록했다. 유의수준 5%하에서 p -값이 0.002로 “학교 소재 권역에 따라 취업을 위해 구직정보를 민간취업알선 인터넷에 등록한 것에는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근거가 충분하다. 따라서 학교 소재 권역에 따라 취업을 위해 구직정보를 민간취업알선 인터넷에 등록한 것에는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다.

이를 전공계열별로 살펴보면 인문계열은 59.2%가 등록했고, 사회계열은 54.9%가 등록했고, 교육계열은 46.8%가 등록했고, 공학계열은 63.1%가 등록했고, 자연계열은 61.5%가 등록했고, 의약계열은 46.2%가 등록했고, 예체능계열은 67.4%가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수준 5%하에서 p -값이 0.009로 “전공계열에 따라 취업을 위해 구직정보를 민간취업알선 인터넷에 등록한 것에는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근거가 충분하다. 따라서 전공계열에 따라 취업을 위해 구직정보를 민간취업알선 인터넷에 등록한 것에는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다.

이를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별로 살펴보면 100만원 미만의 경우 48.1%가 등록했고, 100~200만원 미만의 경우 57.8%가 등록했고, 200~300만원 미만의 경우 69.3%가 등록했고, 300~400만원 미만의 경우 60.8%가 등록했고, 400~500만원 미만의 경우 51.1%가 등록했고, 500~700만원 미만의 경우 59.7%가 등록했고, 700~1000만원 미만의 경우 50.3%가 등록했고, 1000만원 이상의 경우 52.6%가 등록했고, 소득이 없는 경우 58.6%가 등록했고, 부모님이 사망하신 경우 45.6%가 등록했고, 모름/무응답의 경우 100%가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수준 5%하에서 p -값이 0.014로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에 따라 취업을 위해 구직정보를 민간취업알선 인터넷에 등록한 것에는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근거가 충분하다. 따라서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에 따라 취업을 위해 구직정보를 민간취업알선 인터넷에 등록한 것에는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다.

이를 부모님의 자산 규모별로 살펴보면 5천만 원 미만의 경우 67.2%가 등록했고, 5천만 원 ~ 1억 5천만 원 미만의 경우 54.7%가 등록했고, 1억 5천만 원 ~ 3억 원 미만의 경우 62.6%가 등록했고, 3억 원 ~ 5억 원 미만의 경우 55.5%가 등록했고, 5억 원 ~ 10억 원 미만의 경우 50.4%가 등록했고, 10억 원 이상의 경우 55.7%가 등록했고, 부모님이 사망하신 경우 42.4%가 등록했고, 모름/무

응답의 경우 58.7%가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수준 5%하에서 p -값이 0.016로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에 따라 취업을 위해 구직정보를 민간취업알선 인터넷에 등록한 것에는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근거가 충분하다. 따라서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에 따라 취업을 위해 구직정보를 민간취업알선 인터넷에 등록한 것에는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다.

종합해보면 구직 중인 졸업자들은 58.7%가 취업을 위해 구직정보를 민간취업알선 인터넷에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학교 유형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학교 소재 권역, 전공 계열,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 부모님의 자산 규모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27] 친인척, 친구, 교수 등에게 취업 부탁

		예	p-값
전체		35.2%	
성별	남성	38.5%	0.019
	여성	32.0%	
학교유형	2~3년제	47.5%	0.000
	4년제	29.1%	
	교육대	19.4%	
학교소재권역	서울권	24.4%	0.000
	경기.강원권	37.0%	
	충청권	33.7%	
	경상권	36.9%	
	전라.제주권	46.2%	
전공계열	인문계열	26.1%	0.050
	사회계열	34.4%	
	교육계열	31.4%	
	공학계열	34.3%	
	자연계열	37.5%	
	의약계열	48.7%	
	예체능계열	35.2%	
부모님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43.1%	0.017
	100~200만원 미만	28.5%	
	200~300만원 미만	30.7%	
	300~400만원 미만	31.5%	
	400~500만원 미만	39.2%	
	500~700만원 미만	39.6%	
	700~1000만원 미만	36.2%	
	1000만원 이상	38.8%	
	소득없음	40.3%	
	안계심(사망)	66.9%	
	모름/무응답	24.5%	
부모님 자산규모	5천만 원 미만	34.0%	0.041
	5천만 원 ~ 1억 5천만 원 미만	35.4%	
	1억 5천만 원 ~ 3억 원 미만	34.6%	
	3억 원 ~ 5억 원 미만	33.9%	
	5억 원 ~ 10억 원 미만	33.6%	
	10억 원 이상	39.2%	
	안계심(사망)	70.8%	
	모름/무응답	13.5%	

구직 중인 졸업자들은 35.2%가 취업을 위해 친인척, 친구, 교수 등에게 취업 부탁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38.5%가 부탁했으며, 여성의 경우 32.0%가 부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수준 5%하에서 p -값이 0.019로 “성별에 따라 취업을 위해 친인척, 친구, 교수 등에게 취업 부탁한 경험에는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근거가 충분하다. 따라서 성별에 따라 취업을 위해 친인척, 친구, 교수 등에게 취업 부탁한 경험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2~3년제의 경우 47.5%가 부탁했으며, 4년제의 경우 29.1%가 부탁했으며, 교육대의 경우 19.4%가 부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수준 5%하에서 p -값이 0.000로 “학교 유형에 따라 취업을 위해 친인척, 친구, 교수 등에게 취업 부탁한 경험에는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근거가 충분하다. 따라서 학교 유형에 따라 취업을 위해 친인척, 친구, 교수 등에게 취업 부탁한 경험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학교 소재 권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권의 경우 24.4%가 부탁했으며, 경기·강원권은 37.0%가 부탁했으며, 충청권의 경우 33.7%가 부탁했으며, 경상권의 경우 36.9%가 부탁했으며, 전라·제주권의 경우 46.2%가 부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수준 5%하에서 p -값이 0.000로 “학교 소재 권역에 따라 취업을 위해 친인척, 친구, 교수 등에게 취업 부탁한 경험에는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근거가 충분하다. 따라서 학교 소재 권역에 따라 취업을 위해 친인척, 친구, 교수 등에게 취업 부탁한 경험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전공계열별로 살펴보면 인문계열의 경우 26.1%가 부탁했으며, 사회계열의 경우 34.4%가 부탁했으며, 교육계열의 경우 31.4%가 부탁했으며, 공학계열의 경우 34.3%가 부탁했으며, 자연계열의 경우 37.5%가 부탁했으며, 의약계열의 경우 48.7%가 부탁했으며, 예체능계열의 경우 35.2%가 부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의수준 5%하에서 p -값이 0.05로 “전공계열에 따라 취업을 위해 친인척, 친구, 교수 등에게 취업 부탁한 경험에는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전공계열에 따라 취업을 위해 친인척, 친구, 교수 등에게 취업 부탁한 경험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별로 살펴보면 100만원 미만의 경우 43.1%가 부탁했고, 100~200만원 미만의 경우 28.5%가 부탁했고, 200~300만원 미만의 경우 30.7%가 부탁했고, 300~400만원 미만의 경우 31.5%가 부탁했고, 400~500만원 미만의 경우 39.2%가 부탁했고, 500~700만원 미만의 경우 39.6%가 부탁했고, 700~1000만원 미만의 경우 36.2%가 부탁했고, 1000만원 이상의 경우 38.8%가 부탁했고, 소득이 없는 경우 40.3%가 부탁했고, 부모님이 사망하신 경우 66.9%가 부탁했고, 모름/무응답의 경우 24.5%가 부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수준 5%하에서 p -값이 0.017로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에 따라 취업을 위해 친인척, 친구, 교수 등에게 취업 부탁한 경험에는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근거가 충분하다. 따라서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에 따라 취업을 위해 친인척, 친구, 교수 등에게 취업 부탁한 경험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부모님의 자산 규모별로 살펴보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34.0%가 부탁했고, 5천만 원 ~ 1억 5천만 원 미만의 경우 35.4%가 부탁했고, 1억 5천만 원 ~ 3억 원 미만의 경우 34.6%가 부탁했고, 3억 원 ~ 5억 원 미만의 경우 33.9%가 부탁했고, 5억 원 ~ 10억 원 미만의 경우 33.6%가 부탁했

고, 10억 원 이상인 경우 39.2%가 부탁했고, 부모님이 사망하신 경우 70.8%가 부탁했고, 모름/무응답인 경우 13.5%가 부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수준 5%하에서 p-값이 0.041로 “부모님의 자산 규모에 따라 취업을 위해 친인척, 친구, 교수 등에게 취업 부탁한 경험에는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근거가 충분하다. 따라서 부모님의 자산 규모에 따라 취업을 위해 친인척, 친구, 교수 등에게 취업 부탁한 경험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해보면 구직 중인 졸업자들은 35.2%가 취업을 위해 친인척, 친구, 교수 등에게 취업 부탁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전공계열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학교 유형, 학교 소재 권역,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 부모님의 자산 규모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4.28] 자격증 취득

		예	p-값
전체		56.8%	
성별	남성	55.8%	0.499
	여성	57.7%	
학교유형	2~3년제	48.0%	0.000
	4년제	61.0%	
	교육대	100.0%	
학교소재권역	서울권	60.6%	0.365
	경기.강원권	56.1%	
	충청권	56.2%	
	경상권	57.9%	
	전라.제주권	50.3%	
전공계열	인문계열	61.4%	0.000
	사회계열	61.3%	
	교육계열	64.6%	
	공학계열	58.8%	
	자연계열	60.2%	
	의약계열	43.3%	
	예체능계열	36.1%	
부모님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58.4%	0.389
	100~200만원 미만	57.2%	
	200~300만원 미만	61.4%	
	300~400만원 미만	51.7%	
	400~500만원 미만	58.2%	
	500~700만원 미만	59.4%	
	700~1000만원 미만	44.9%	
	1000만원 이상	59.4%	
	소득없음	60.1%	
	안계심(사망)	56.5%	
	모름/무응답	56.8%	
부모님 자산규모	5천만 원 미만	60.4%	0.293
	5천만 원 ~ 1억 5천만 원 미만	56.6%	
	1억 5천만 원 ~ 3억 원 미만	52.8%	
	3억 원 ~ 5억 원 미만	56.5%	
	5억 원 ~ 10억 원 미만	65.6%	
	10억 원 이상	52.0%	
	안계심(사망)	53.9%	
	모름/무응답	100.0%	

구직 중인 졸업자들은 56.8%가 취업을 위해 자격증 취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55.8%가 취득했고, 여성의 경우 57.7%가 취득했다. 그러나 유의수준 5%하에서 p -값이 0.499로 “성별에 따라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에는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성별에 따라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2~3년제의 경우 48.0%가 취득했고, 4년제의 경우 61.0%가 취득했고, 교육대의 경우 100%가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수준 5%하에서 p -값이 0.000로 “학교 유형에 따라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에는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근거가 충분하다. 따라서 성별에 따라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학교 소재 권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권원 경우 60.6%가 취득했고, 경기·강원권의 경우 56.1%가 취득했고, 충청권의 경우 56.2%가 취득했고, 경상권의 경우 57.9%가 취득했고, 전라·제주권의 경우 50.3%가 취득했다. 그러나 유의수준 5%하에서 p -값이 0.365로 “학교 소재 권역에 따라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에는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학교 소재 권역에 따라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전공계열별로 살펴보면 인문계열은 61.4%가 취득했고, 사회계열은 61.3%가 취득했고, 교육계열은 64.6%가 취득했고, 공학계열은 58.8%가 취득했고, 자연계열은 60.2%가 취득했고, 의약계열은 43.3%가 취득했고, 예체능계열은 36.1%가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수준 5%하에서 p -값이 0.000로 “전공계열에 따라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에는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근거가 충분하다. 따라서 전공계열에 따라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별로 살펴보면 100만원 미만의 경우 58.4%가 취득했고, 100~200만원 미만의 경우 57.2%가 취득했고, 200~300만원 미만의 경우 61.4%가 취득했고, 300~400만원 미만의 경우 51.7%가 취득했고, 400~500만원 미만의 경우 58.2%가 취득했고, 500~700만원 미만의 경우 59.4%가 취득했고, 700~1000만원 미만의 경우 44.9%가 취득했고, 1000만원 이상인 경우 59.4%가 취득했고, 소득이 없는 경우 60.1%가 취득했고, 사망하신 경우 56.5%가 취득했고, 모름/무응답의 경우 56.8%가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의수준 5%하에서 p -값이 0.389로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에 따라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에는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에 따라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부모님의 자산 규모별로 살펴보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60.4%가 취득했고, 5천만 원 ~ 1억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56.6%가 취득했고, 1억 5천만 원 ~ 3억 원 미만의 경우 52.8%가 취득했고, 3억 원 ~ 5억 원 미만인 경우 56.5%가 취득했고, 5억 원 ~ 10억 원 미만의 경우 65.6%가 취득했고, 10억 원 이상의 경우 52.0%가 취득했고, 부모님이 사망하신 경우 53.9%가 취득했고, 모름/무응답의 경우 100%가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의수준 5%하에서 p -값이 0.293로 “부모님의 자산 규모에 따라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에는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부모님의 자산 규모에 따라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해보면 구직 중인 졸업자들은 56.8%가 취업을 위해 자격증 취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학교 소재 권역,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 부모님의 자산 규모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학교 유형, 전공계열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29] 헤드헌터(서치 컨설턴트)와 상담

		예	p-값
전체		6.8%	
성별	남성	8.2%	0.062
	여성	5.4%	
학교유형	2~3년제	4.9%	0.119
	4년제	7.7%	
	교육대	0%	
학교소재권역	서울권	11.6%	0.010
	경기.강원권	6.9%	
	충청권	6.9%	
	경상권	3.8%	
	전라.제주권	5.6%	
전공계열	인문계열	10.9%	0.025
	사회계열	7.2%	
	교육계열	2.2%	
	공학계열	4.8%	
	자연계열	10.7%	
	의약계열	2.6%	
	예체능계열	5.4%	
부모님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10.7%	0.687
	100~200만원 미만	5.5%	
	200~300만원 미만	8.9%	
	300~400만원 미만	6.4%	
	400~500만원 미만	4.9%	
	500~700만원 미만	8.1%	
	700~1000만원 미만	8.6%	
	1000만원 이상	6.8%	
	소득없음	3.9%	
	안계심(사망)	0%	
	모름/무응답	0%	
부모님 자산규모	5천만 원 미만	11.1%	0.171
	5천만 원 ~ 1억 5천만 원 미만	5.0%	
	1억 5천만 원 ~ 3억 원 미만	5.5%	
	3억 원 ~ 5억 원 미만	7.9%	
	5억 원 ~ 10억 원 미만	7.3%	
	10억 원 이상	5.1%	
	안계심(사망)	0%	
	모름/무응답	0%	

구직 중인 졸업자들은 6.8%가 취업을 위해 헤드헌터(서치 컨설턴트)와 상담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8.2%가 상담했고, 여성의 경우 5.4%가 상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의수준 5%하에서 p -값이 0.062로 “성별에 따라 취업을 위해 헤드헌터와 상담한 경험에는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성별에 따라 취업을 위한 헤드헌터와 상담한 경험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2~3년제의 경우 4.9%가 상담했고, 4년제의 경우 7.7%가 상담했고, 교육대의 경우 0%가 상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의수준 5%하에서 p -값이 0.119로 “학교 유형에 따라 취업을 위해 헤드헌터와 상담한 경험에는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학교 유형에 따라 취업을 위한 헤드헌터와 상담한 경험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학교 소재 권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권의 경우 11.6%가 상담했고, 경기·강원권의 경우 6.9%가 상담했고, 충청권의 경우 6.9%가 상담했고, 경상권의 경우 3.8%가 상담했고, 전라·제주권의 경우 5.6%가 상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수준 5%하에서 p -값이 0.01로 “학교 소재 권역에 따라 취업을 위해 헤드헌터와 상담한 경험에는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근거가 충분하다. 따라서 학교 소재 권역에 따라 취업을 위한 헤드헌터와 상담한 경험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전공계열별로 살펴보면 인문계열의 경우 10.9%가 상담했고, 사회계열의 경우 7.2%가 상담했고, 교육계열의 경우 2.2%가 상담했고, 공학계열의 경우 4.8%가 상담했고, 자연계열의 경우 10.7%가 상담했고, 의약계열의 경우 2.6%가 상담했고, 예체능계열의 경우 5.4%가 상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수준 5%하에서 p -값이 0.025로 “전공계열에 따라 취업을 위해 헤드헌터와 상담한 경험에는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근거가 충분하다. 따라서 전공계열에 따라 취업을 위한 헤드헌터와 상담한 경험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 별로 살펴보면 100만원 미만의 경우 10.7%가 상담했고, 100~200만원 미만의 경우 5.5%가 상담했고, 200~300만원 미만의 경우 8.9%가 상담했고, 300~400만원 미만의 경우 6.4%가 상담했고, 400~500만원 미만의 경우 4.9%가 상담했고, 500~700만원 미만의 경우 8.1%가 상담했고, 700~1000만원 미만의 경우 8.6%가 상담했고, 1000만원 이상의 경우 6.8%가 상담했고, 소득이 없는 경우 3.9%가 상담했고, 부모님이 사망하신 경우 0%가 상담했고, 모름/무응답의 경우 0%가 상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의수준 5%하에서 p -값이 0.687로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에 따라 취업을 위해 헤드헌터와 상담한 경험에는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에 따라 취업을 위한 헤드헌터와 상담한 경험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부모님의 자산 규모별로 살펴보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11.1%가 상담했고, 5천만 원 ~ 1억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5.0%가 상담했고, 1억 5천만 원 ~ 3억 원 미만인 경우 5.5%가 상담했고, 3억 원 ~ 5억 원 미만인 경우 7.9%가 상담했고, 5억 원 ~ 10억 원 미만인 경우 7.3%가 상담했고, 10억 원 이상인 경우 5.1%가 상담했고, 부모님이 사망하신 경우 0%가 상담했고, 모름/무응답의 경우 0%가 상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의수준 5%하에서 p -값이 0.171로 “부모님의 자산 규

모에 따라 취업을 위해 헤드헌터와 상담한 경험에는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부모님의 자산 규모에 따라 취업을 위한 헤드헌터와 상담한 경험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해보면 구직 중인 졸업자들은 6.8%가 취업을 위해 헤드헌터(서치 컨설턴트)와 상담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학교 유형,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 부모님의 자산 규모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학교 소재 권역, 전공계열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났다.

[표4.30] 외모관리

		예	p-값
전체		36.0%	
성별	남성	33.4%	0.079
	여성	38.4%	
학교유형	2~3년제	34.3%	0.208
	4년제	37.0%	
	교육대	0%	
학교소재권역	서울권	39.6%	0.014
	경기.강원권	43.5%	
	충청권	33.3%	
	경상권	32.2%	
	전라.제주권	29.6%	
전공계열	인문계열	42.6%	0.043
	사회계열	40.4%	
	교육계열	29.7%	
	공학계열	29.6%	
	자연계열	36.5%	
	의약계열	34.4%	
	예체능계열	33.0%	
부모님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44.4%	0.316
	100~200만원 미만	36.8%	
	200~300만원 미만	36.7%	
	300~400만원 미만	29.0%	
	400~500만원 미만	39.8%	
	500~700만원 미만	38.8%	
	700~1000만원 미만	38.3%	
	1000만원 이상	38.3%	
	소득없음	36.6%	
	안계심(사망)	32.6%	
	모름/무응답	100.0%	
부모님 자산규모	5천만 원 미만	42.4%	0.081
	5천만 원 ~ 1억 5천만 원 미만	33.1%	
	1억 5천만 원 ~ 3억 원 미만	32.2%	
	3억 원 ~ 5억 원 미만	39.1%	
	5억 원 ~ 10억 원 미만	36.1%	
	10억 원 이상	38.9%	
	안계심(사망)	29.0%	
	모름/무응답	100.0%	

구직 중인 졸업자들은 36.0%가 취업을 위해 외모관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33.4%가 관리를 하고, 여성의 경우 38.4%가 관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의수준 5%하에서 p -값이 0.079로 “성별에 따라 취업을 위해 외모관리를 하는 것은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는 취업을 위해 외모관리를 하는 것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2~3년제의 경우 34.3%가 관리를 하고, 4년제의 경우 37.0%가 관리를 하고, 교육대의 경우 0%가 관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의수준 5%하에서 p -값이 0.208로 “학교 유형에 따라 취업을 위해 외모관리를 하는 것은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학교 유형에 따라서는 취업을 위해 외모관리를 하는 것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학교 소재 권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권의 경우 39.6%가 관리하고, 경기·강원권의 경우 43.5%가 관리를 하고, 충청권의 경우 33.3%가 관리를 하고, 경상권의 경우 32.2%가 관리를 하고, 전라·제주권의 경우 29.6%가 관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수준 5%하에서 p -값이 0.014로 “학교 소재 권역에 따라 취업을 위해 외모관리를 하는 것은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근거가 충분하다. 따라서 학교 소재 권역에 따라서는 취업을 위해 외모관리를 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전공계열별로 살펴보면 인문계열의 경우 42.6%가 관리를 하고, 사회계열의 경우 40.4%가 관리를 하고, 교육계열의 경우 29.7%가 관리를 하고, 공학계열의 경우 29.6%가 관리를 하고, 자연계열의 경우 36.5%가 관리를 하고, 의약계열의 경우 34.4%가 관리를 하고, 예체능계열의 경우 33.0%가 관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수준 5%하에서 p -값이 0.043로 “전공계열에 따라 취업을 위해 외모관리를 하는 것은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근거가 충분하다. 따라서 전공계열에 따라서는 취업을 위해 외모관리를 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별로 살펴보면 100만원 미만의 경우 44.4%가 관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100~200만원 미만의 경우 36.8%가 관리하고, 200~300만원 미만의 경우 36.7%가 관리하고, 300~400만원 미만의 경우 29.0%가 관리하고, 400~500만원 미만의 경우 39.8%가 관리하고, 500~700만원 미만의 경우 38.8%가 관리하고, 700~1000만원 미만의 경우 38.3%가 관리하고, 1000만원 이상의 경우 38.3%가 관리하고, 소득이 없는 경우 36.6%가 관리를 하고, 부모님이 사망하신 경우 32.6%가 관리를 하고, 모름/무응답의 경우 100%가 관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의수준 5%하에서 p -값이 0.316로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에 따라 취업을 위해 외모관리를 하는 것은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에 따라서는 취업을 위해 외모관리를 하는 것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부모님의 자산 규모별로 살펴보면 5천만 원 미만의 경우 42.4%가 관리하고, 5천만 원 ~ 1억 5천만 원 미만의 경우 33.1%가 관리하고, 1억 5천만 원 ~ 3억 원 미만의 경우 39.1%가 관리하고, 3억 원 ~ 5억 원 미만의 경우 39.1%가 관리를 하고, 5억 원 ~ 10억 원 미만의 경우 36.1%가 관리를 하고, 10억원 이상의 경우 38.9%가 관리하고, 부모님이 사망하신 경우 29.0%가 관리하고, 모름/무응답의 경우 100%가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수준 5%하에서 p -값이 0.081로 “부모님

의 자산 규모에 따라 취업을 위해 외모관리를 하는 것은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근거가 충분하다. 따라서 부모님의 자산 규모에 따라서는 취업을 위해 외모관리를 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해보면 구직 중인 졸업자들은 36.0%가 취업을 위해 외모관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학교 유형,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학교 소재 권역, 전공 계열, 부모님의 자산 규모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31] 점포물색, 인허가 취득 준비 등 창업 준비

		예	p-값
전체		3.6%	
성별	남성	3.1%	0.380
	여성	4.1%	
학교유형	2~3년제	3.6%	0.907
	4년제	3.6%	
	교육대	0%	
학교소재권역	서울권	4.9%	0.742
	경기.강원권	3.0%	
	충청권	3.9%	
	경상권	3.4%	
	전라.제주권	2.8%	
전공계열	인문계열	3.9%	0.953
	사회계열	3.7%	
	교육계열	1.3%	
	공학계열	4.0%	
	자연계열	3.1%	
	의약계열	2.5%	
	예체능계열	4.0%	
부모님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7.4%	0.001
	100~200만원 미만	2.0%	
	200~300만원 미만	1.7%	
	300~400만원 미만	3.2%	
	400~500만원 미만	2.9%	
	500~700만원 미만	3.2%	
	700~1000만원 미만	8.1%	
	1000만원 이상	6.6%	
	소득없음	6.3%	
	안계심(사망)	19.7%	
	모름/무응답	0%	
부모님 자산규모	5천만 원 미만	4.6%	0.001
	5천만 원 ~ 1억 5천만 원 미만	3.2%	
	1억 5천만 원 ~ 3억 원 미만	1.6%	
	3억 원 ~ 5억 원 미만	3.7%	
	5억 원 ~ 10억 원 미만	5.4%	
	10억 원 이상	5.0%	
	안계심(사망)	20.9%	
	모름/무응답	0%	

구직 중인 졸업자의 3.6%는 점포물색, 인허가 취득 준비 등 창업을 준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3.1%가 준비했고, 여성의 경우 4.1%가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의수준 5%하에서 p -값이 0.38로 “성별에 따라 점포물색, 인허가 취득 준비 등 창업을 준비 한 것은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성별에 따라 점포물색, 인허가 취득 준비 등 창업을 준비 한 것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2~3년제의 경우 3.6%가 준비했고, 4년제의 경우 3.6%가 준비했고, 교육대의 경우 0%가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의수준 5%하에서 p -값이 0.907로 “학교 유형에 따라 점포물색, 인허가 취득 준비 등 창업을 준비 한 것은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학교 유형에 따라 점포물색, 인허가 취득 준비 등 창업을 준비 한 것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학교 소재 권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권은 4.9%가 준비했고, 경기·강원권은 3.0%가 준비했고, 충청권은 3.9%가 준비했고, 경상권은 3.4%가 준비했고, 전라·제주권은 2.8%가 준비했다. 그러나 유의수준 5%하에서 p -값이 0.742로 “학교 소재 권역에 따라 점포물색, 인허가 취득 준비 등 창업을 준비 한 것은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학교 소재 권역에 따라 점포물색, 인허가 취득 준비 등 창업을 준비 한 것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전공계열별로 살펴보면 인문계열은 3.9%가 준비했고, 사회계열은 3.7%가 준비했고, 공학계열의 경우 4.0%가 준비했고, 자연계열의 경우 3.1%가 준비했고, 의약계열의 경우 2.5%가 준비했고, 예체능계열의 경우 4.0%가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의수준 5%하에서 p -값이 0.953로 “전공계열에 따라 점포물색, 인허가 취득 준비 등 창업을 준비 한 것은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전공계열에 따라 점포물색, 인허가 취득 준비 등 창업을 준비 한 것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별로 살펴보면 100만원 미만의 경우 7.4%가 준비했고, 100~200만원 미만의 경우 2.0%가 준비했고, 200~300만원 미만의 경우 1.7%가 준비했고, 300~400만원 미만의 경우 3.2%가 준비했고, 400~500만원 미만의 경우 2.9%가 준비했고, 500~700만원 미만의 경우 3.2%가 준비했고, 700~1000만원 미만의 경우 8.1%가 준비했고, 소득이 없는 경우 6.3%가 지원했고, 부모님이 사망하신 경우 19.7%가 준비했고, 모름/무응답의 경우 0%가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수준 5%하에서 p -값이 0.001로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에 따라 점포물색, 인허가 취득 준비 등 창업을 준비 한 것은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근거가 충분하다. 따라서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에 따라 점포물색, 인허가 취득 준비 등 창업을 준비 한 것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부모님의 자산 규모별로 살펴보면, 5천만 원 미만의 경우 4.6%가 준비했고, 5천만 원 ~ 1억 5천만 원 미만의 경우 3.2%가 준비했고, 1억 5천만 원 ~ 3억 원 미만의 경우 1.6%가 준비했고, 3억 원 ~ 5억 원 미만의 경우 3.7%가 준비했고, 5억 원 ~ 10억 원 미만의 경우 5.4%가 준비했고, 10억 원 이상의 경우 5.0%가 준비했고, 부모님이 사망하신 경우 20.9%가 준비했고, 모름/무응답의 경우 0%가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수준 5%하에서 p -값이 0.001로 “부모님의 자산 규모에 따라 점포물색, 인허가 취득 준비 등 창업을 준비 한 것은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근거가 충분하다. 따라서 부모님의 자산 규모에 따라 점포물색, 인허가 취득 준비 등 창업을 준비 한

것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해보면 구직 중인 졸업자의 3.6%는 점포물색, 인허가 취득 준비 등 창업을 준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학교 유형, 학교 소재 권역, 전공계열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 부모님의 자산 규모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문항분석[일자리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B17. 일자리의 선택에서 다음 사항들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2순위까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1. 근로소득	9. 직장(고용) 안정성
2. 근로시간	10. 근무환경
3. 자신의 적성·흥미	11. 복리후생
4. 전공분야와의 관련성	12. 회사규모
5. 업무내용의 난이도	13. 출퇴근 거리
6. 업무량	14.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평판
7. 개인의 발전가능성	15. 하는 일에 대한 사회적 평판
8. 직업 자체의 미래 전망	16. 기타(_____)

[표4.32] 일자리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것_1

		근로 소득	근로 시간	자 신 의 적 성 · 흥 미	전 공 분 야 와 의 관 련 성	업 무 내 容 의 난 이 도	업 무 량	개 인 의 발 전 가 능 성	직 업 자 체 의 미 래 전 망	직 장 (고 용) 안 정 성	근 무 환 경	복 리 후 생	회 사 규 모	출 퇴 근 거 리	일 자 리 대 한 사 회 적 평 판	하 는 일 에 대 한 사 회 적 평 판	p-값
전체		29.7%	12.0%	26.7%	7.0%	0.6%	0.3%	3.5%	2.3%	7.3%	5.4%	1.8%	0.6%	2.4%	0.2%	0.0%	
성별	남성	28.1%	14.7%	24.7%	7.3%	0.8%	0.4%	4.3%	3.7%	6.3%	5.1%	2.2%	0.4%	1.7%	0.2%	0.1%	0.006
	여성	31.2%	9.5%	28.7%	6.6%	0.5%	0.2%	2.8%	0.9%	8.2%	5.7%	1.5%	0.7%	3.1%	0.2%	-	
학교 유형	2~3년제	27.4%	16.6%	26.5%	4.1%	1.3%	0.2%	3.5%	2.3%	4.1%	7.3%	2.1%	0.7%	4.0%	-	-	0.000
	4년제	31.0%	9.8%	26.8%	8.3%	0.3%	0.3%	3.6%	2.3%	8.9%	4.5%	1.7%	0.5%	1.6%	0.3%	0.1%	
	교육대	-	-	45.6%	35.0%	-	19.4%	-	-	-	-	-	-	-	-	-	
학교 소재 권역	서울권	26.5%	7.0%	36.3%	8.4%	-	-	4.6%	1.1%	7.3%	6.0%	-	0.9%	1.4%	0.5%	-	0.027
	경기.강원권	28.6%	10.5%	28.0%	4.8%	0.6%	0.1%	5.4%	1.1%	9.4%	4.8%	1.8%	0.3%	4.0%	0.5%	-	
	충청권	29.2%	13.1%	23.8%	8.2%	0.9%	0.7%	3.2%	3.4%	6.4%	5.4%	2.2%	0.8%	2.6%	-	-	
	경상권	32.8%	16.2%	22.0%	7.3%	1.0%	0.5%	2.2%	2.1%	6.0%	5.3%	2.1%	0.6%	1.9%	-	0.2%	
	전라.제주권	29.8%	11.9%	24.1%	6.4%	0.5%	0.4%	2.1%	5.1%	7.8%	5.9%	3.8%	-	2.2%	-	-	
전공 계열	인문계열	32.6%	8.0%	28.4%	3.1%	-	0.6%	4.4%	3.0%	13.0%	5.4%	0.3%	-	0.9%	0.3%	-	0.000
	사회계열	32.0%	9.2%	30.9%	4.9%	0.2%	-	2.6%	2.3%	5.2%	5.6%	3.0%	-	3.4%	0.3%	0.1%	
	교육계열	14.0%	24.0%	35.6%	6.4%	4.7%	1.6%	2.2%	-	6.9%	1.9%	2.0%	-	0.8%	-	-	
	공학계열	25.1%	15.1%	24.2%	9.6%	0.8%	0.4%	4.9%	3.1%	5.9%	5.7%	1.6%	1.0%	2.2%	0.2%	-	
	자연계열	30.6%	13.1%	20.6%	6.0%	1.2%	0.3%	3.2%	2.1%	12.5%	4.7%	1.4%	0.5%	3.7%	-	-	
	의약계열	39.2%	21.6%	7.6%	5.5%	1.0%	-	1.9%	-	10.0%	6.7%	2.8%	2.0%	1.6%	-	-	
	예체능계열	28.8%	7.8%	32.2%	13.0%	-	0.7%	3.9%	1.7%	4.0%	5.4%	0.3%	1.1%	1.2%	-	-	

[표4.33] 일자리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것_2

		근로 소득	근로 시간	자 신 의 적 성 미	전 공 야 의 관 련 성	업 무 내 용 의 난 이 도	업 무 량	개 인 의 발 전 가 성	직 업 자 체 의 미 래 전 망	직 장 (고 용) 안 정 성	근 무 환 경	복 리 후 생	회 사 규 모	출 퇴 근 거 리	일 자 리 에 대 한 사 회 적 평 판	하 는 일 에 대 한 사 회 적 평 판	p-값
전체		29.7%	12.0%	26.7%	7.0%	0.6%	0.3%	3.5%	2.3%	7.3%	5.4%	1.8%	0.6%	2.4%	0.2%	0.0%	
부 모 님 월 평 균 소 득	100만원 미 만	42.3%	5.9%	31.7%	2.5%	-	-	2.3%	3.3%	12.0%	-	-	-	-	-	-	0.000
	100~200만 원 미만	34.4%	9.7%	25.6%	5.1%	0.6%	0.7%	4.7%	0.9%	5.3%	5.0%	1.7%	1.6%	4.6%	-	-	
	200~300만 원 미만	27.3%	12.3%	25.0%	10.1%	0.3%	0.2%	2.9%	2.6%	6.6%	6.4%	1.9%	0.4%	3.7%	0.2%	-	
	300~400만 원 미만	26.3%	15.2%	24.0%	7.5%	1.2%	0.3%	3.1%	3.6%	6.5%	6.6%	2.0%	0.8%	1.9%	0.7%	0.2%	
	400~500만 원 미만	32.5%	10.8%	27.9%	5.8%	1.3%	0.6%	3.5%	0.5%	8.2%	5.5%	2.6%	-	0.9%	-	-	
	500~700만 원 미만	25.2%	10.8%	32.5%	7.4%	-	-	3.6%	3.6%	9.1%	3.0%	0.8%	-	3.9%	-	-	
	700~1000 만원 미만	33.0%	10.8%	30.6%	4.5%	-	0.9%	4.2%	1.1%	11.0%	3.2%	0.6%	-	-	-	-	
	1000 만 원 이상	27.8%	19.4%	22.3%	3.8%	-	-	2.9%	-	11.3%	10.6%	-	2.0%	-	-	-	
	소득없음	40.9%	-	32.8%	6.3%	-	-	10.6%	4.4%	-	-	-	2.2%	2.7%	-	-	
	안 계 심 (사 망)	35.5%	19.9%	16.8%	7.4%	-	-	-	4.2%	-	10.8%	5.6%	-	-	-	-	
	모 름 / 무 응 답	24.5%	-	-	-	-	-	-	-	-	-	75.5%	-	-	-	-	
부 모 님 자 산 규 모	5천만 원 미만	33.0%	10.0%	29.7%	6.6%	0.4%	0.2%	5.5%	2.1%	5.2%	2.6%	1.8%	0.5%	2.1%	0.3%	-	0.000
	5천만 원 ~ 1억 5천 만 원 미만	31.3%	10.2%	27.2%	6.0%	0.3%	-	2.8%	2.3%	6.3%	8.0%	0.9%	1.1%	3.6%	0.2%	-	
	1억 5천만 원 ~ 3억 원 미만	26.7%	12.0%	25.7%	8.6%	1.0%	0.6%	4.4%	2.1%	6.5%	5.6%	2.8%	0.6%	3.0%	0.4%	-	
	3억 원 ~ 5억 원 미 만	29.0%	12.9%	27.1%	8.2%	0.4%	0.2%	2.6%	2.1%	11.2%	4.6%	0.6%	-	1.0%	-	0.2%	
	5억 원 ~ 10억 원 미 만	31.6%	15.6%	25.1%	2.8%	1.6%	1.1%	2.8%	2.2%	5.9%	5.3%	2.6%	0.8%	2.6%	-	-	
	10억 원 이 상	25.1%	17.5%	28.4%	3.2%	-	-	-	6.4%	17.7%	1.8%	-	-	-	-	-	
	안 계 심 (사 망)	37.6%	21.0%	17.7%	7.8%	-	-	-	4.4%	-	11.4%	-	-	-	-	-	
	모 름 / 무 응 답	13.5%	-	-	-	-	-	-	-	-	-	86.5%	-	-	-	-	

구직 중인 졸업자들은 일자리 선택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근로소득”이 29.7%로 가장 많았다. “자신의 적성·흥미”가 26.7%로 뒤를 이었으며, “근로시간”이 12.0%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근로소득”이 28.1%로 가장 많았고, 여성의 경우 “근로소득”이 2.1%로 가장 많았다. 유의수준 5%하에서 p -값이 0.006로 “성별에 따라 일자리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는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근거가 충분하다. 따라서 성별에 따라 일자리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2~3년제의 경우 “근로소득”이 27.4%로 가장 많았고, 4년제의 경우 “근로소득”이 31.0%로 가장 많았고, 교육대의 경우 “자신의 적성·흥미”가 45.6%로 가장 많았다. 유의수준 5%하에서 p -값이 0.000로 “학교 유형에 따라 일자리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는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근거가 충분하다. 따라서 학교 유형에 따라 일자리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학교 소재 권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권의 경우 “근로소득”이 26.5%로 가장 많았고, 경기·강원권의 경우 “근로소득”이 28.6%로 가장 많았고, 충청권의 경우 “근로소득”이 29.2%로 가장 많았고, 충청권의 경우 “근로소득”이 29.2%로 가장 많았고, 경상권의 경우 “근로소득”이 32.8%로 가장 많았고, 전라·제주권의 경우 “근로소득”이 29.8%로 가장 많았다. 유의수준 5%하에서 p -값이 0.027로 “학교 소재 권역에 따라 일자리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는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근거가 충분하다. 따라서 학교 소재 권역에 따라 일자리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전공계열별로 살펴보면 인문계열의 경우 “근로소득”이 32.6%로 가장 많았고, 사회계열의 경우 “근로소득”이 32.0%로 가장 많았고, 교육계열의 경우 “자신의 적성·흥미”가 35.6%로 가장 많았고, 공학계열의 경우 “근로소득”이 25.1%로 가장 많았고, 자연계열의 경우 “근로소득”이 30.6%로 가장 많았고, 의약계열의 경우 “근로소득”이 39.2%로 가장 많았고, 예체능계열의 경우 “자신의 적성·흥미”가 32.2%로 가장 많았다. 유의수준 5%하에서 p -값이 0.000로 “전공계열에 따라 일자리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는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근거가 충분하다. 따라서 전공계열에 따라 일자리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별로 살펴보면 100만원 미만의 경우 “근로소득”이 42.3%로 가장 많았고, 100~200만원 미만의 경우 “근로소득”이 34.4%로 가장 많았고, 200~300만원 미만의 경우 “근로소득”이 27.3%로 가장 많았고, 300~400만원 미만의 경우 “근로소득”이 26.3%로 가장 많았고, 400~500만원 미만의 경우 “근로소득”이 32.5%로 가장 많았고, 500~700만원 미만의 경우 “자신의 적성·흥미”가 32.5%로 가장 많았고, 700~1000만원 미만의 경우 “근로소득”이 33.0%로 가장 많았고, 1000만원 이상의 경우 “근로소득”이 27.8%로 가장 많았고, 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이 40.9%로 가장 많았고, 부모님이 사망하신 경우 “근로소득”이 35.5%로 가장 많았고, 모름/무응답의 경우 “복리후생”이 75.5%로 가장 많았다. 유의수준 5%하에서 p -값이 0.000로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에 따라 일자리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는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근거가 충분하다. 따라서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에 따라 일자리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부모님의 자산 규모별로 살펴보면 5천만 원 미만의 경우 “근로소득”이 33.0%로 가장 많았고, 5천만 원 ~ 1억 5천만 원 미만의 경우 “근로소득”이 31.3%로 가장 많았고, 1억 5천만 원 ~ 3억 원 미만의 경우 “근로소득”이 26.7%로 가장 많았고, 3억 원 ~ 5억 원 미만의 경우 “근로소득”이 29.0%로 가장 많았으며, 5억 원 ~ 10억 원 미만의 경우 “근로소득”이 31.6%로 가장 많았고, 10억 원 이상의 경우 “자신의 적성·흥미”이 28.4%로 가장 많았다. 부모님이 사망하신 경우 “근로소득”이 37.6%로 가장 많았고, 모름/무응답의 경우 “복리후생”이 86.5%로 가장 많았다. 유의수준 5%하에서 p-값이 0.000로 “부모님의 자산 규모에 따라 일자리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는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근거가 충분하다. 따라서 부모님의 자산 규모에 따라 일자리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해보면 구직 중인 졸업자들은 일자리 선택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근로소득”이 29.7%로 가장 많았다. “자신의 적성·흥미”가 26.7%로 뒤를 이었으며, “근로시간”이 12.0%로 나타났다. 성별, 학교 유형, 학교 소재 권역, 전공계열,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 부모님의 자산 규모에 따라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문항분석[구직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

B18. 구직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2순위까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1. 취업(창업)정보가 부족하거나 잘 몰라서
2. 본인의 적성을 파악하지 못해서
3. 경력이 부족해서
4. 성차별 때문에
5. 나이가 많거나 적어서
6. 학력, 학벌, 능력(스펙, 자격증 등)이 부족해서
7. 외모 또는 신체적 결함(장애, 병)으로 인해서
8. 수입이나 보수가 맞지 않아서
9. 근무환경이나 근무시간 등이 맞지 않아서
10. 원하는 분야의 일자리가 부족해서
11. 입사 준비서류(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방법을 몰라서
12. 창업자금이 부족해서
13. 기타()

[표4.34] 구직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_1

		취업(창업) 정보가 부족하거나 몰라서	본인의 적성을 파악하지 못해서	경력이 부족해서	성차별 때문에	나이가 많거나 적어서	학력, 학벌, 능력(스펙, 자격증 등)이 부족해서	외모 또는 신체적 결함(장애, 병)으로 인해서	수입이나 보수가 맞지 않아서	근무환경이나 근무시간 등이 맞지 않아서	원하는 분야의 일자리가 부족해서	입사준비서류(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방법을 몰라서	창업자금이 부족해서	p-값
전체		12.4%	9.1%	20.8%	1.1%	4.1%	17.4%	0.8%	8.6%	7.6%	16.2%	1.4%	0.6%	
성별	남성	11.8%	8.9%	20.9%	0.4%	5.0%	20.8%	1.2%	6.8%	5.6%	16.5%	1.8%	0.2%	0.001
	여성	12.9%	9.2%	20.7%	1.8%	3.3%	14.1%	0.5%	10.3%	9.4%	15.9%	0.9%	0.9%	
학교유형	2~3년제	11.7%	11.9%	22.5%	1.1%	4.2%	15.3%	0.8%	9.4%	10.4%	11.6%	0.4%	0.7%	0.089
	4년제	12.8%	7.6%	19.9%	1.1%	4.0%	18.5%	0.8%	8.3%	6.2%	18.4%	1.8%	0.5%	
	교육대	-	11.7%	34.0%	-	-	-	-	-	-	54.4%	-	-	
학교소재권역	서울권	10.3%	9.4%	19.4%	1.7%	6.5%	14.7%	0.2%	9.7%	7.3%	19.4%	1.0%	0.4%	0.015
	경기.강원권	12.0%	15.2%	25.0%	1.1%	2.6%	16.1%	0.3%	9.4%	5.3%	10.4%	2.0%	0.4%	
	충청권	9.0%	5.4%	20.9%	0.5%	3.4%	21.6%	0.6%	9.7%	8.5%	18.6%	1.4%	0.4%	
	경상권	15.6%	6.2%	21.6%	1.3%	4.1%	17.0%	0.9%	8.1%	8.6%	14.6%	1.2%	0.7%	
	전라.제주권	12.9%	8.8%	13.8%	0.6%	3.9%	19.4%	2.6%	5.6%	8.6%	21.8%	1.0%	1.0%	
전공계열	인문계열	18.6%	9.3%	19.9%	1.1%	5.1%	16.9%	-	4.8%	3.0%	20.7%	0.7%	-	0.003
	사회계열	11.0%	9.6%	23.1%	0.9%	5.5%	17.3%	1.1%	6.6%	7.3%	15.1%	1.8%	0.9%	
	교육계열	11.6%	15.9%	23.8%	-	4.3%	6.4%	1.3%	6.3%	6.3%	22.3%	1.8%	-	
	공학계열	11.6%	9.8%	19.8%	1.2%	4.4%	21.8%	0.9%	7.7%	7.0%	12.9%	2.2%	0.8%	
	자연계열	12.5%	7.6%	19.3%	1.6%	2.1%	18.2%	-	9.9%	12.0%	16.1%	0.7%	-	
	의약계열	13.5%	9.0%	29.2%	1.9%	-	15.4%	1.8%	8.8%	14.2%	6.3%	-	-	
	예체능계열	11.5%	5.2%	13.3%	1.0%	2.4%	11.9%	1.1%	19.7%	6.9%	25.8%	0.4%	0.8%	

[표4.35] 구직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_2

		취업(창업) 정보가 부족하거나 몰라서	본인의 적성을 파악하지 못해서	경력이 부족해서	성차별 때문에	나이가 많거나 적어서	학력, 학벌(스펙, 자격증 등)이 부족해서	외모는 신체적 결함(장병)으로 인해서	수입보가 맞지 않아서	무경험이나 무관심이 많아서	원하는 분야의 일자리가 부족해서	입사준비서류(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법을 잘 몰라서	창업자금 부족해서	p-값
전체		12.4%	9.1%	20.8%	1.1%	4.1%	17.4%	0.8%	8.6%	7.6%	16.2%	1.4%	0.6%	
부 모 님 월 평 균 수 득	100만원 미만	11.5%	1.5%	14.5%	3.3%	9.4%	9.7%	-	19.4%	12.0%	16.3%	-	2.3%	0.000
	100~200만원 미만	8.1%	10.2%	21.3%	0.8%	3.1%	16.9%	3.2%	12.2%	10.7%	13.0%	0.4%	-	
	200~300만원 미만	12.2%	6.8%	25.7%	0.5%	3.0%	22.6%	0.7%	9.8%	5.9%	12.0%	0.5%	0.4%	
	300~400만원 미만	9.7%	13.1%	18.9%	1.0%	2.9%	18.7%	0.4%	8.9%	9.0%	15.9%	1.5%	-	
	400~500만원 미만	17.5%	9.5%	17.1%	1.4%	2.2%	18.1%	-	6.5%	4.7%	20.1%	2.8%	0.3%	
	500~700만원 미만	14.0%	9.1%	25.1%	2.3%	2.7%	12.7%	0.7%	6.2%	6.3%	17.7%	1.1%	2.0%	
	700~1000만원 미만	16.7%	4.1%	19.2%	1.0%	4.4%	8.0%	-	11.1%	11.6%	21.3%	2.6%	-	
	1000만원 이상	9.3%	6.4%	17.6%	-	6.6%	15.0%	3.7%	1.3%	15.0%	25.1%	-	-	
	소득없음	16.9%	8.1%	23.2%	-	5.2%	21.5%	-	9.7%	-	15.4%	-	-	
	안계심(사망)	-	4.2%	5.6%	-	47.3%	15.6%	1.7%	2.7%	7.3%	5.5%	4.0%	6.2%	
	모름/무응답	-	-	100%	-	-	-	-	-	-	-	-	-	
부 모 님 자 산 규 모	5천만 원 미만	11.7%	10.6%	27.5%	1.7%	3.4%	13.7%	0.4%	15.3%	2.9%	11.0%	0.9%	0.8%	0.000
	5천만 원 ~ 1억 5천만 원 미만	9.6%	12.7%	17.4%	0.9%	2.3%	19.1%	1.4%	10.7%	11.0%	13.0%	1.1%	0.8%	
	1억 5천만 원 ~ 3억 원 미만	15.2%	6.8%	19.3%	1.3%	3.6%	19.0%	0.7%	6.8%	7.5%	18.3%	1.5%		
	3억 원 ~ 5억 원 미만	13.7%	10.1%	23.5%	0.7%	3.3%	17.9%	0.5%	4.8%	4.6%	18.9%	1.9%	0.2%	
	5억 원 ~ 10억 원 미만	14.0%	3.2%	18.0%	0.8%	2.8%	16.8%	1.5%	10.7%	12.2%	18.6%	0.6%	0.7%	
	10억 원 이상	2.0%	10.2%	19.2%	2.3%	6.6%	6.2%			19.7%	32.3%		1.5%	
	안계심(사망)		4.4%	5.9%		44.2%	16.5%	1.8%	2.9%	7.7%	5.8%	4.3%	6.6%	
	모름/무응답			55.2%		44.8%								

구직 중인 졸업자들은 일자리 선택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경력이 부족해서”가 20.8%로 가장 많았다. “학력, 학벌, 능력(스펙, 자격증 등)이 부족해서”가 17.4%로 뒤를 이었으며, “원하는 분야의 일자리가 부족해서”가 16.2%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경력이 부족해서”가 20.9%로 가장 많았고, 여성의 경우 “경력이 부족해서”가 20.7%로 가장 많았다. 유의수준 5%하에서 p-값이 0.001로 “성별에 따라 일자리 선택 과정에서의 어려운 점의 차이는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근거가 충분하다.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일자리 선택 시 어려운 점의 차이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2~3년제의 경우 “경력이 부족해서”가 22.5%로 가장 많았고, 4년제의 경우 “경력이 부족해서”가 19.9%로 가장 많았고, 교육대의 경우 “경력이 부족해서”가 34.0%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유의수준 5%하에서 p-값이 0.089로 “학교 유형에 따라 일자리 선택 과정에서의 어려운 점의 차이는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학교 유형에 따라서 일자리 선택 시 어려운 점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학교 소재 권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권의 경우 “경력이 부족해서”가 19.4%로 가장 많았고, 경기·강원권의 경우 “경력이 부족해서”가 25.0%로 가장 많았고, 충청권의 경우 “학력, 학벌, 능력(스펙, 자격증 등)이 부족해서”가 21.6%로 가장 많았고, 경상권의 경우 “경력이 부족해서”가 21.6%로 가장 많았고, 전라·제주권의 경우 “원하는 분야의 일자리가 부족해서”가 21.8%로 가장 많았다. 유의수준 5%하에서 p-값이 0.015로 “학교 소재 권역에 따라 일자리 선택 과정에서의 어려운 점의 차이는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근거가 충분하다. 따라서 학교 소재 권역에 따라서 일자리 선택 시 어려운 점의 차이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전공계열별로 살펴보면 인문계열의 경우 “경력이 부족해서”가 19.9%로 가장 많았고, 사회계열의 경우 “경력이 부족해서”가 23.1%로 가장 많았고, 교육계열의 경우 “경력이 부족해서”가 23.8%로 가장 많았고, 공학계열의 경우 “학력, 학벌, 능력(스펙, 자격증 등)이 부족해서”가 21.8%로 가장 많았고, 자연계열의 경우 “경력이 부족해서”가 19.3%로 가장 많았고, 의약계열의 경우 “경력이 부족해서”가 29.2%로 가장 많았고, 예체능계열의 경우 “원하는 분야의 일자리가 부족해서”가 25.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수준 5%하에서 p-값이 0.003로 “전공계열에 따라 일자리 선택 과정에서의 어려운 점의 차이는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근거가 충분하다. 따라서 전공계열에 따라서 일자리 선택 시 어려운 점의 차이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별로 살펴보면 100만원 미만의 경우 “수입이나 보수가 맞지 않아서”가 19.4%로 가장 많았으며, 100~200만원 미만의 경우 “경력이 부족해서”가 21.3%로 가장 많았고, 200~300만원 미만의 경우 “경력이 부족해서”가 58.7%로 가장 많았고, 300~400만원 미만의 경우 “경력이 부족해서”가 18.9%로 가장 많았고, 400~500만원 미만의 경우 “원하는 분야의 일자리가 부족해서”가 20.1%로 가장 많았고, 500~700만원 미만의 경우 “경력이 부족해서”가 25.1%로 가장 많았고, 700~1000만원 미만의 경우 “원하는 분야의 일자리가 부족해서”가 21.3%로 가장 많았고, 1000만원 이상의 경우 “원하는 분야의 일자리가 부족해서”가 25.1%로 가장 많았고, 소득이 없는 경우 “경력이 부족해서”가 23.2%로 가장 많았고, 부모님이 사망하신 경우 “나이가 많거나 적어서”가 47.3%로 가장 많았고, 모름/무응답의 경우 “경력이 부족해서”가 100%로 가장 많았다. 유의수준 5%하에서 p-값이 0.000로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에 따라 일자리 선택 과정에서의 어려운 점의 차

이는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근거가 충분하다. 따라서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에 따라서 일자리 선택 시 어려운 점의 차이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부모님의 자산 규모별로 살펴보면 5천만 원 미만의 경우 “경력이 부족해서”가 25.7%로 가장 많았고, 5천만 원 ~ 1억 5천만 원 미만의 경우 “학력, 학벌, 능력(스펙, 자격증 등)이 부족해서”가 19.1%로 가장 많았고, 1억 5천만 원 ~ 3억 원 미만의 경우 “경력이 부족해서”가 19.3%로 가장 많았고, 3억 원 ~ 5억 원 미만의 경우 “경력이 부족해서”가 23.5%로 가장 많았고, 5억 원 ~ 10억 원 미만의 경우 “원하는 분야의 일자리가 부족해서”가 18.6%로 가장 많았고, 10억 원 이상의 경우 “원하는 분야의 일자리가 부족해서”가 32.3%로 가장 많았고, 부모님이 사망하신 경우 “나이가 많거나 적어서”가 44.2%로 가장 많았고, 모름/무응답의 경우 “나이가 많거나 적어서”가 44.8%로 가장 많았다. 유의수준 5%하에서 p-값이 0.000로 “부모님의 자산 규모에 따라 일자리 선택 과정에서의 어려운 점의 차이는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근거가 충분하다. 따라서 부모님의 자산 규모에 따라서 일자리 선택 시 어려운 점의 차이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해보면 구직 중인 졸업자들은 일자리 선택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경력이 부족해서”가 20.8%로 가장 많았다. “학력, 학벌, 능력(스펙, 자격증 등)이 부족해서”가 17.4%로 뒤를 이었으며, “원하는 분야의 일자리가 부족해서”가 16.2%로 나타났다. 학교 유형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성별, 학교 소재 권역, 전공계열,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 부모님의 자산 규모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과 요약 및 결론

· 결과 요약

주요 문항의 분석에 대하여 성별, 학교 유형, 학교 소재 권역, 전공계열,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 부모님의 자산 규모에 따른 집단의 차이에 대한 존재 유무는 다음 표와 같다.

[표5.1] 결과 요약

(○ : 그룹별로 차이가 있음. / X : 그룹별로 차이가 없음.)

	성별	학교유형	학교소재권역	전공계열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	부모님의 자산 규모
구직활동기간	X	○	○	○	X	X
일자리 정보 획득 경로	X	X	○	○	○	○
취업 희망 사업체 유형	X	○	○	○	○	○
취업 희망 사업체 규모	○	○	○	○	X	X
일자리 지원 횟수	○	○	○	○	○	○
면접 횟수	○	○	○	○	○	○
일자리 제의 횟수	○	○	○	○	○	X
일자리 거절 경험	X	X	○	X	X	X
일자리 거절 이유	X	○	X	X	○	X
최저 희망 연봉	○	○	○	○	○	○
취업에 대한 노력	외국어 회화 학원수강	X	○	○	X	○
	토익, 토플 등 외국어 시험	X	○	○	○	○
	면접훈련 교육	X	○	X	○	X
	IT, 컴퓨터관련 교육	X	○	○	X	X
	공공취업알선기관 구직등록	X	X	X	X	○
	취업박람회 참여	○	○	○	X	X
	구직정보를 인터넷에 등록	X	X	○	X	X
	지인에게 취업 부탁	X	○	○	○	○
	자격증 취득	X	○	X	X	X
	헤드헌터와 상담	X	X	○	X	X
	외모관리	X	X	○	X	X
	창업 준비	X	X	X	○	○
일자리 선택 시 가장 중요한 점	○	○	○	○	○	○
일자리 선택 시 어려운 점	○	X	○	○	○	○

· 결론 및 제언

전반적인 구직활동 항목에서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과 부모님의 자산 규모에 따라 구직 활동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24개의 구직 활동의 문항에서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에 따라서는 13개의 항목에 따라 집단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자산 규모에 따라서는 12개의 항목에 따라 집단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부모님의 소득과 자산 중 자식의 구직 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님의 경제적이 능력이 안 좋을수록 구직 활동을 위해 더 많은 활동을 하는 것을 나타냈다. 부모님의 소득이 없거나 안 계시는 경우 좀 더 많은 최저 희망 연봉을 원했으며, 일자리 선택 시 “근로소득”을 매우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님의 월평균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13가지의 취업을 위한 활동에서도 “경험을 했다”의 비율이 대부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님의 소득이 증가하거나 자산의 규모가 커질수록, 구직 활동 기간이 길어지거나, 면접의 횟수가 증가한다거나, 일자리를 제의 받은 횟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등의 경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취업을 희망하는 사업체의 유형에 대해서는 부모의 경제 능력에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내국인이 운영하는 국내외의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에 취업하기를 원했지만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낮을수록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공무원들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높을수록, 공기업, 공공기관, 공무원 보다는 외국계 기업에 취직하기를 더 선호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체 규모에서는 약 42.4%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고 대답했지만,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높을수록 그 비율은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에서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좀 더 선호하는 구직 활동이 있거나, 구직 기간이 더 길어지는 등의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부모의 경제 능력이 낮은 자식일수록 구직 활동에서 경제적 조건이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직 활동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높아질수록 취업에 대한 부담감이 더 적어 좀 더 여유를 가지고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지 않고, 구직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상관없이 모든 구직자들이 본인의 진정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구직 활동을 할 때 경제적, 시간적 여유를 보장해주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바이다.